

대한건축학회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6 동아타워빌딩 2층 우편번호 : 137-857
전화 : 02-581-5711-4 팩스 : 02-588-8823 E-mail : korea@kira.or.kr
http://www.kir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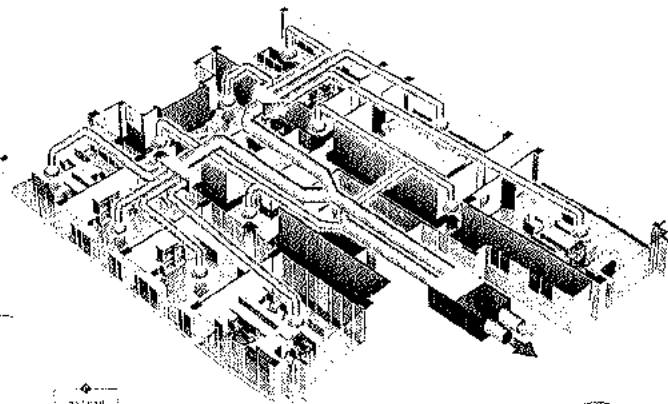
건축사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vol.426 / October / 2004

0410



맑고 건강한 공기를 위한
환기 시스템을 생각합니다



● KT 신기술 인증서



● 고효율 전열교환 환기 시스템
(150~1,000CMH)

LG 환기시스템 **ecoV**TM

오염된 실내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고 신선한 실외공기를 공급해 주는
에코브이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공간을 만들어 드립니다



세집 증후군(SBS)을 유발하는 각종 실내 오염물질 제거



부작포 필터를 통한 향사 및 먼지 제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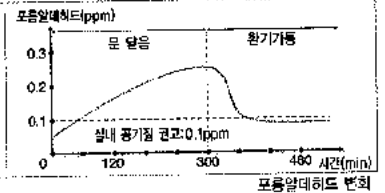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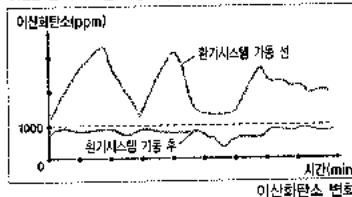


전열교환(온도/습도 교환)을 통한 냉난방 운전비용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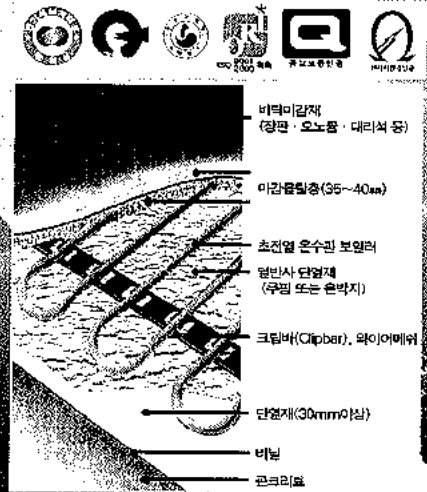
습도유지 및 탈취 기능

■ LG 환기시스템 가동 후, 실내 유해물질의 변화 (자사시험 data 기준)



난방비 걱정 끝!

가스 1년 난방비로 2년간 난방!
기름 1년 난방비로 3년간 난방가능!



세계에서 인정받은 바닥난방 초절전 온수관난방 시스템!
일반용전력으로 심야전력기기보다 저렴한난방!
기존온돌히터 전력량의 1/3로 난방가능!

1.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고 에너지 소비가 적은 고효율 전기 난방

- 1) 밀폐한 XL온돌관 내부에 저온의 복수발열선을 응용, 온수와 증기 2상 매체의 방열로 제자리에서 열 손실없이 난방 하도록 활용한 초절전 난방기술!
- 2) 전기 압력밥솥과 같은 기존의 과학적 공학적원리를 새롭게 조합하여 비축열을 증가시킨 밀폐방식의 온수관난방
- 3) 여름철 냉방전력과 비슷한 겨울철 초절전 난방전력은 절체방식으로 사용하면 기본(한전)요금과 전력증설(변전시설)이 불필요한 경제적 절감 효과

2. 세계에서 제일 저렴하고 간편한 시설, 동파 없는 영구적 난방 시스템

과열방지 장치 없는 저온 난방은 고열에 의한 화재 위험을 없애고 전자파 차단효과를 가져온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중앙집중식 개별난방 시스템!

3. 보일러 시설이 없어 난방관리비가 불필요

대형건물에 강한 난방시스템 [기숙사, 연수원, 군경내무반, 실버타운, 호텔, 모텔, 콘도, 병원 등] 일정한 온도 유지로 쾌적하고 고장 없는 난방

- ※ 발열선의 고열 때문에 금속관만을 사용하면 Elec Heat Pipe를 비닐온수관에 적용하는 방법을 세계 최초로 발명 특허 획득!
- ※ 각실의 온돌배관 양단에 점검 Box를 설치 한 다음 열매수와 전열선을 삽입, 교체, 보충, 밀폐하는 작업을 쉽게하는 특허기술로 기존 사용중인 온돌배관을 재활용, 가구 이동 없이 당일 시공, 당일 난방이 가능한 세계최초의 발명 특허 시스템

◎ 세계 8개국「발명특허 획득」업체

◎ 「전기에너지 절약 부문」산업자원부장관상 수상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품」특허청

◎ 「신기술 개발 벤처 기업」중소기업청 인증

◎ 「ISO 9001:2000 인증」

◎ 「품질보증인증(Q마크)」업체

◎ 「전자파 환경인증서」산자부산하 전기제품안전진흥원 인증

◎ 「전기공사업등록」업체

※당사 초절전 온수관난방은 특허기술이므로 무단 사용시 특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본사를 사칭 또는 유사제품은 열선의 표면온도가 80℃를 초과하여 온돌비닐 파이프가 녹거나 타입니다.

참조 「전기설비 기술기준령 제255조 (전기온돌등의 전열장치의 시설)5항 발열선은 그 온도가 80℃를 넘지 않도록 시설할 것」

천열에너지(주)

Chunyul Energy Co., Ltd.

대표전화 02)928-1090

팩스번호 02)463-1041

본사공장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212-1
서울본부 서울시 광진구 노유1동 23-4 청진빌딩 305호
홈페이지 www.chunyul.co.kr
E-mail : 1010cy@korea.com

디지털 프론티어 = 삼성

건축사의 신용, 대출 전문가의 자존심을 약속합니다.

보험으로 쌓은 신뢰, 대출로 이어가겠습니다.

고객여러분의 소중한 희망을 위해
이젠, 보험뿐만 아니라 대출도 삼성생명과 상담해 주세요.

내일을 위한 희망설계 - 삼성생명 대출

삼성생명 대출 특선!!



신용대출 안내 (무담보 무보증 원칙)

대출자격: 건축사, 기술사, 감정평가사, 의사, 약사, 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및 교사, 기타 공무원

대출금액: 1천만원~1억 5천만원

예상금리: 연 6.4%~7.2%

기간: 1년~5년(수시상환, 연장,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가능)

대출기관: 삼성생명, 제1금융(은행), 제2금융(보험사, 금고 등)

- 창업자금 특별상당
- 담보대출: 최저금리, 설정비 면제
- APT 소유자, 구입예정자: 5.7%~6.0%(10년, 15년, 20년, 30년형)
- APT, 단독주택 등 주거용 전세자금이면 담보설정이 가능하고, 상가, 빌딩 등 임대보증금을 담보(질권설정)로 설정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 스피드 학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최고액 대출

최저의 금리

신속한 처리

상담문의

삼성생명 강남 AM
Seed Bank

Tel_ (02)545-8853~4

Fax_ (02)545-4939

HP_ 011-9738-0087

내일을 지키는 힘

SAMSUNG

LIFE INSURANCE

나의 '내일'은 '지금' 시작된다.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에서 건축가의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비전공자를 위한 건축설계 디자인 전공과정

2005학년도 전기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석사학위 과정

1. 모집인원 : 00명
2. 모집학과 및 전공 : 디자인 학과 15개 전공
디지털건축, 실내설계, 제품디자인, 운송·레저디자인, 세라믹디자인, 주얼리디자인,
의상디자인, 유리조형디자인, 시각디자인, 사진영상, 환경시설물디자인, 그라운드디자인,
패턴·모델리듬디자인, 가구디자인, 애니메이션
3. 수업 형태 : 야간 5학기 / 강의 수업 4학기 및 학위 논문(학위작품) 1학기
4. 지원 자격 : 국내외 정규 4년제 대학졸업자 및 2005년 2월 졸업예정자
: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전형방법 : 서류전형, 심층면접 및 포트폴리오 심사
: 당일 14:00부터 각 전공별로 실시
(심층면접시 포트폴리오 심사를 병행하므로
포트폴리오를 지참하고 심층면접에 응시할 것)

제출서류

1. 입학원서 (본원 소정양식) 1부
2.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3. 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1부
4. 사진 (4×5cm) 4매

전형일정

1. 원서교부 : 2004.11.01(월)~11.12(금) (국민대학교 정문 수위실)
2. 원서접수 : 2004.11.08(월)~11.12(금) (디자인대학원 교학팀 _국민대 조형관 1층 102호)
3. 전형일시 : 2004.11.20(토) 14:00부터 (입실완료 시간 엄수 _13:40까지)
4. 전형장소 : 고사 당일 디자인대학원 교학팀 게시판에 안내 (조형관)
5. 합격자 발표 : 2004.11.26(금) 이전 (<http://design.kookmin.ac.kr>에 공고)
6. 합격자 등록 기간 : 2004.11.29(월)~2004.12.03(금)
7. 전형료 : 60,000원 (원서대 무료)

전형요소별 배점 : 심층면접고사(50%) + 포트폴리오 심사(50%) = 합계(100%)

www.zeroonecenter.com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861-1 우_136-702

TEL_02.910.4327 (4413, 4583) FAX_02.910.4589

세계 최초·독자 모델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차기가 될 것입니다

미노타리식 입체주차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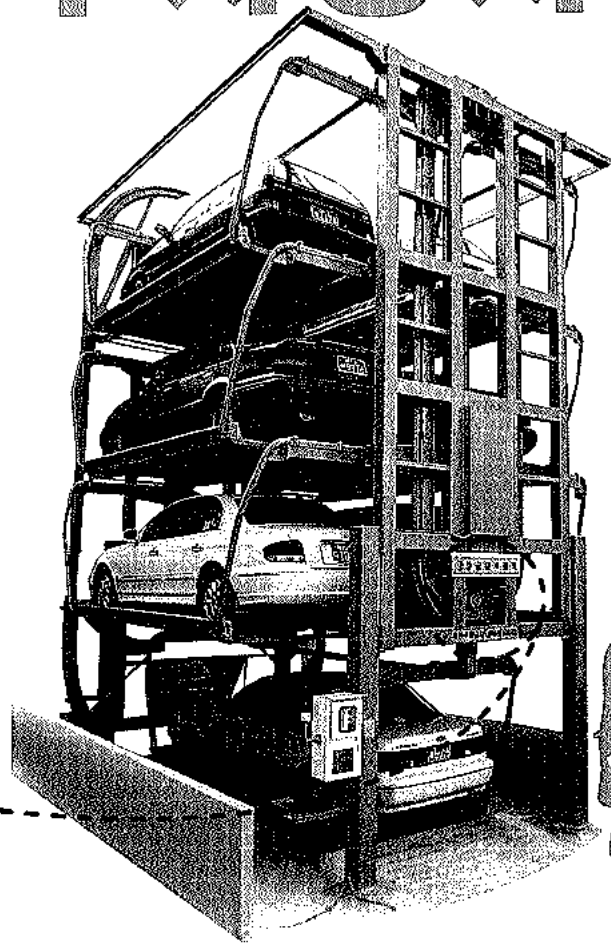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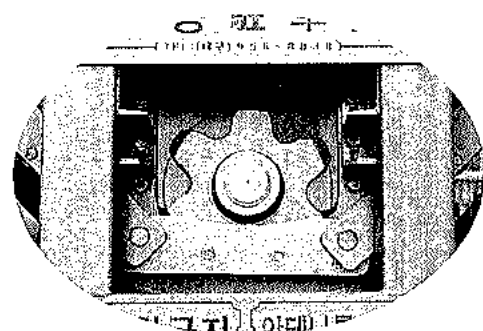


ISO 9001 인증업체

실용신안등록 제20-0190325호

실용신안등록 제20-0246310호

세계 최초의 특허방식인
메인체인 접속구동의 新 메커니즘



기술혁신이

품질향상과

가격혁명을

더 이상의
고품질은 없다!!

"세계최초의 주차기폭 4.57M를 실현 초슬림형"

자매품 Pit를 파지 않고 2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허품 2단주차기도 있음. (인정번호: 대구 제4-25호)

■이렇게타릅니다.

- 구동부가 간단하여 구동효율이 높아 성능은 향상 되고 소음, 진동은 대폭 줄였습니다.
- 정밀가공 및 JIG 이용 제작으로 완벽한 성능을 보장합니다.
- 도면, 사양 등 상세정보는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주차"를 입력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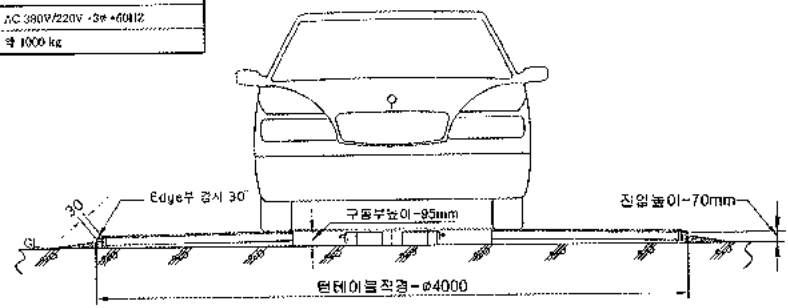
■사양 (뉴그린저금전입가능)

모델명	수용대수	주차기 폭(最小)	주차기 길이(最小)	소요높이(最小)
SKY PARK-5	5대	4570	6090	6830
SKY PARK-6	6대	4570	6090	7720
SKY PARK-7	7대	4570	6090	8600
SKY PARK-8	8대	4570	6090	9380
SKY PARK-9	9대	4570	6090	10390
SKY PARK-10	10대	4570	6090	11290
SKY PARK-11	11대	4570	6090	12170
SKY PARK-12	12대	4570	6090	13060

▼ 신제품 지상설치형 텐테이블 - 피트(pit)를 파지 않고 지상높이 70mm!

구분	명세
수용 차량	중·소형 승용차(무게 2000kg 이하)
구동방식	비전 구동식
구동모터	0.15KW x 4P x 3개
정격속도	약 1 RPM
조작 방법	PUSH BUTTON
전원 전압	AC 380V/220V - 3P + GND
차기 중량	약 1000 kg

실용신안등록 제0233726호



아주 특별한 주차기회사
(株)창공駐車産業
www.Juchagi.com

Since 1989

한글도메인: 주차

본사·공장: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하리 64번지

전국 대표전화 (상담, A/S) **1544-3335**

- E-mail: cgp210@kornet.net
- FAX: (054)973-0067
- 서울사무소: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467-29, FAX: (02)333-4442
- 부산사무소: (051)303-2296
- 광주연락소: (062)942-6923

「건축사」는 회원 여러분의 “터”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사」지는 회원 서로가 뉴스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회원의 작품과 관련된 소개는 물론 회원 활동과 건축계 주변의 소식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준공작품	최근 준공된 프로젝트 <슬라이드 필름 10컷 내외, 설계개요, 설계소요 (200자 원고지 3~4매), 기본 도면(배치, 단면, 평면)>
현상설계	최근 현상설계 경기에 응모하였거나 입상한 프로젝트 <투시도 또는 모형사진 2~3매, 주요도면 3~4매, 설계개요, 설계소요 (A4 1매 내외)>
계획작품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미준공 작품) <투시도 또는 모형사진 2~3매, 주요도면 3~4매, 설계개요, 설계소요 (A4 1매 내외)>
작품노트	준공, 계획, 미실현된 작품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을 선정, 작품과 관련된 뒷이야기를 수필형식으로 집필(A4 2~4매 내외, 관련사진, 도면, 스케치 등 제공)
기 타	건축여행, 세미나 참가, 기타 건축계 주변의 활동사항이나 알고 싶은 내용 등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보도자료 및 관련사진 1~2매(분량 제한 없음)>

원고 마감 : 매월 5일(수시 접수가능)

보내실 곳 : 서울시 서초구 서초 2동 1321-6

동아타워빌딩2층 대한건축사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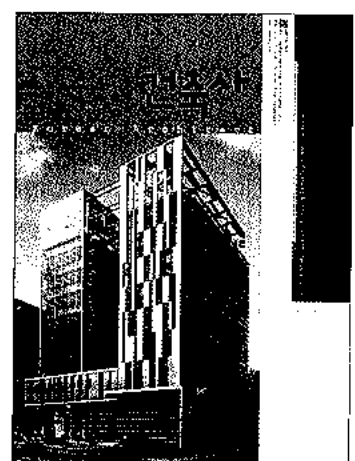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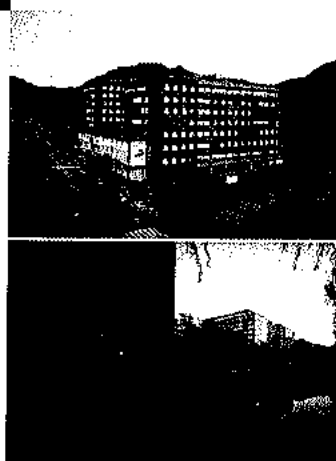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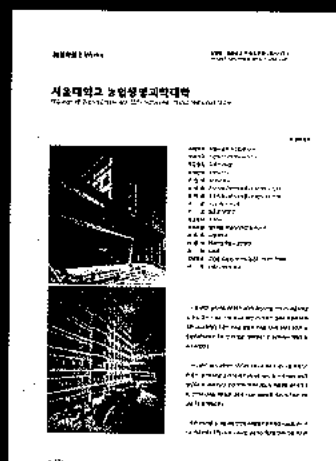
홍보편집팀

(우편번호 137-857)

문 의 : 「건축사」지 편집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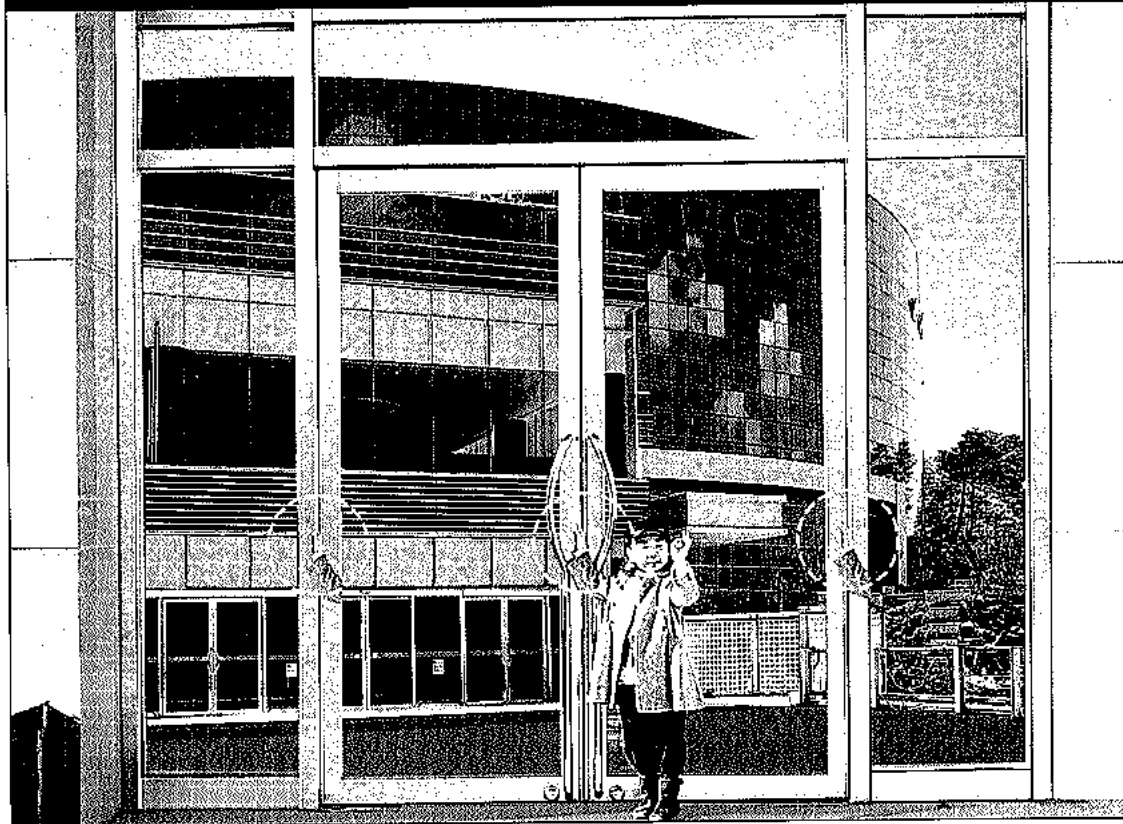
전화 02)581-5711~4

팩스 02)586-8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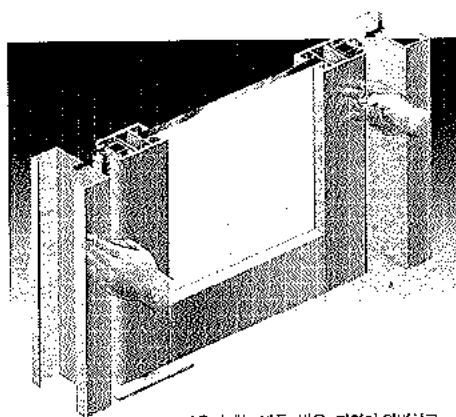


세이프강화도어

제조물 책임(PL)법에 의해 제작된 안전한 문. 세이프 강화도어! — 정우는 안전한 제품만을 생산합니다.



어린이 “손”을 보호하는 도어, 유리 “문” 파손방지 및 에너지 절약, 방음, 방풍이 완벽한 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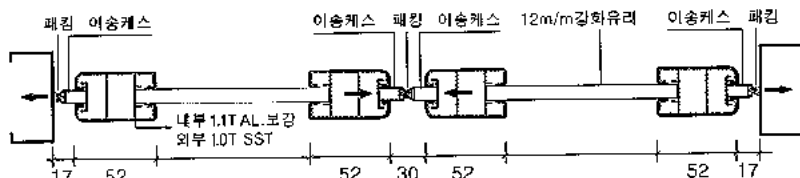


단면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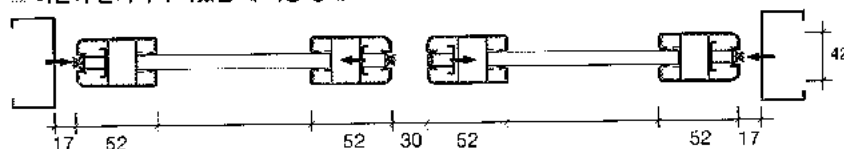
사용시에는 방풍, 방음, 단열이 완벽하고
손가락이 끼었을 시에는 이중케이스가 유연하게
작동하여 손가락을 보호하여 줍니다.



사용 상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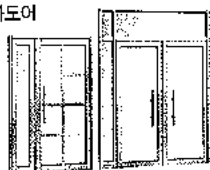
어린이 손가락이 끼었을 때 작동 상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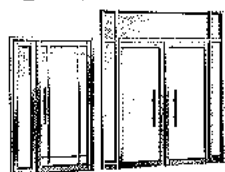
단가표: 한국물가 자료집 432p 참조 / 유통물가 자료집 387p 참조
공정출고가격: 900×2100mm 기본, 투명유리 ₩ 218,000(전국배달)

설치 장소 / • 오피스텔 • 공공건물 • 은행 • 아파트 • 학교 • 스포츠시설 건물 • 백화점(마트) • 병원 • 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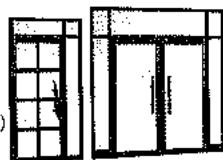
• 스텐세이프 강화도어



• 골드세이프 강화도어



• A.L. Color(플스크로팅)
세이프 강화도어



신자재 공모등록업체 인증 (현대건설 2003. 4)

어린이 “손” 안전과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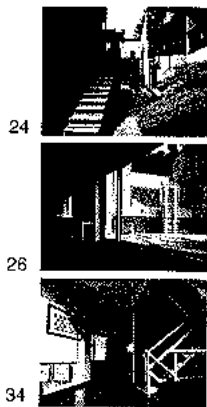
정 우 산 업

www.safedoor.co.kr

본 사 :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1234-77
전 화 : (053)325-9800/325-9801~2
FAX : (053)325-9802
E-mail: jungwoo9800@hanmail.net

벤처기업등록업체

Contents



24

26

34

건축사

korean archit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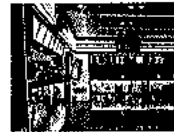
차례 2004 10 426호

인사말	협회 직무를 수감하면서	송수구	12
칼럼	대한건축사협회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	이종호	14
건축만평		유원재	17
회원작품	생각 속의 집	민규암	18
	선경재 (仙景齋)	곽재관	28
	씨네일레븐	이용선	36
	햇살담는 어린이집	이창훈 · 문 석 · 김영하	44
작품노트	안거당(安居堂)	정현식	48
건축기행	도강언(都江峴)에 올라 이빙(李氷)을 생각하다	허점도	52
기고	지방 분권화 시대 - 협회의 체제변화와 그 성장동력	김영수	56
	어떤 건축사가 될 것인가?	김문태	58
연구	건축계획을 위한 도시시스템의 이해	민창기	60
	리모델링을 위한 최신 지반보강 및 철거구조물 복원공법	고효석	62
연재	네덜란드의 근대집합주택 - 04	최재석	65
건축마당	협회소식		72
	건축계소식		74
	현상설계		76
	해외잡지동향		80

발행인 송수구
편집기획 김신양, 정임순, 김승복, 박광순, 손기찬, 오성훈,
윤서덕, 이관직, 이재갑, 이종호, 주수민
발행지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4 동아타운빌딩 2층
우편번호 137-837
전화 대표 02-681-5711~4
팩시밀리 02-686-6823
인터넷 http://www.kra.or.kr
E-mail korea@kra.or.kr
연계인 김준식 / 제이아트 02-269-7619
광고문의 송노련친담



35



42



45

korean architect

Vol. 426

October 2004

Inaugural Address

Upon Acceptance of My Duties as the KIRA Song Swoo-Kee 12

Column

Th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cannot be stayed and Lee Jong-Ho 14

Cartoon

Yoo Won-Jai 17

Works

House of the Mind Min Q-M 18

Seon Gyeong-Jai Kwak Jae-Kwan 28

CINE 11 Lee Yong-Sun 36

Sunbeams Kindergarten Lee Chang-Hoon, Moon Seok-Kim Young-Ha 44

Design note

An-goo-dang Jeong Hyun-Sik 48

Architecture Travel

Think of Lee Being climbing up Kang Won Heo Jeong-Do 52

Feature

The era of decentralization - the change of our association and its growth power Kim Young-Soo 56

What kind of architect will you be? Kim Woon-Tae 58

Study

An Understanding of Urban System and Architectural Plan Min Chang-Kee 60

The role of the architectural construction reinforcement and a subsistence structure for remodeling Go Hyo-Suk 62

Serial

Choi Jae-Suk 65

Architect's Plaza

72

74

78

102

Publisher Song Swoo-Kee
Assistant Editor Kim Sung-Yong, Chang Yang-Soo, Kim Jong-Bok,
Park Yung-Soon, Son Ki-Chang, Oh Seon-Hoon,
Yoon Si-Deok, Lee Kwam-Dick, Lee Jae-Rim,
Lee Jong-Ho, Jugh Soc-Ile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321-6 Seocho-2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857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Printer Kim Jung-Sik (J-art)

협회 직무를 수임하면서

Upon Acceptance of My Duties at the KIRA

오곡백과의 결실이 풍요로운 이번 가을의 의미와 느낌이 유다르게 음미되면서 넉넉함 속에 아쉬움과 공활함에서도 답답함은 사들여 가는 낙엽의 아련함입니다.

은통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에 우리 회원들 또한 예외 없는 곤혹스러움 속에서 지난 임시총회는 영원히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사안으로 접어두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마음 편치 않고 모두가 패자로만 보여지는 오늘의 이 상황에 대하여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여러 회원님에게 죄송스러움 금할 길 없으며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단순하면서도 복잡다난 하였던 사안을 풀어야했기에 짧은 기간의 정기총회를 앞두고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보여주신 대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냉철한 모습은 협회 발전의 초석으로 길이 기억 될 것이며, 그동안 협회를 사랑하고 걱정하시는 일념 하에 많은 선후배 회원 여러분의 총정여린 신고의 가르침과 격려와 위로는 짧은 기간이나마 직무수행 과정에서 길이 기억되고 심시숙고 할 것을 약속드리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제안과 방향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내일의 협회를 이끌어갈 발전의 동력이 무엇이고, 새로운 복지를 창출해 나갈 이론과 규범이 무엇인지 조차 혼돈스럽고 불확실한 지금의 상황은 걱정을 넘어 불안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8,000여 회원의 단합된 사명감과 협회 사랑의 힘은 위기가 기회임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다시 한번의 탈바꿈을 다짐하여 봅니다.

지금 우리는 대전환의 역사적 분기점에 서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회원의 사기와 활력이 사라지고 무기력한 협회로 전락하여 영원히 되돌아 올 수 없는 나락의 구렁이로 빠지지 않으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협회가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며 냉소와 불신감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다면 우리 회원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사안이기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눈앞에 가려진 일 보다는 거시적 안목으로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현실감 속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대화합의 장을 만들어 가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돌아오는 정기총회까지의 짧은 기간이지만 정중동의 모습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안정된 협회와 생명력 있는 집행부의 올바른 자세로 업무수행에 임함으로써 차기 집행부에 누가 되지 않도록 협회의 밝은 내일을 위해 나아갈 길을 보이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는 속죄양의 자세로 이루어진 사안을 재정리 정돈하여 다가오는 총회에 여러분의 찬사를 받고자 다짐을 하면서 말 보다는 실천하는 미덕으로 必死即生이며 必生則死라는 난중일기의 한구절을 음미하면서 산적한 수많은 사안을 열거하기보다는 마음을 비운 자세에서 과욕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협회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협회를 진심으로 아끼시는 8,000여 회원 여러분 !

여러분의 협회를 위한 마음과 함께 우리의 자긍심을 되살리기 위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속에 협회는 우리가 바라는 바 뜻을 이룰 것으로 시료되며, 저희 집행부는 여러분의 뜻에 따라 협회 발전의 전략적 과제를 이루어 내는데 앞장서겠다는 각오와 새로운 다짐으로 일로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려움 속에 희망이 더욱 소중하다는 뜻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협회의 새로운 업무에 임하는 인사를 드리면서 회원 여러분의 가내 행운과 무궁한 안녕을 기원합니다. 囍

대한건축사협회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

Th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cannot be stayed on as it is

건축사법에 의하여 특수법인으로 설립한 우리 대한건축사협회(이하 “우리 협회”라 한다)가 40년 역사상 어쩌면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월 26일 제38회 정기총회 이후 임원선출에 대한 감사의 문제 제기로 비화된 일련의 사태가 급기야 7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이사 7인과 감사 1인의 직무집행정지’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10월 1일 긴급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이세훈 회장이 불신임되고 이영복 감사가 자진 사퇴했다. 그동안의 전말에 대해서는 서울건축사신문, 부산건축사신문 등에서 수차례 언급된 바 있어 웬만큼 회원들께서도 숙지하고 있을 것이다.

날씨마저 잔뜩 흐린 임시총회날 회의장 분위기는 자못 비장하고 무거웠다. 그런데 의장석에 올라선 이세훈 회장이 법률자문 변호사 2인을 회의장에 참석시킬 것을 제의하면서 다수 대의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왔고, 나중에는 부의안건 순서부터 완전히 뒤바뀌야 했다.

그리고 ‘회장 신임여부에 관한 건’을 상정하면서도 의장역할을 고수하려는 이회장과 임시의장을 내세우려는 대의원들 간에 팽팽한 공방이 벌어진 끝에 대의원들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또한 회장 신임에 관하여는 정관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회장 불신임 건’으로 수정 결의한 다음 무기명 비밀투표에 붙인 결과 재적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임기 5개월을 남겨둔 상태에서 이세훈 회장이 퇴진하게 된 것이다. 참으로 불행하고 안타까운 노릇이 아닐 수 없다.

‘事必歸正, 死則生, 生則死, 小貪大失’ 이런 글귀들이 언뜻언뜻 머리를 스친다. 이회장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개인적 불행이 우리 협회가 제도적으로 한층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아야 할 것 같다.

실제 대부분의 회원들은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우리 협회가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환골탈태(換骨奪胎),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삼아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선 차분한 마음으로 숨고르기를 하면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심기일전하여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새겨둘 필요가 있다.

첫째, 협회 정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례나 관행이 우리의 헌법적인 정관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정관이 바뀔 수

있고 또 절차에 따라 바꾸면 된다. 그렇지만 일단 만들어진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둘째, 협회 내의 일은 협회 내에서 우리들 스스로 해결하자.

아무리 좋은 명분과 목적을 갖고 시작한 일이라도 우리 스스로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일을 외부의 힘을 빌어 해결하려는 것은 온당치 않다. 우리 협회 그리고 건축사들이 그렇게 나약하지 않다.

셋째, 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이나 고문, 사무직원 그리고 시·도 건축사회장이나 대의원들은 회원 모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봉사하는 자세로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경우 그 보다는 명예욕이나 감투욕에 사로잡혀 일반회원들은 안중에도 없고, 때로는 군림하려 드는 잘못된 자세를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구태의연하고 안일한 모습으로 일관하는 지도자에게 회원들은 등을 돌리게 마련이다.

넷째, 일반 회원들도 협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우리는 흔히 협회 발전을 위하여 누군가 희생해야 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나'가 되면 안 되겠는가? 크든 작든 간에 우리 모두가 스스로 봉사와 희생을 할 각오가 되어 있고 실제 행동으로 실천할 때만이 협회의 발전이 가능한 것이다. 사실상 협회가 곧 나 또는 우리 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하는 일이 된다. 우선 관심부터 가져보자. 특히 회원 20명을 대표하는 대의원의 경우는 본 협회 최고 의결기관의 일원으로 책임이 막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참여도와 역할을 제대로 못해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와 같은 불상사를 자초했던 것이다. 스스로 깊이 반성할 일이다. 무관심과 방임주의가 우리 협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임을 명심하자.

다섯째, 말보다는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말은 무성한데 내용이 없고 더욱이 앞장서서 실천하려는 자세가 부족한 것이 솔직한 우리들 모습이다. 자기과시적인 화려한 말잔치나 소영웅주의는 결코 협회발전에 도움이 될 수 없다. 또한 뒤에서 불만을 일삼고 남을 비방하거나 트집을 잡는 행위도 사라져야 한다. 묵묵히 자기 역할을 다하는 다수의 회원들이 아직은 많아 그나마 희망적이다.

여섯째, 개인적인 정리(淸理)나 학연·지연 등에 얽매이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

지금까지 이러한 관행이 협회를 명틀게 했고 대다수 회원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된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시대가 바뀌면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단결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사분오열된 모습으로는 아무 것도 기대할 수 없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우리 협회가 기사화생하여 새롭게 거듭날 수 있으려면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뭉치는 수밖에 없다.

새롭게 힘차게! 도약하자!

무한경쟁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냉엄한 세계화시대에 더 이상은 내부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을 수 없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도 안 된다. 무엇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그리고 실천으로 옮겨보자.

그리고 회원들의 단합된 모습으로 '21세기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대한건축사회'가 건재하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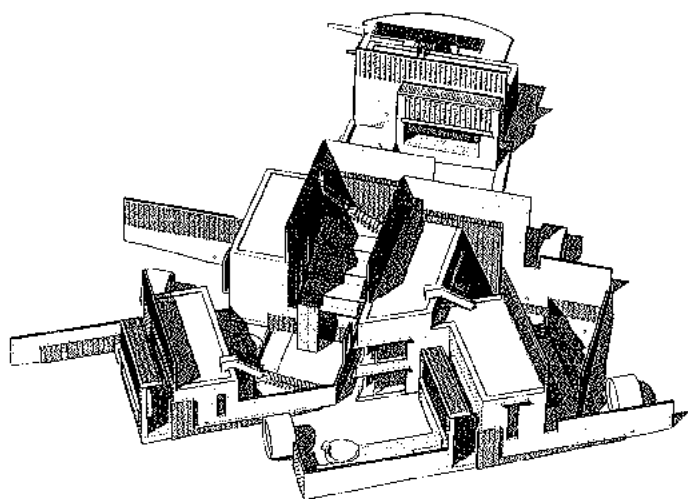
끝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는 못하고 물러났지만 투명하고 열린 협회를 지향하려 했던 이세훈 회장, 원리원칙을 고수하려 했던 이영복 감사 두 분의 협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을 줄 믿는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송수구 회장대행을 비롯한 임원들은 그 어느 때 보다 권한보다는 책임이 클 수밖에 없다. 잔여임기를 채운다는 생각보다는 비상한 각오로 현안 문제 해결은 물론, 협회가 위기에서 벗어나 새롭게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틀이나마 만들어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 

생각 속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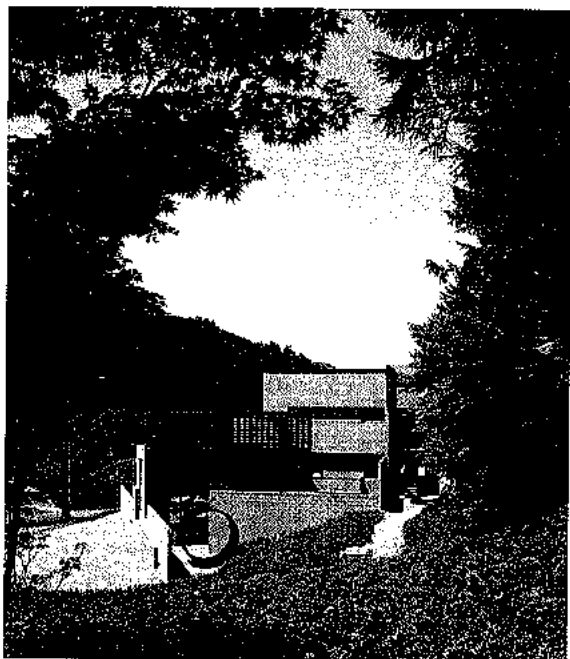
House of the Mind

●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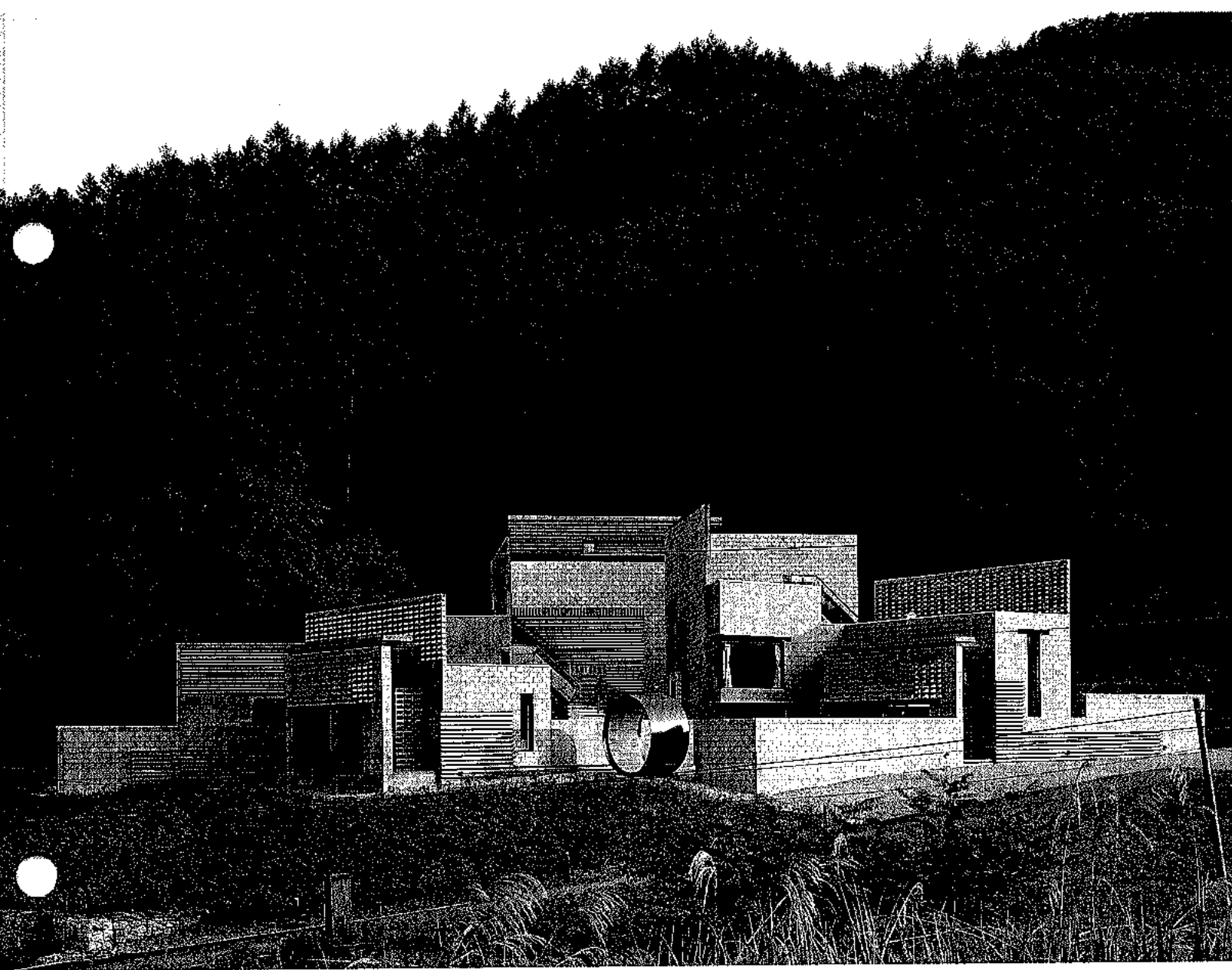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부안리 32번지
지역지구	준농림지역
용도	전원주택
대지면적	883㎡
건축면적	274.41㎡
연면적	386.47㎡
건폐율	31.03%
용적률	43.77%
규모	지상 1층(2동), 지상 2층(2동)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4대
내부마감	바닥 우드플로어링, 벽·석고보드위 벽지, 천장·석고 보드위 페인트
외부마감	콘크리트 블록 치장쌓기
인테리어	토마건축
시공	건축주 직영
감리	토마건축
설계담당	장관석, 남기성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생각 속의 집'은 펜션으로서 4개의 건물이 하나가 되어 산 위에 살포시 앉아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사용자의 성격 및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나누어진 4개의 건물은 독립적인 내부 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본적으로 서로의 영역을 지켜 주고 있다. 남쪽을 바라보고 각기 다른 방향으로 앉혀진 정방형 건물들의 모든 기본구조는 건축주 가족이 거주하는 본체를 중심으로 후정 그리고 연못, '대청마루'를 상징하는 나무 바닥 등을 공통적인 요소로 구성했다. 특히 펜션이라는 용도에 맞게 모두 다른 사용자의 성격을 고려하여 마주치지 않는 동선과 독립적인 프라이빗을 제공하도록 계획되었다. 건물의 입면을 따라 강조된 검은 철구조물은 견고함을 표현하며 건물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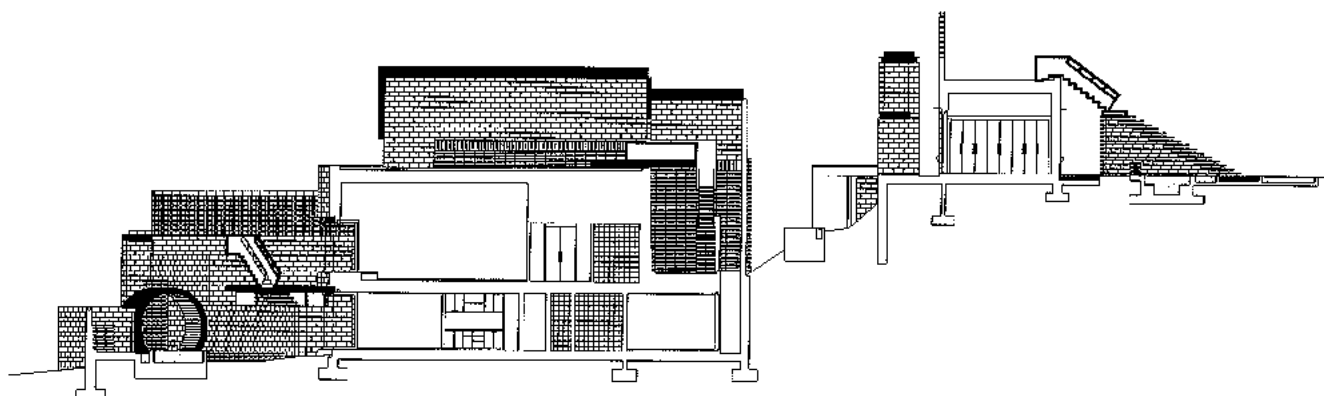
안정감을 부여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쌓은 콘크리트 블록은 건물의 선과 면을 강조했고, 이에 덧붙여 태양광에 의한 콘크리트 블록의 깊은 요철이 만들어 내는 그림자의 음영이 건물에 또 다른 잔상을 만들어 낸다.

2개의 매스가 비스듬하게 연결되어 대지의 중앙에 위치한 2층 구조의 본체는 입면의 모서리가 강조되어 날카로운 인상을 주면서도 나머지 건물들의 위치와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서쪽 하단에 위치한 건물은 콘크리트 블록이 건물과

미당 전체를 어우르고 있다. 앞뒤가 모두 통유리로 마감된 건물은 소유하고 있는 자연에 해당되는 뜰채와 순수한 자연에 해당되는 외부전경을 하나로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대지의 중간지락에 위치한 또 다른 건물은 등에 업고 있는 산의 지형을 고스란히 반영하여 높은 천장고의 2층 구조로 1층에는 공동생활공간을, 2층에는 발코니와 이어지는 침실을 계획하였다. 마지막으로 산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곳에 동떨어져 위치한 건물의 후정에는 계곡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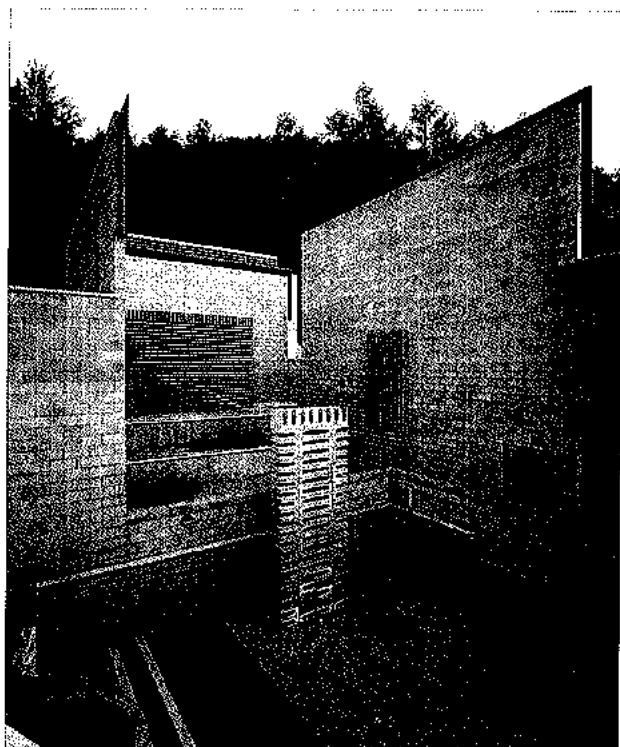
을 고스란히 수용하는 연못과 그 안에 노천탕을 설치하였다.

계획 초기단계부터 이 독립적인 4개의 건물을 하나로 묶어주는 요소들이 필요했다. U형블록의 다양한 시도 끝에 설치된 각 건물 옥상으로 이어지는 계단은 건물이 갖는 땅과 하늘의 이분법을 벗어나 하늘과 맞닿는 여러 길을 제시하여 자연과의 대화를 시도했다. 또한 건물과 건물사이 적절한 위치에 설치된 원형조형물들은 강한 느낌의 시각적 초점들을 형성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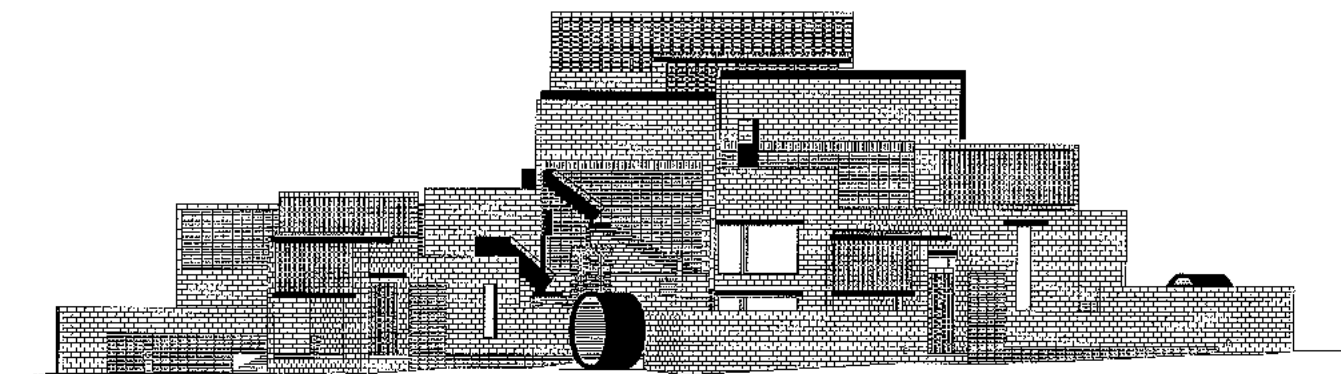


0 1 3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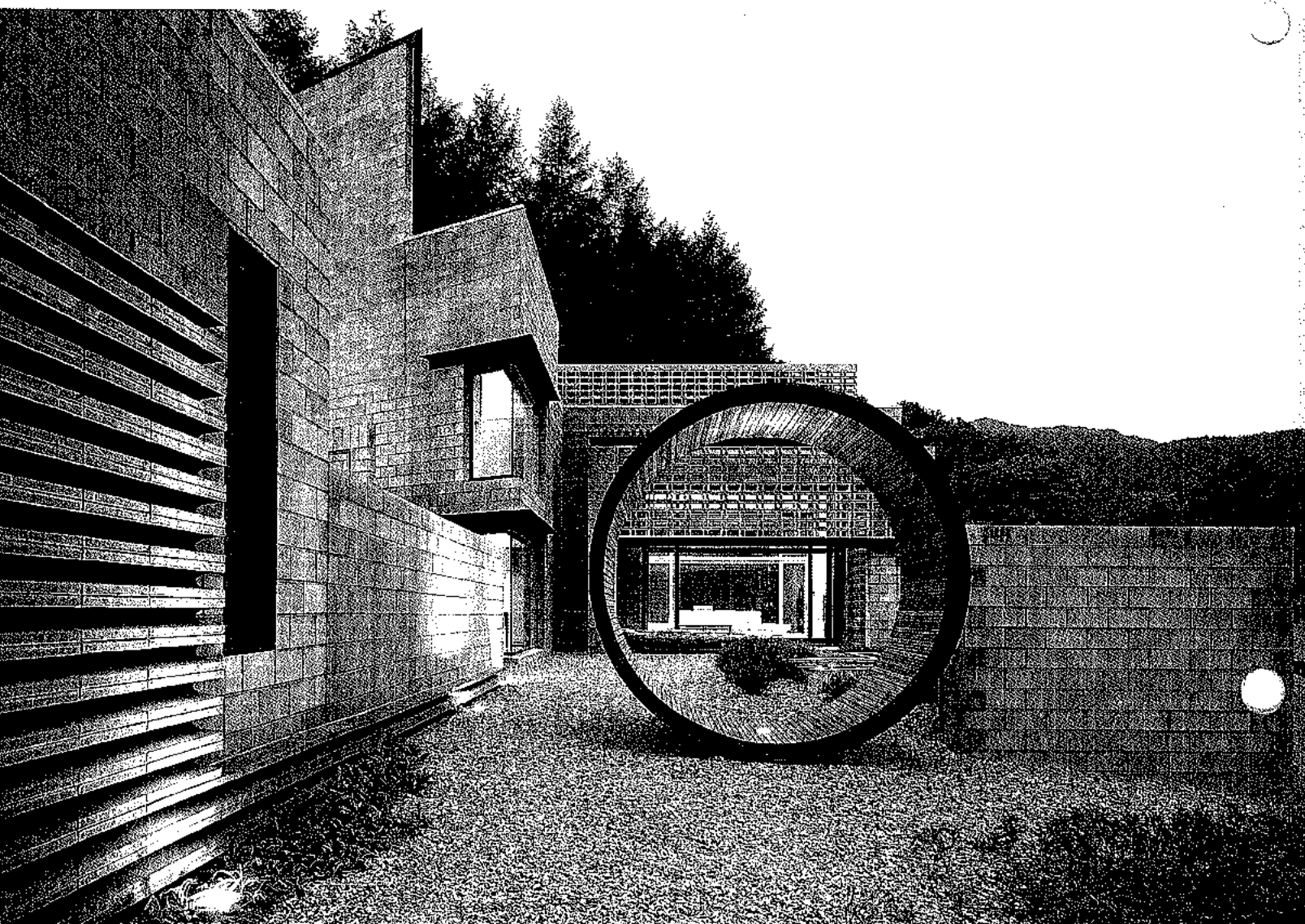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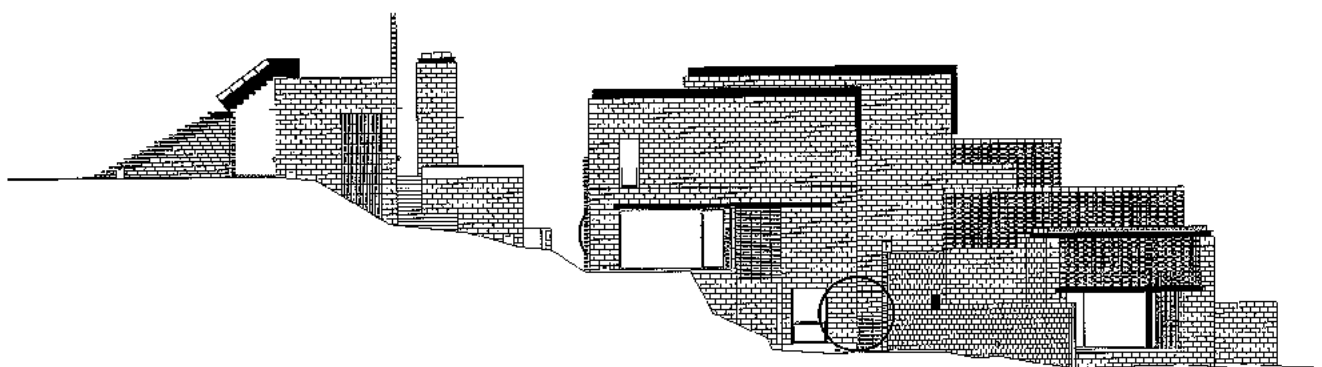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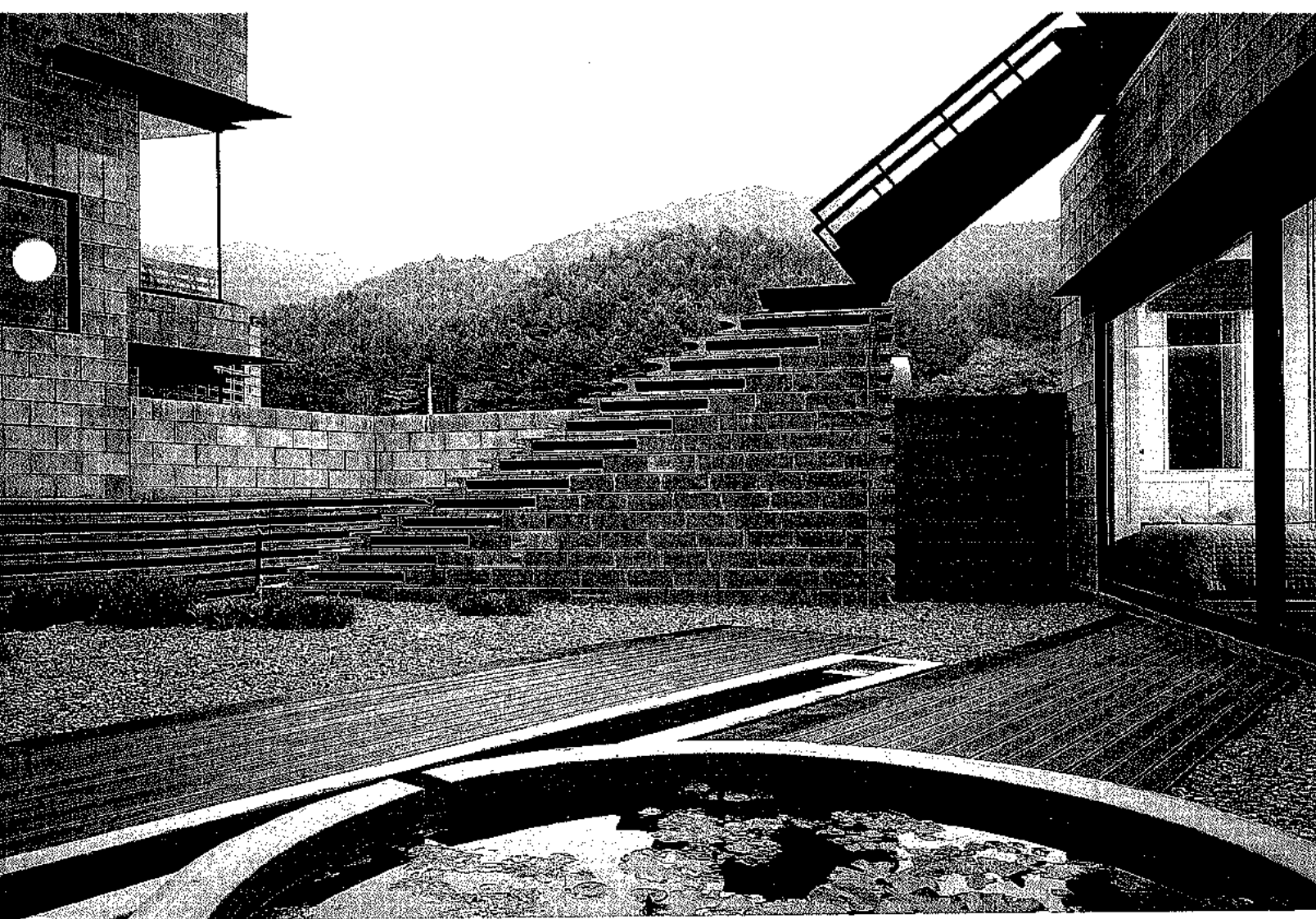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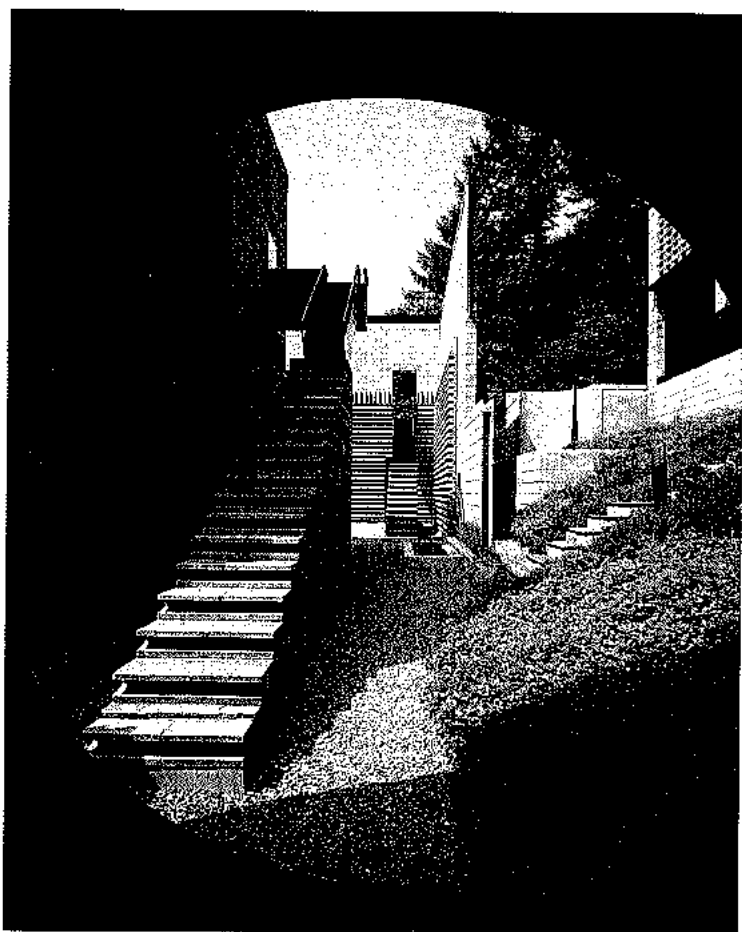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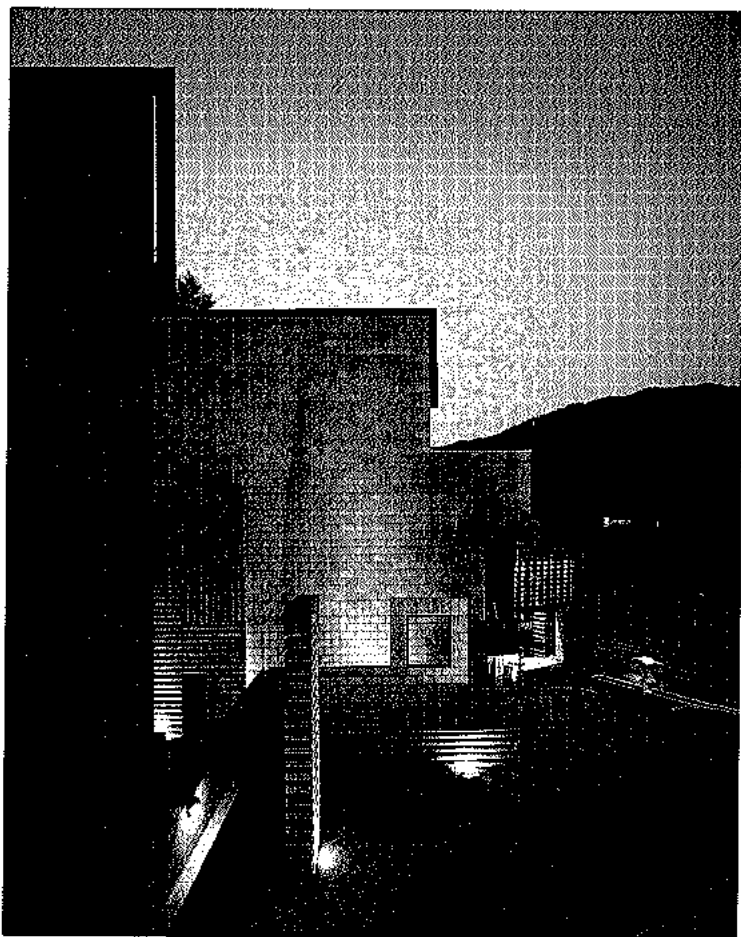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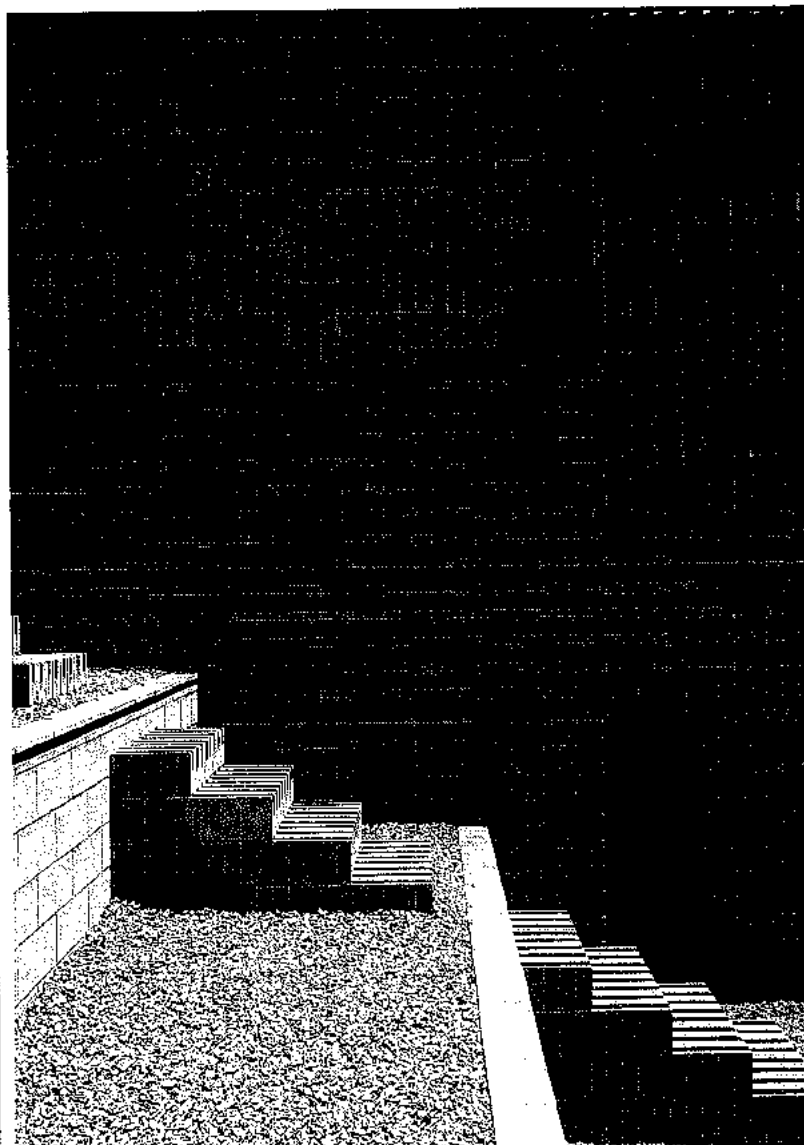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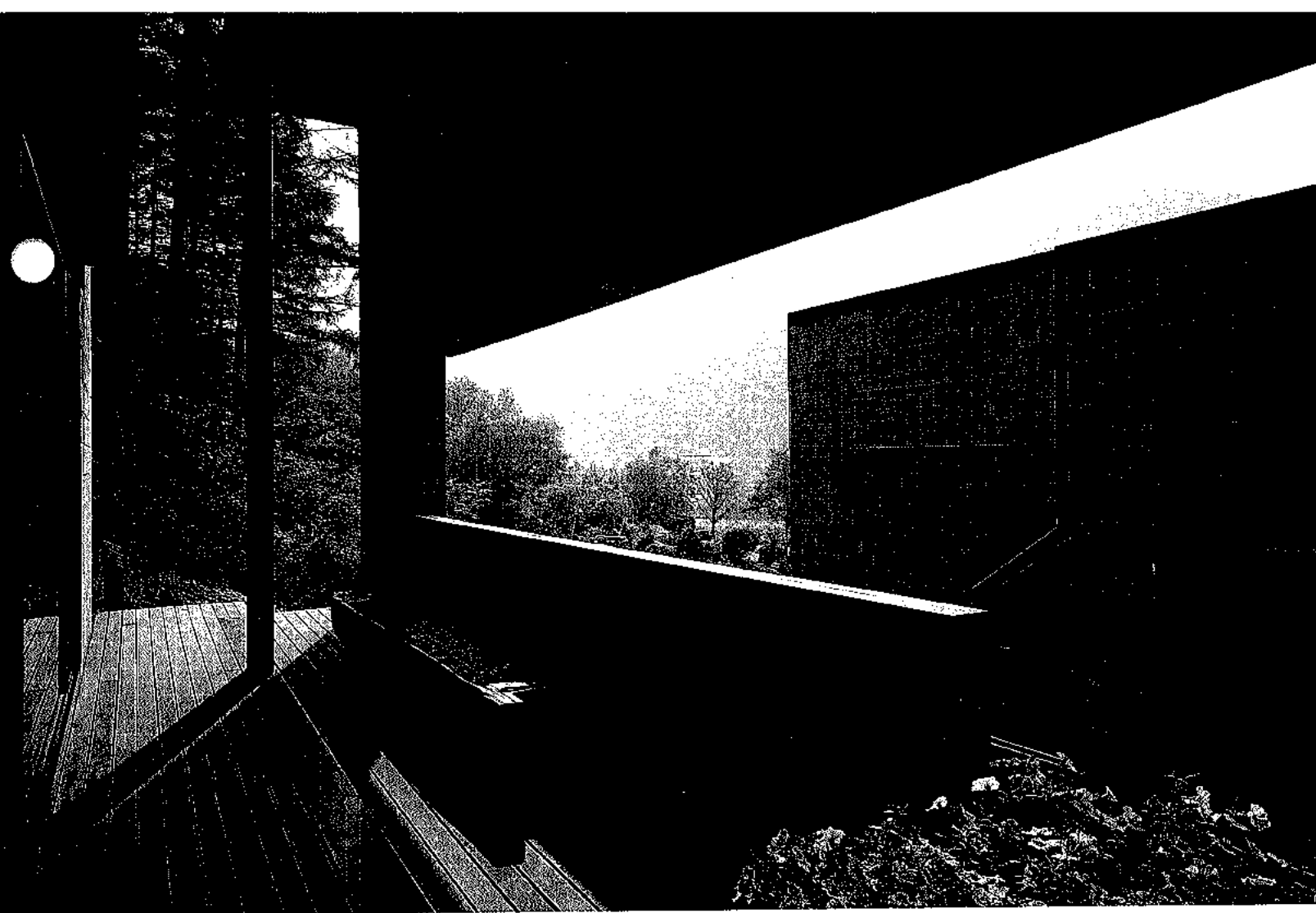
남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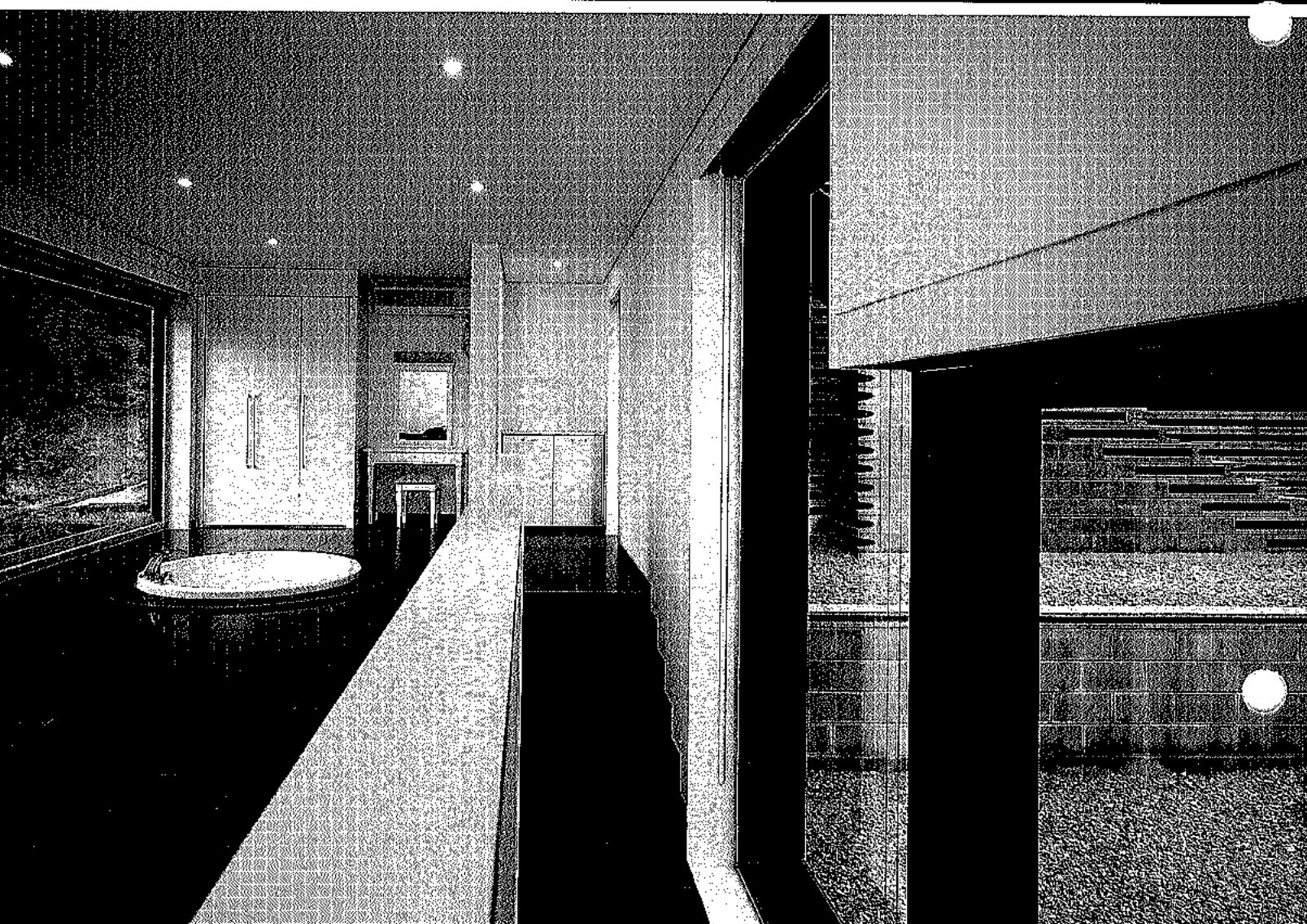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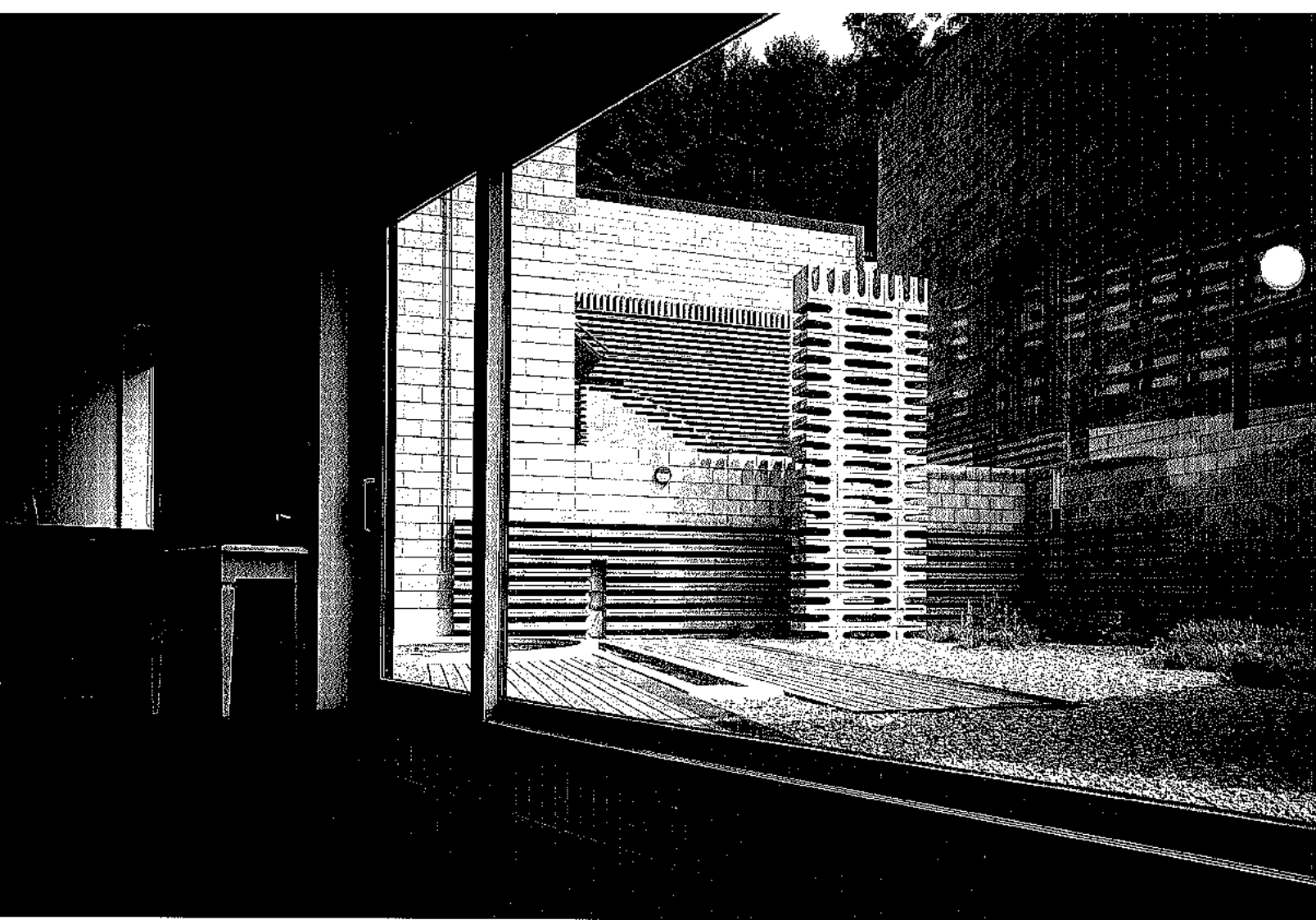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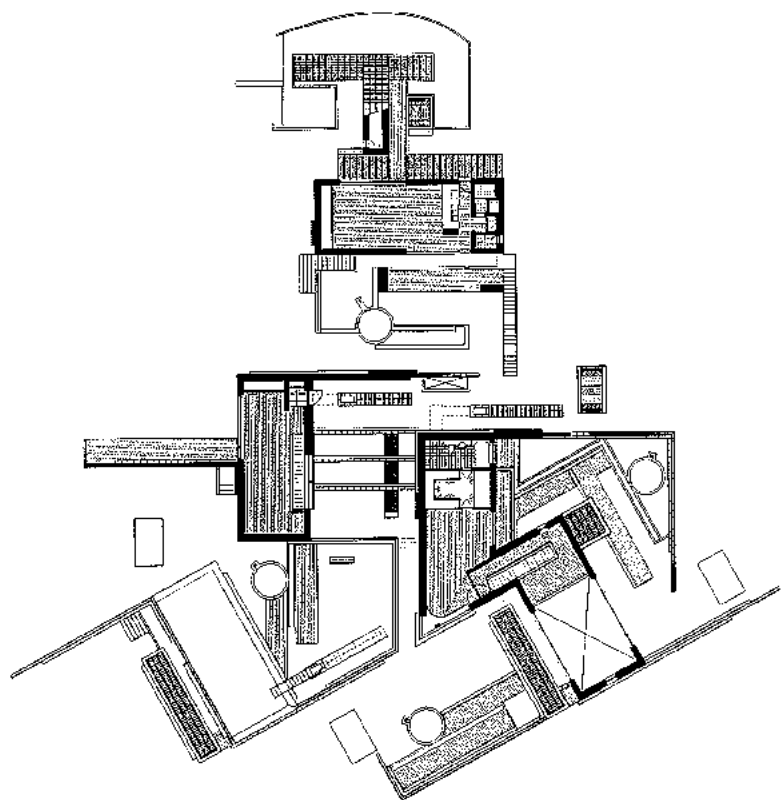


서쪽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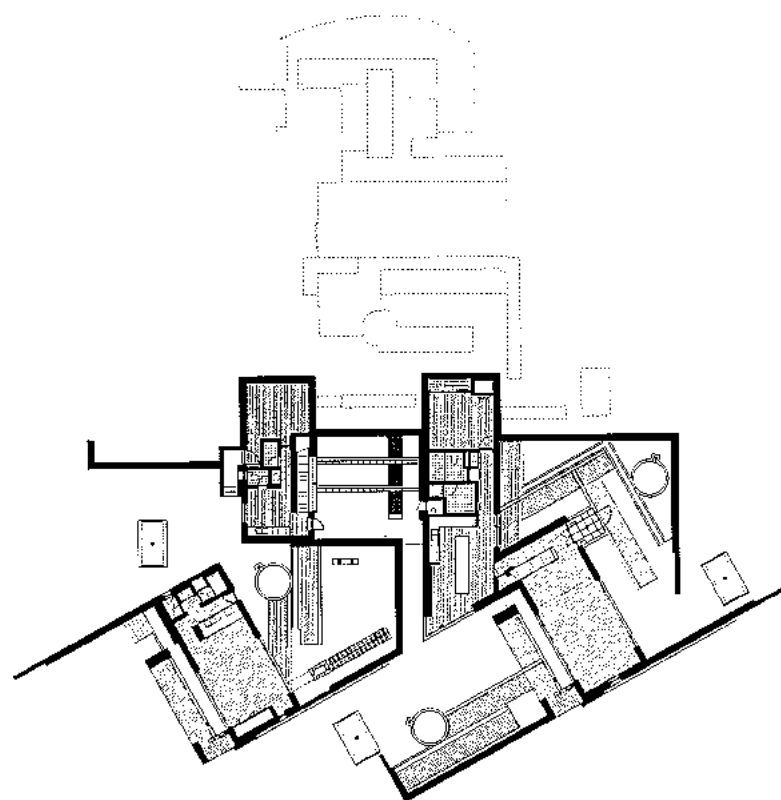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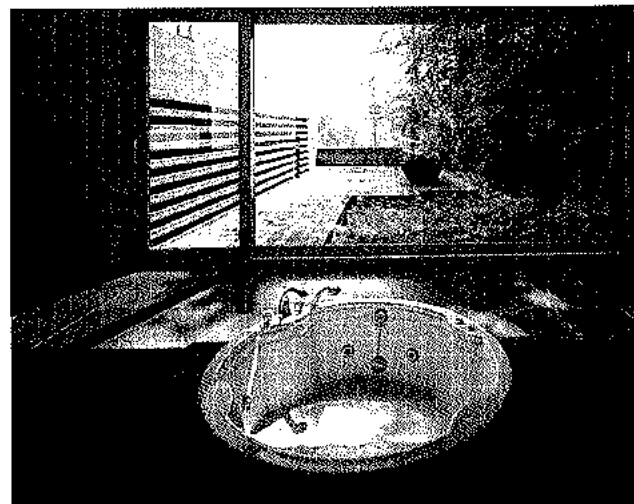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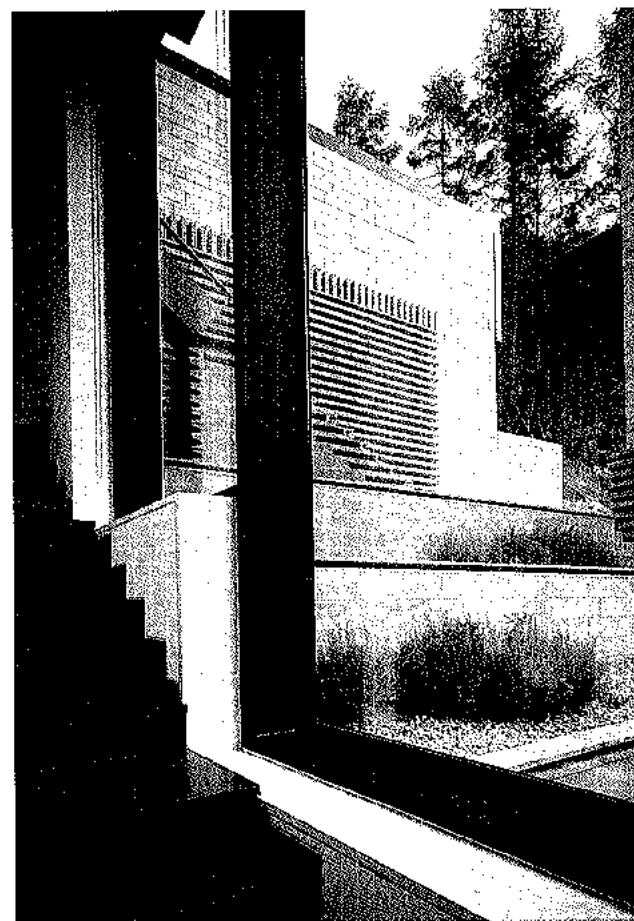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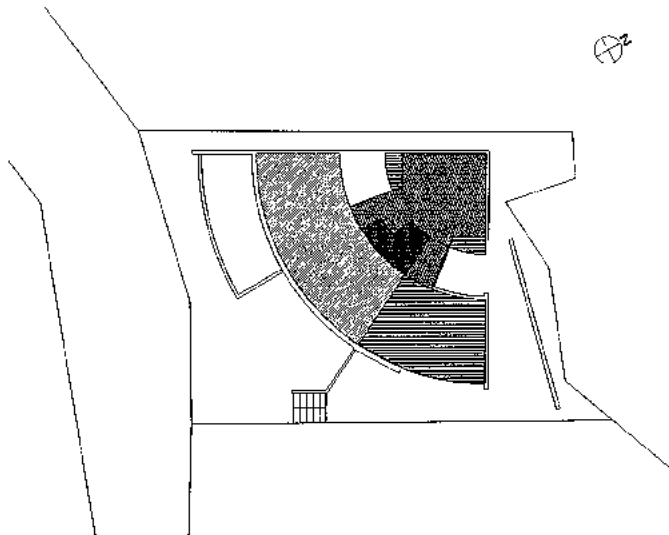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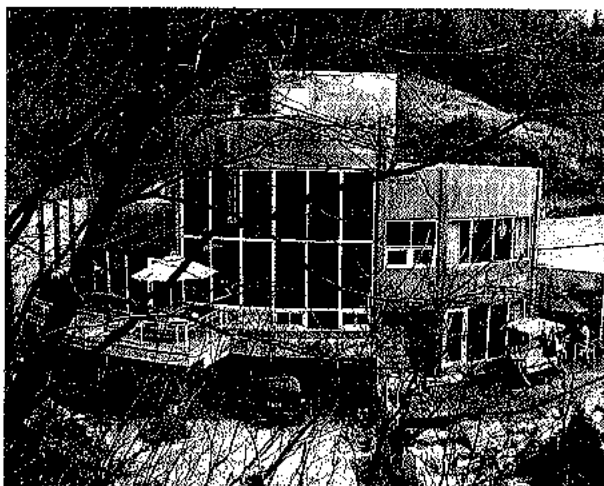
선경재 (仙景齋) Seon Gyeong Jai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광주시 실촌면 열미리 66-4
 지역지구 준농림지역
 대지면적 240.0㎡
 건축면적 89.03㎡
 연 면 적 181.85㎡
 건 폐 율 37.10%
 용 적 륜 2.40%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시멘트물활벽칠 및 노출콘크리트
 설계담당 이상근, 김상언
 구조설계 이시혁 (성광구조)
 시 공 김이택 (주)화현
 사 진 건축사사무소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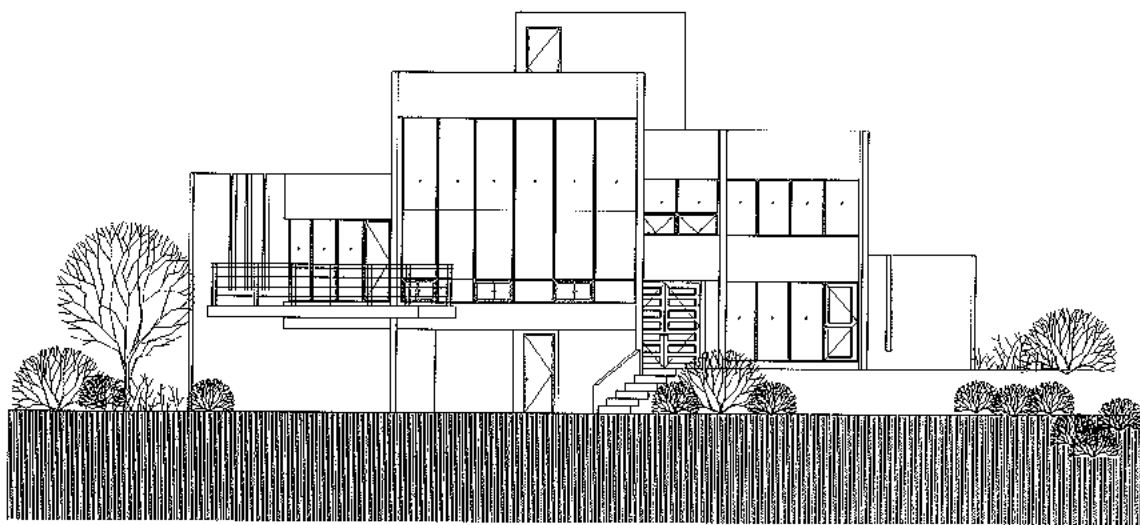
시골 전원의 풍경은 어느 것이든 정겹고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다.

플 한포기, 돌맹이 하나, 아무렇게나 버려진 폐가의 흔적조차도 눈과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는다. 조용하고 한가로운 이러한 전원 속에 새로이 정겹게 자리 잡을 주택을 설계한다는 것은 건축사로서는 참으로 설레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건축주에게 설계를 의뢰받고 처음 현장을 찾았을 때,

필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약 75평 정도의 대지로 오랜 세월을 겹겹이 지고 있는 작은 폐가와 그가 안고 있는 허리춤까지 닿는 무성한 잡풀들로 가득 찬 작은 마당이었다.

전원주택지로서는 다소 작은 땅으로 남쪽의 전원이 반쯤은





정면도

산으로 가려져 있어, 시원스럽게 탁 트인 경관을 갖는 대지는 아니다. 다행스럽게도, 산 밑으로 작은 계곡이 흐르고 있고, 주변 대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다.(후에 200평 정도의 전면 공지를 확보 하였지만...)

1/4 원형모양을 건물 평면의 기본으로 하고, 연속된 가벽으로 절반은 닫힌 외부 공간을 구성하여 전체적으로는 부채꼴의 형태를 갖는다. 전면의 폭 2.7m의 넓은 발코니와 오른쪽 가벽 사이의 외부 공간은 적극적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공간이 된다.

또한, 대지가 2단으로 조성되어 지하 전면 전체를 피로티 형식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1층에는 개인작업실을, 반 층 올라가(2층을 높게 Void한) 거실 그리고 흙바와 주방을 배치하고, 또 반 층씩 올라간 2층에 각각 침실공간들을 구성하였다. 전체적으로 계단실을 중심으로 각 공간들이 서로 반 층씩 차이 나며 엇갈림으로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

주위의 멀고 가까운 아름다운 전경을 주택 내부로 모두 끌어들이고 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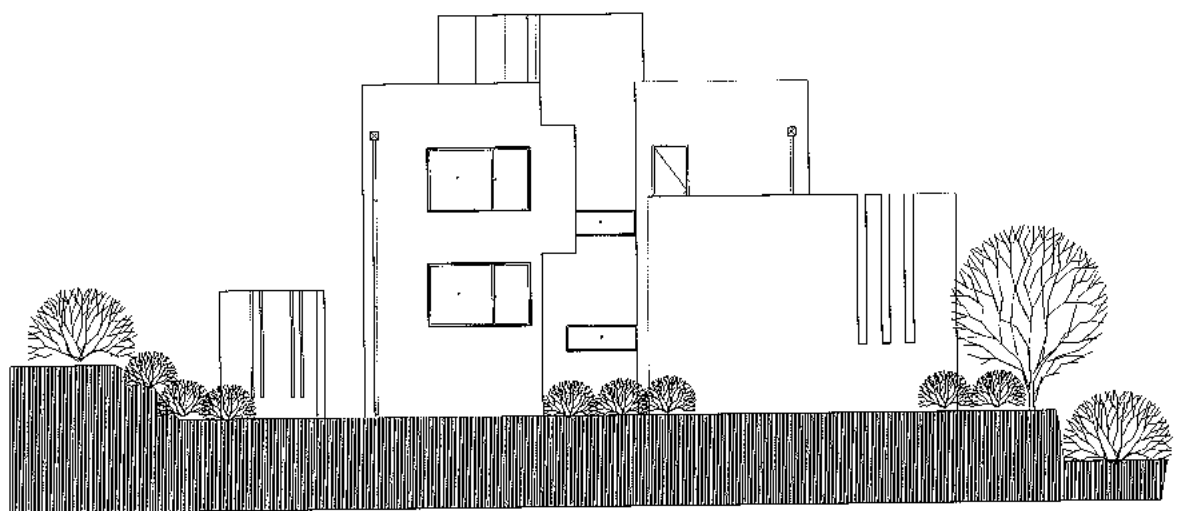
2개층 높이의 거실부분은 전면 모두 유리창의 캔버스로... 바로 앞에 펼쳐진 산의 근경을 건물 내부로 최대한 끌어들이 볼,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창밖의 풍경을 상상하여 그리고 후면과 측면의 근, 원경들을 적당히 프레임 하여 또다른 고정창 안에 가두어두었다.

항상 그렇듯, 작업 후 곳곳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은 여전히 남는다.

절대주의 공간으로 대표되는 직각 육면체의 공간 형태를 벗어나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곡선을 적용, 부채꼴 모양의 평면을 도입하여 조금은 실험적인 공간 구성과 형태를 갖는 이번 설계 작업은, 건축에 대한 집주인의 이해와 건축사에 대한 신뢰로 편안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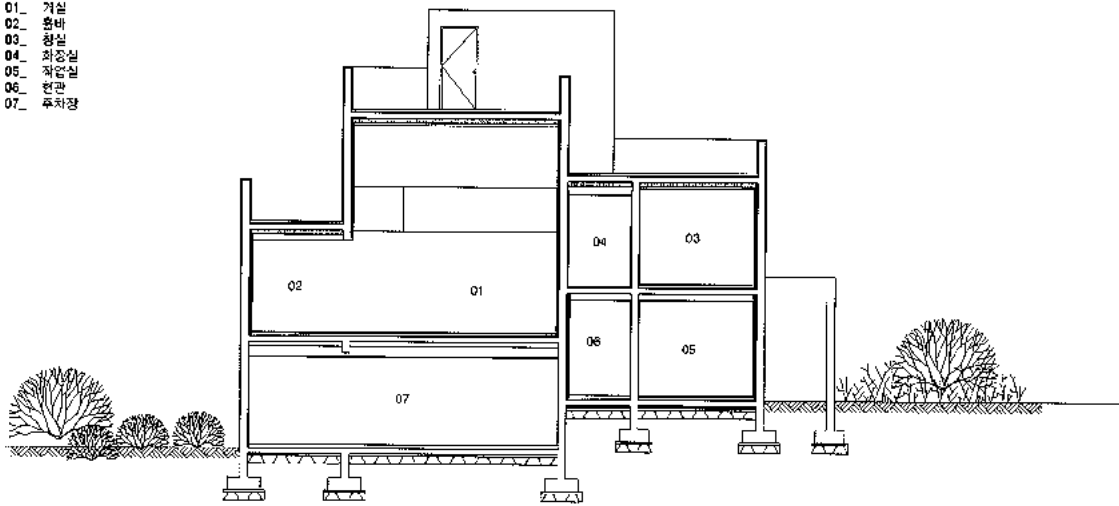
외적 충실함보다는 건축주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대지와 주의 환경 그리고 형태와 공간이라는 프로그램에 융화시키는 것이 설계자의 몫이 아닐까 하는생각을 덧붙이며...

그림을 그리는 집주인의 조형적인 안목이 훗날 주택 주위의 모든 여백을 훌륭히 채워 줄 것을 기대한다.(글/곽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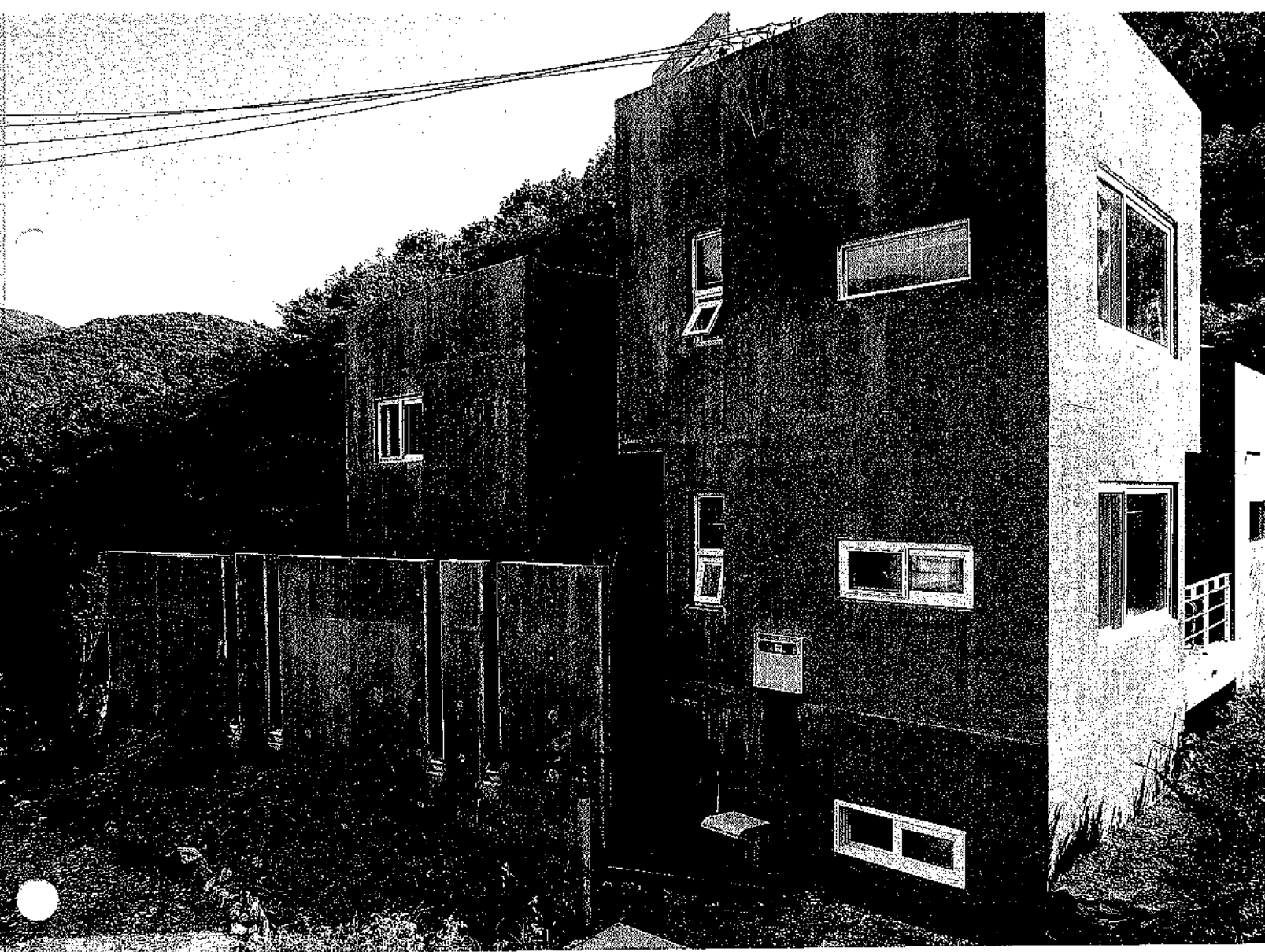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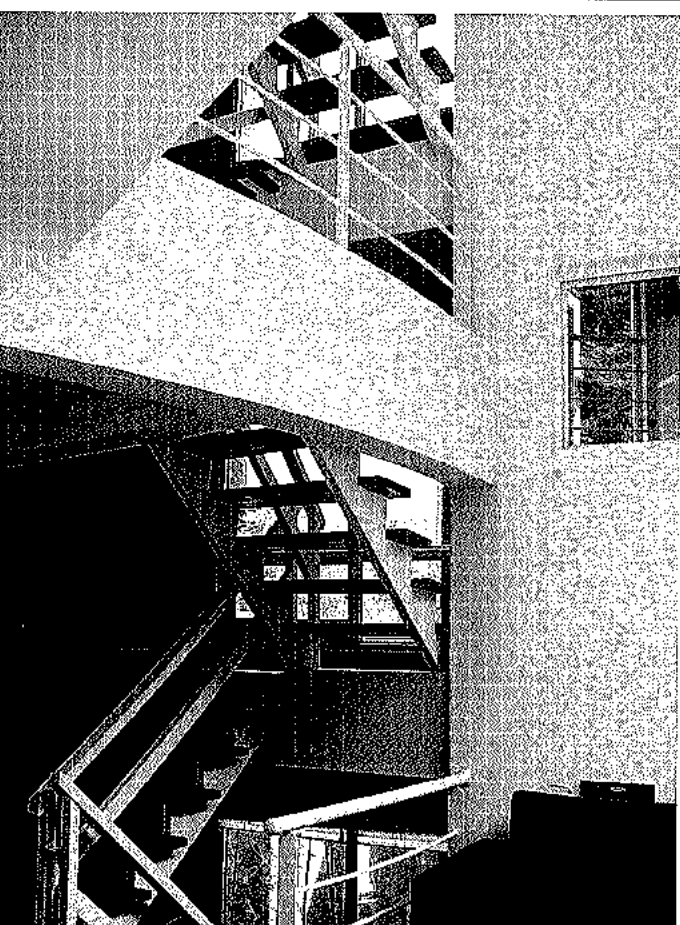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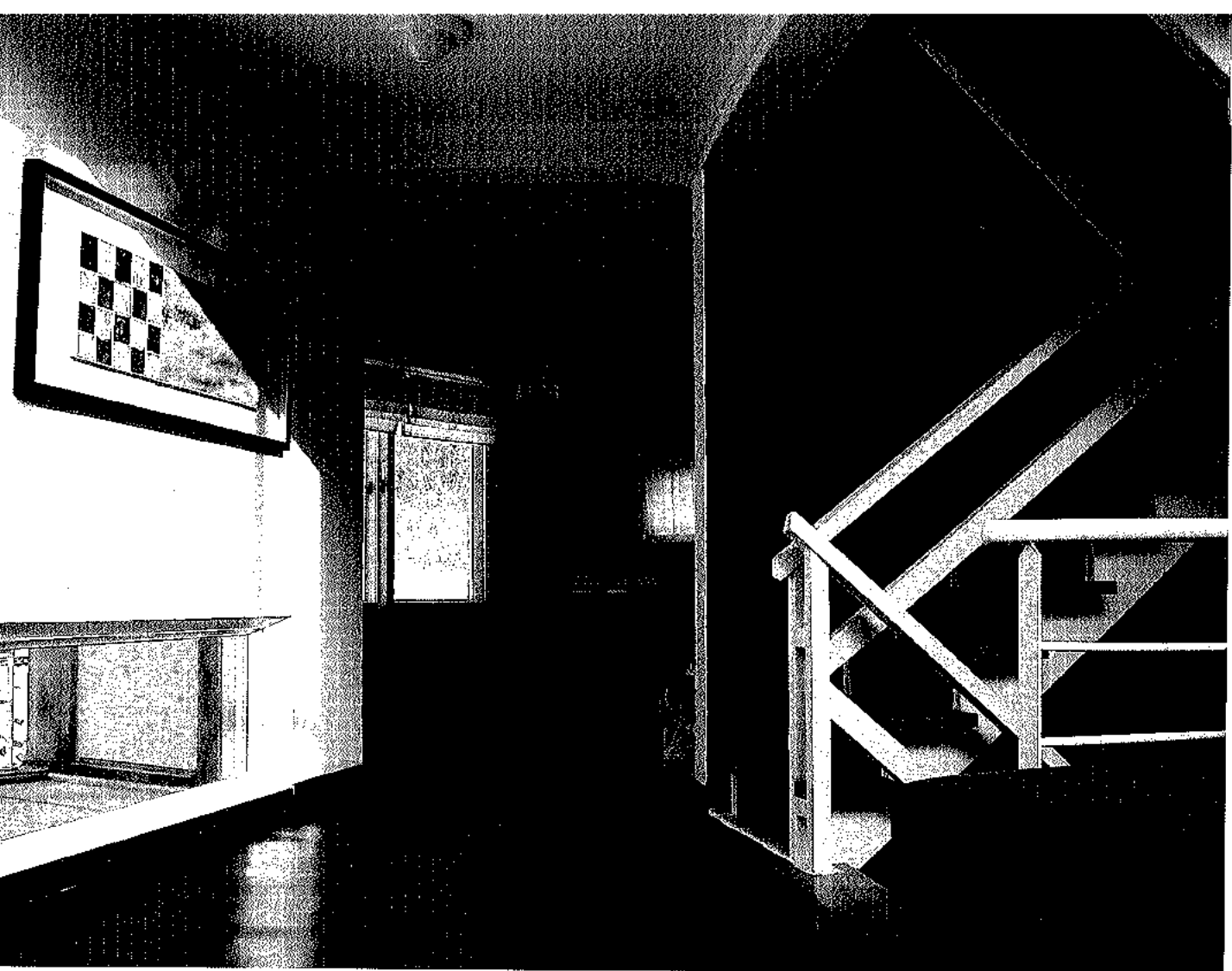
- 01_ 거실
- 02_ 욕실
- 03_ 침실
- 04_ 화장실
- 05_ 작업실
- 06_ 현관
- 07_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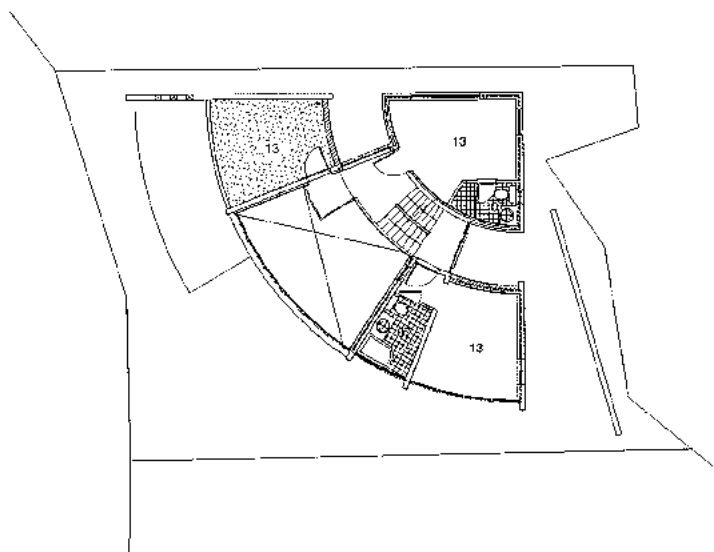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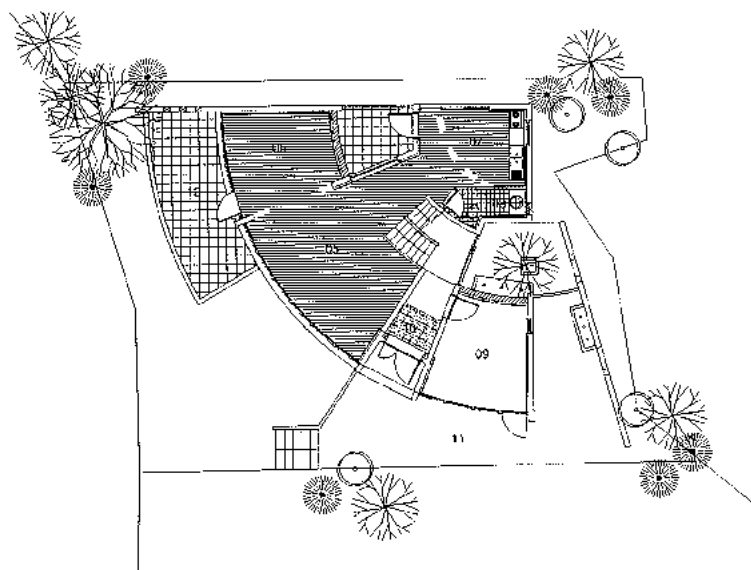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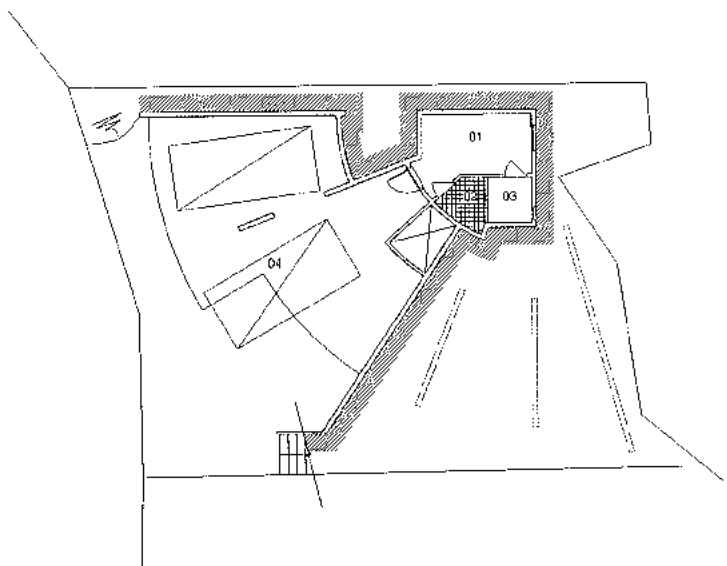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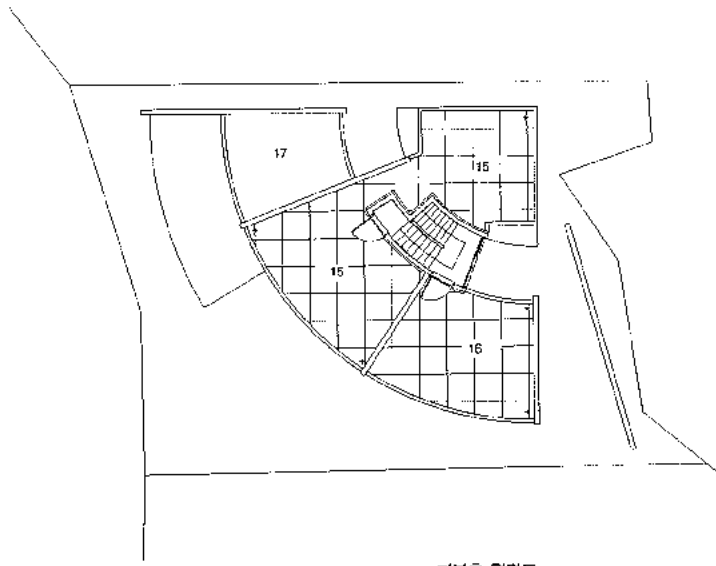


1층 평면도

- 01. 참고
- 02. 제작실
- 03. 온수탱고실
- 04. 주차장
- 05. 거실
- 06. 주방
- 07. 주방 및 식당
- 08. 화장실
- 09. 작업실
- 10. 현관
- 11. 테라스
- 12. 발코니
- 13. 원상
- 14. 옥상
- 15. 2층 옥상
- 16. 중건층 옥상
- 17. 1층 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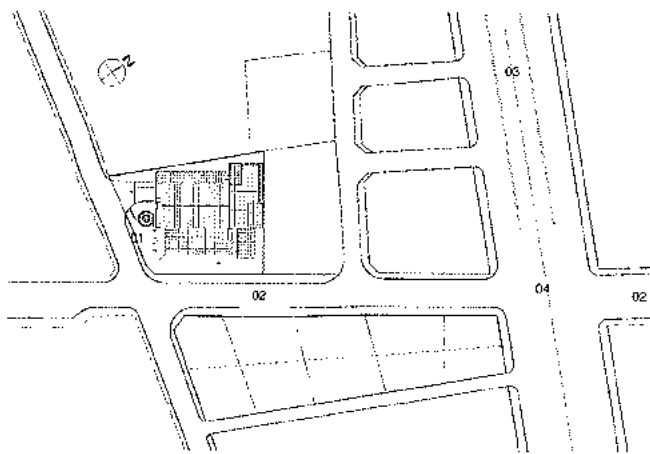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지붕층 평면도

씨네일레븐 CINE 11

● 배치도



01_ 10m도로
02_ 천호구길(15m)
03_ 지하차도
04_ 천호내로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1번지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용도	문화및 집회시설(영화관)
대지면적	1,686.00㎡
연면적	9,974.26㎡
건폐율	59.72%
규모	지하 3층, 지상 10층(10개관 / 1990석)
외부마감	알미늄쉬트, 맑은복층유리
구조설계	예가건축구조
설비설계	삼우설비
전기	진전기
인테리어	에나디자인
시공	정일건축
설계담당	이용민, 정석범, 김영삼, 김태규, 황승현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CINE11은 천호대로와 연결된 천호구길에 위치하고 있다.

11개의 상영관을 갖춘 멀티플렉스 영화관은 다소 침체되었던 천호구길에 새로운 활력소를 되찾게 할 것이다.

전면 15m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5m를 후퇴하여 건물을 배치함으로써 관람객의 입구에 대비한 옥외 공개공지로서의 기능은 물론, 다소 협소한 천호구길의 보행자 흐름을 원활하게하는 시민 휴식공간의 역할을 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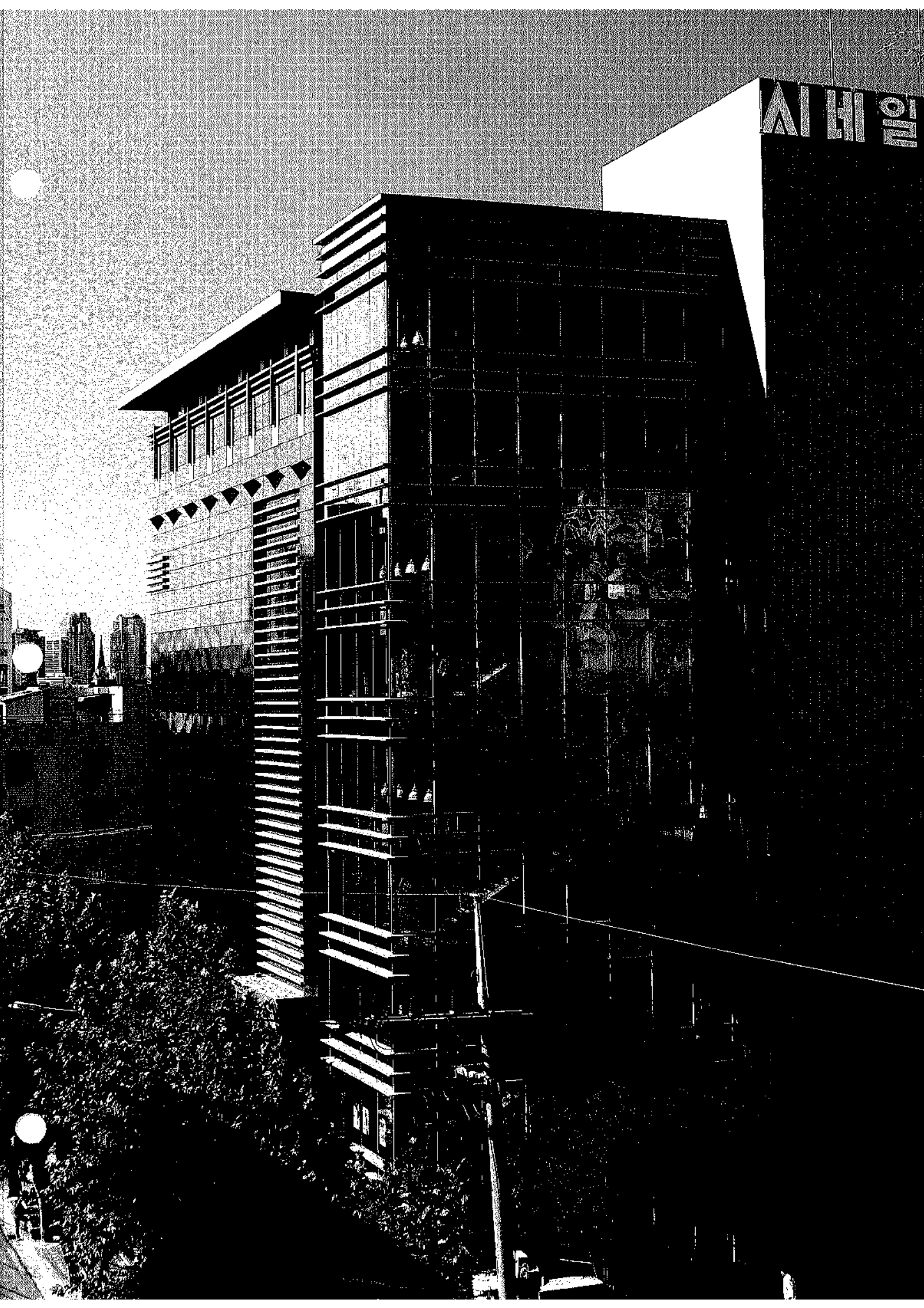
될 것이다.

1개층에 3개관(120석, 220석, 250석 각 1개관)짜리 3개층과 1개관 340석짜리 1개층등 모두 10개관을 갖춘 대형전용영화관 건물은 관객의 동선은 물론 영상운영 및 시설관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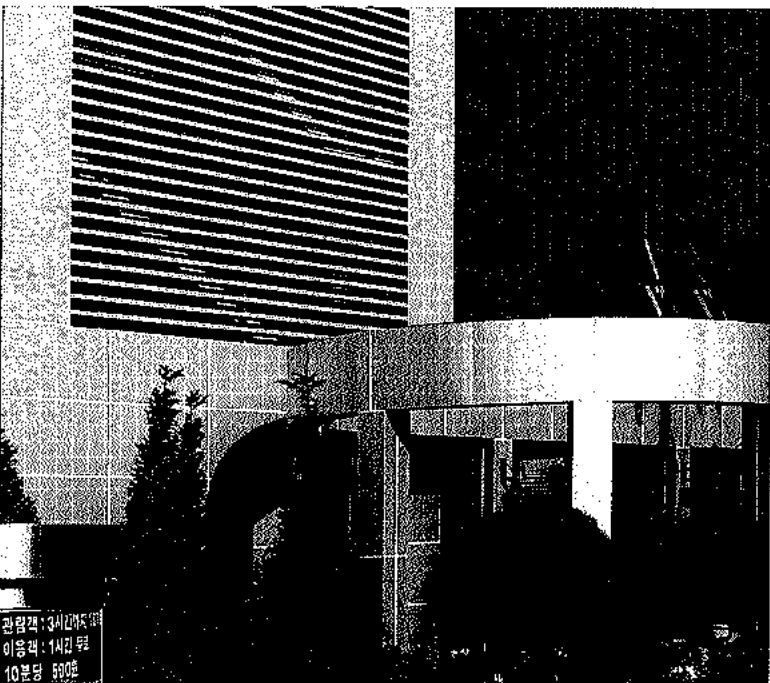
관객의 원활한 동선을 위해 3개의 승용엘리베이터와 2개층을 한번에 오르내릴 수 있는 대형 전면계단을 설치하셔서 영화관람 후 한꺼번에 몰리는 관객이 번잡한 엘리베이

터보다 전망이 좋고, 개방감있는 계단을 쉽고 편안하게 이용토록 하였다. 1번 돌음에 2개층을 내려가므로서 6개층의 경우 3번 돌아 내려가므로 지루하지 않게 단숨에 내려온 듯한 느낌을 주므로서 계단 이용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1개층에 3개관의 객석과 영사실이 동 일레벨·동일선상에 위치하셔서 3개관에 1개영화를 1개의 필름으로 동시에 상영이 가능하며, 이는 객석이 많은 대형영화관을 갖춘



시네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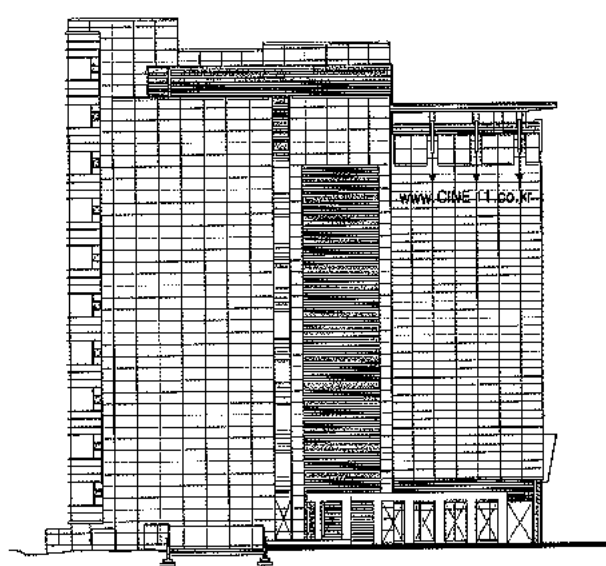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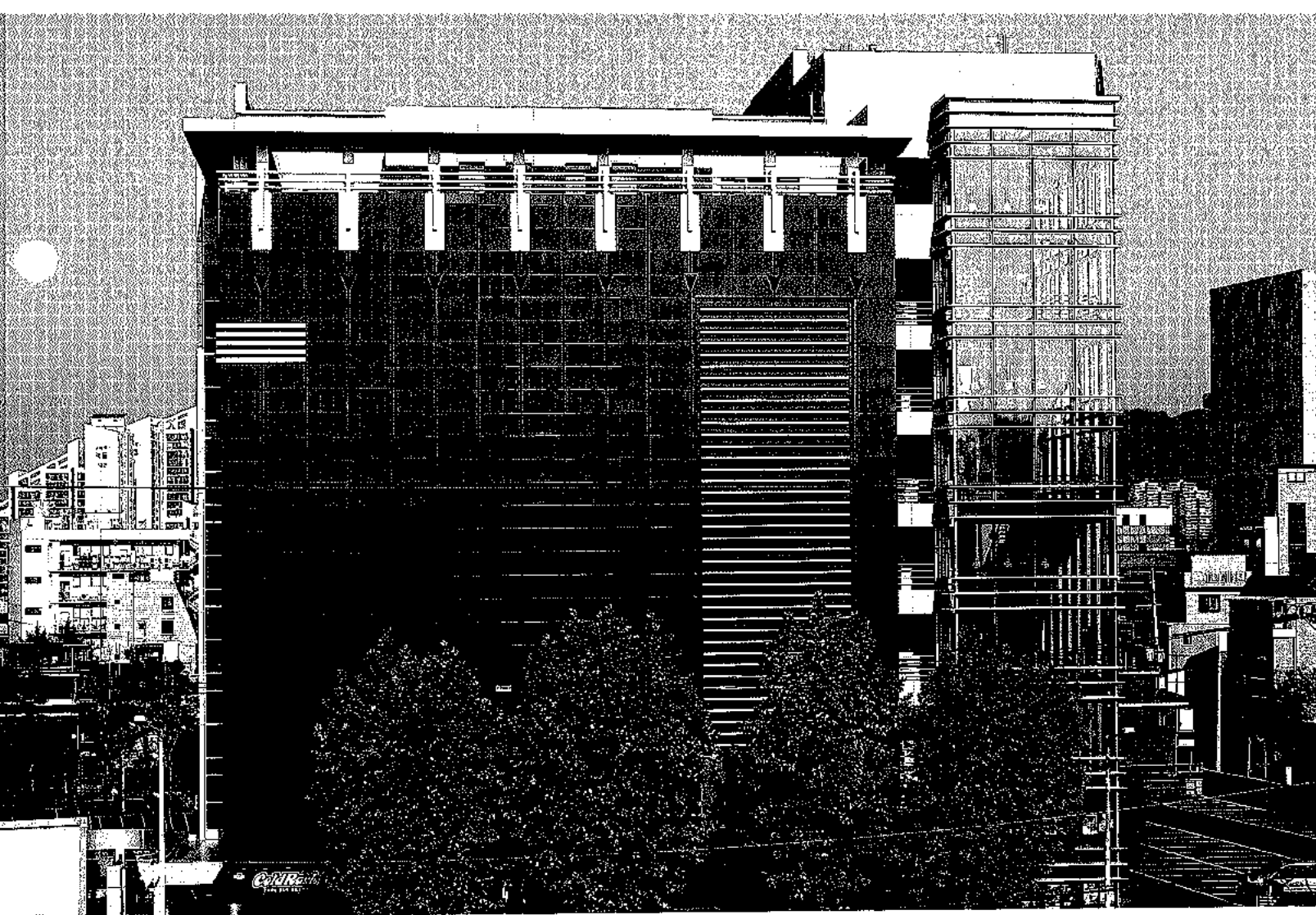


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융통성있는 객석의 운용은 소위 대박이 터진 영화를 상영할 경우 관객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어 입장수입을 극대화 하도록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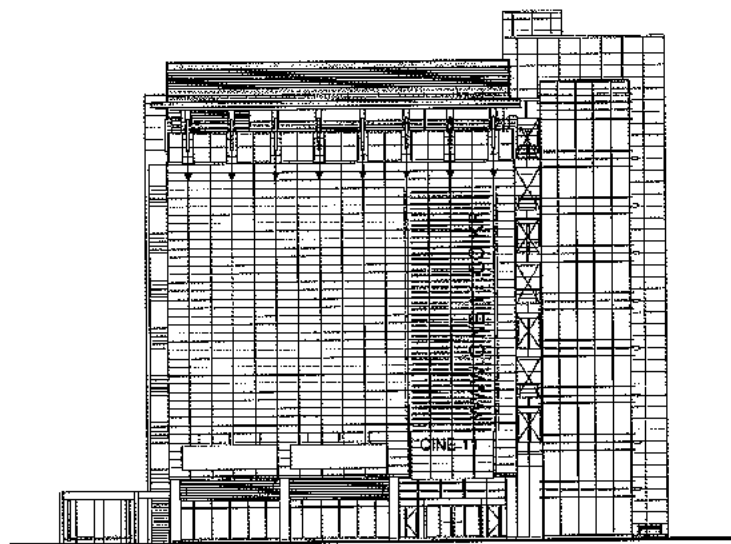
지하주차장은 협소한 부지면적의 극복을 위해 램프가 차지하는 면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스킵플로어 형태로 계획하였으며, 건물 외 외장재료는 알루미늄 쉬트와 유리커튼월을 주재료로 사용토록 하였다.

알루미늄 쉬트는 Silver와 Black의 컬러를 과감하게 대비, 영화관으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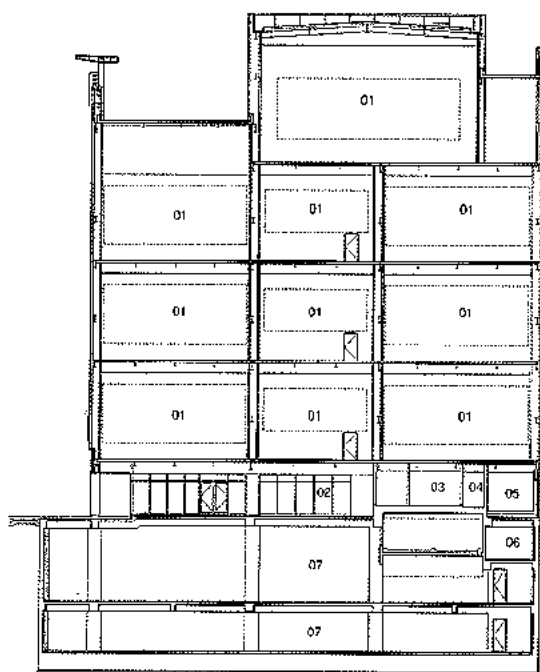
빛의 유입을 막아야하는 영화관(객석, 영사실과 채광이 필요한 홀부분의 상이한 공간기능을 그대로 외관에 반영, 객석부분의 Solid Wall과 홀부분의 커튼월이 강하게 대비되도록 하므로써 전면 대형계단 유리면의 개방감이 강조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Solid Wall의 하부를 필로티로 처리하므로써, 무겁고 단순하게 느껴질 수 있는 창이 없는 상부 매스의 중량감을 해소토록 하였다. **圖**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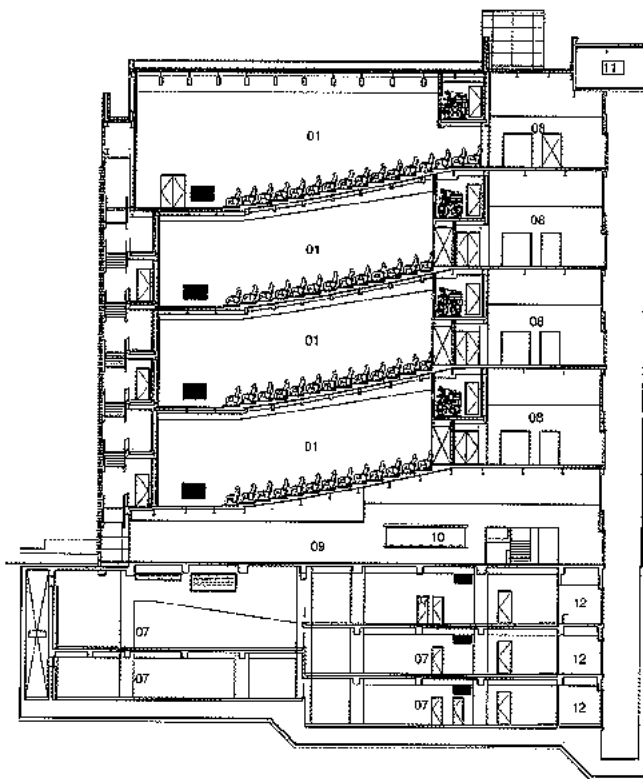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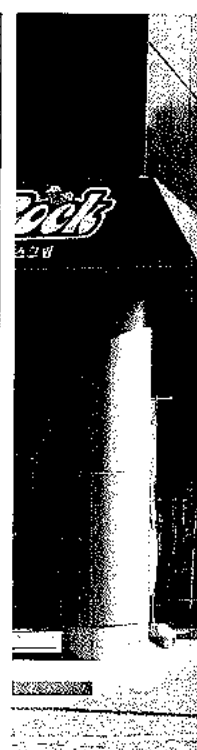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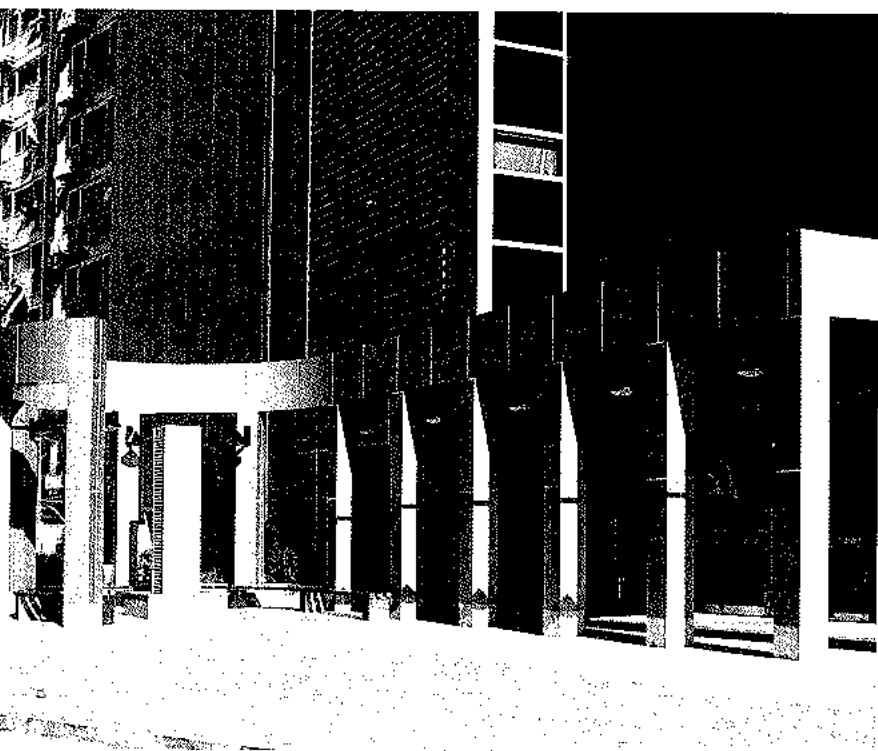


01 2 5

종단면도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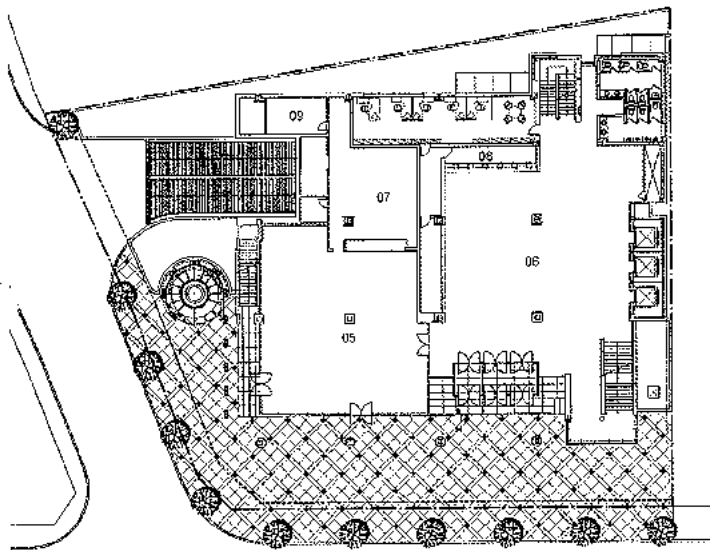


- 01_ 영화관
- 02_ 레스토랑
- 03_ 안의/유개
- 04_ 화장실
- 05_ 상고
- 06_ 방재센터
- 07_ 차아주차장
- 08_ 대기실
- 09_ 휴게실
- 10_ 로비
- 11_ ELEV 기계실
- 12_ ELEV 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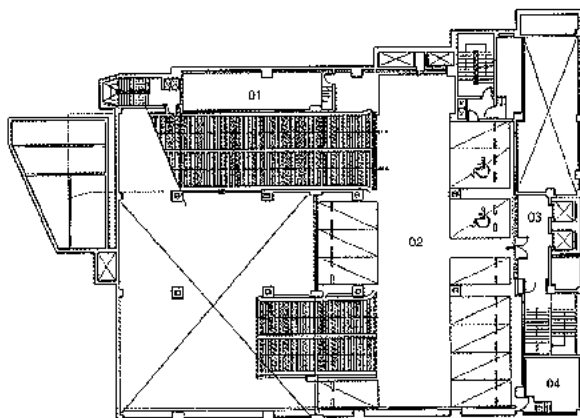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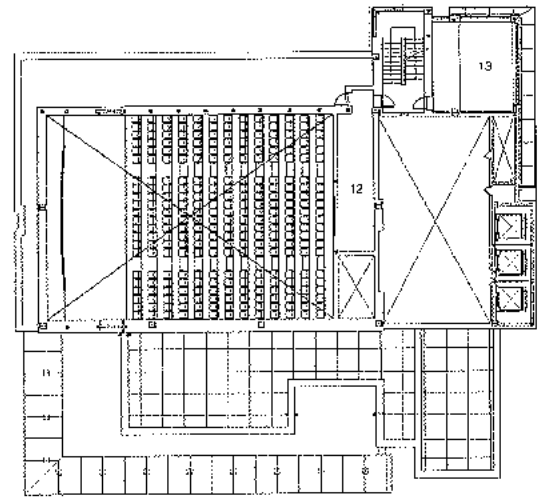
- 01. 주차관리실
- 02. 주차장
- 03. ELEV. 층
- 04. 발전기실
- 05. 패스트푸드
- 06. 루비
- 07. 주방
- 08. 매점소
- 09. 식당
- 10. 영화관
- 11. 대기홀
- 12. 영사실
- 13. 운동시설
- 14. 휴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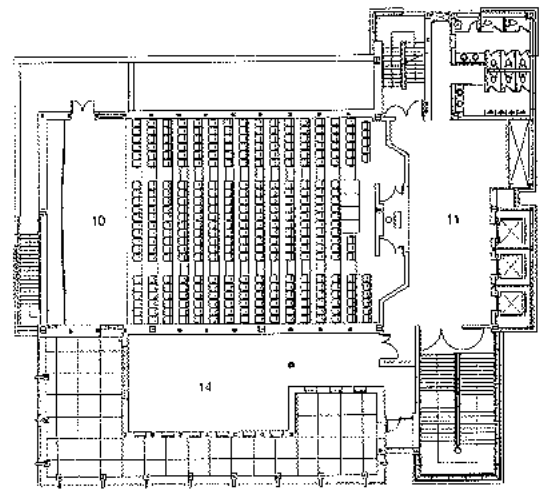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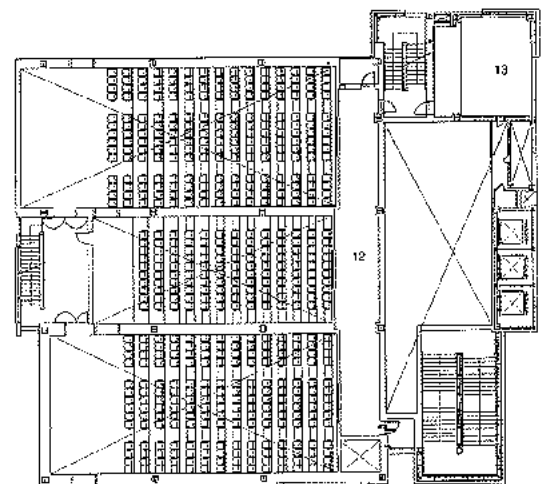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10층 평면도



9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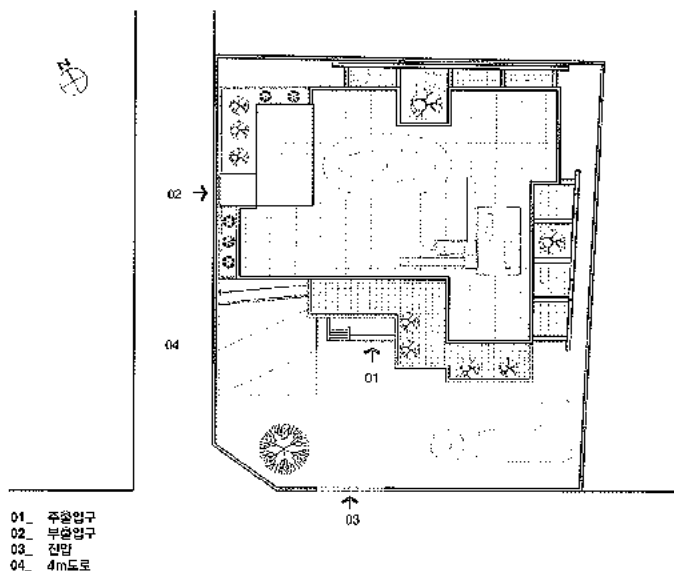
4, 6, 8층 평면도

햇살담는 어린이집

Sunbeams Kindergart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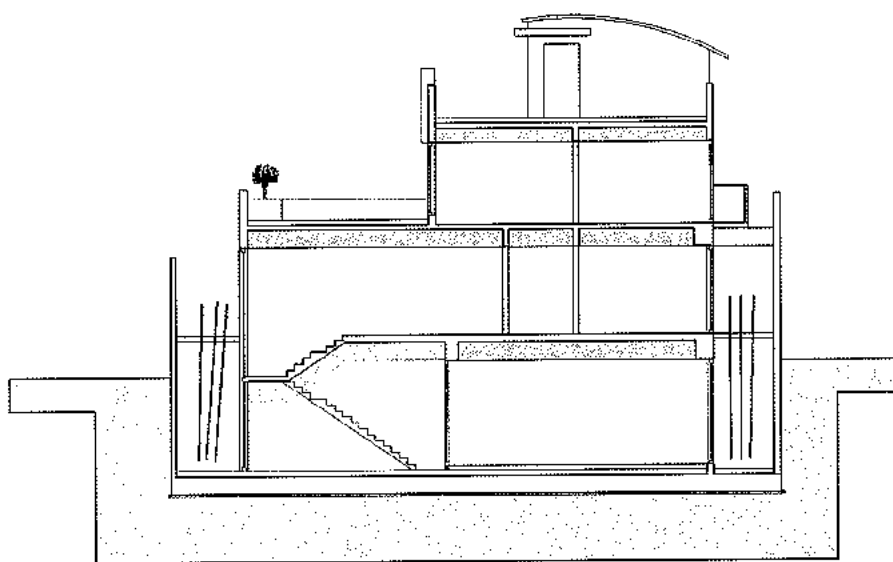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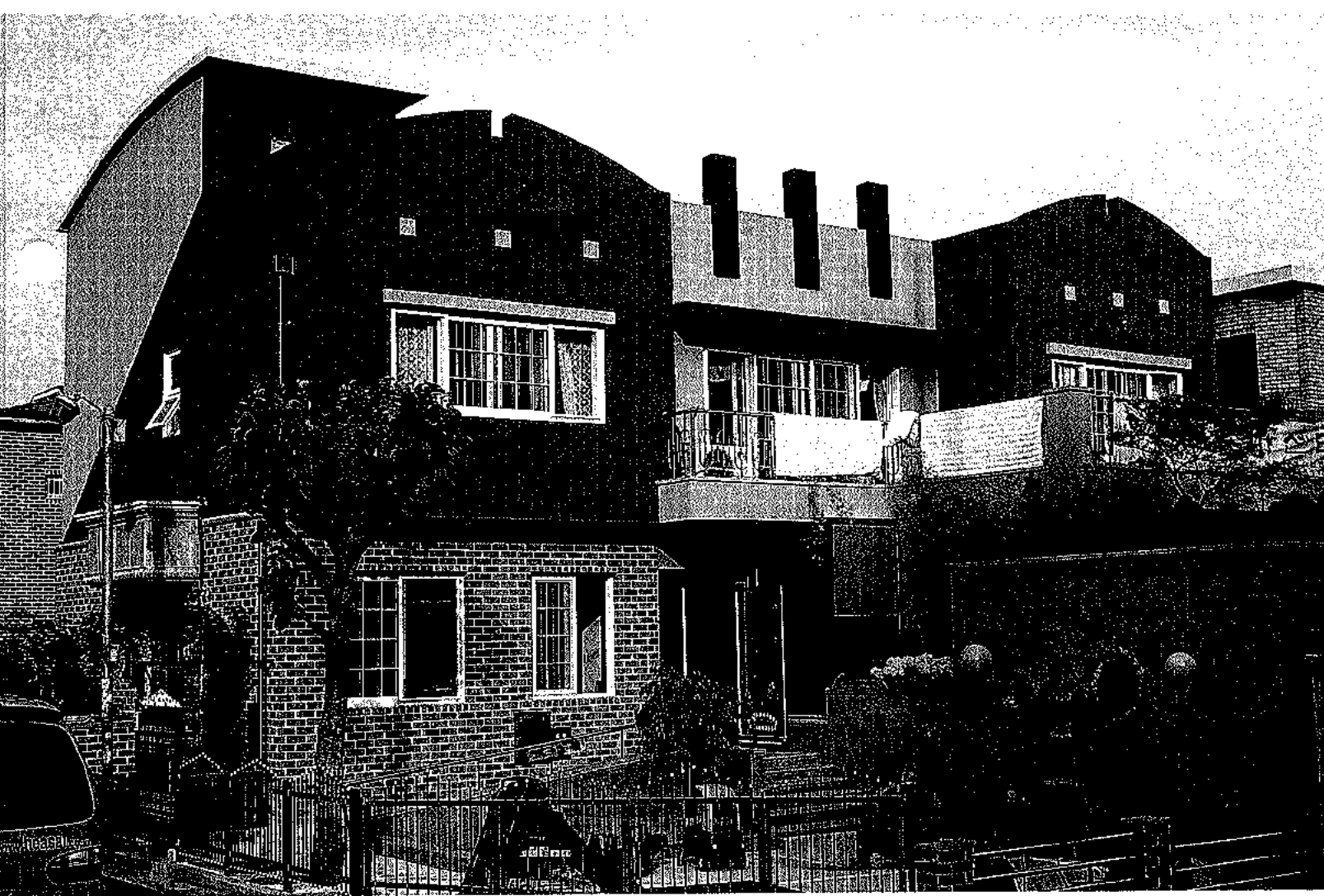
● 배치도

●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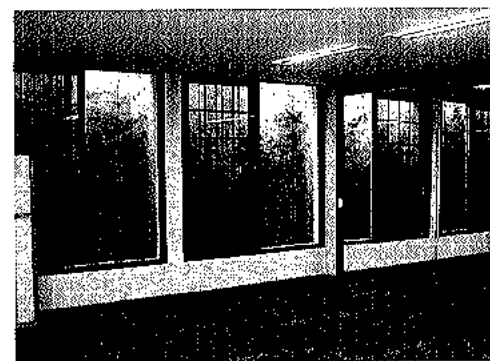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72-8번지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
대지면적	308.00㎡
건축면적	153.84㎡
연면적	478.26㎡
건폐율	49.95%
용적률	90.88%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설계담당	어인준, 육현일, 이종운, 하경국
시공	우협종합건설주식회사 (011-219-9657)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주단면도



프롤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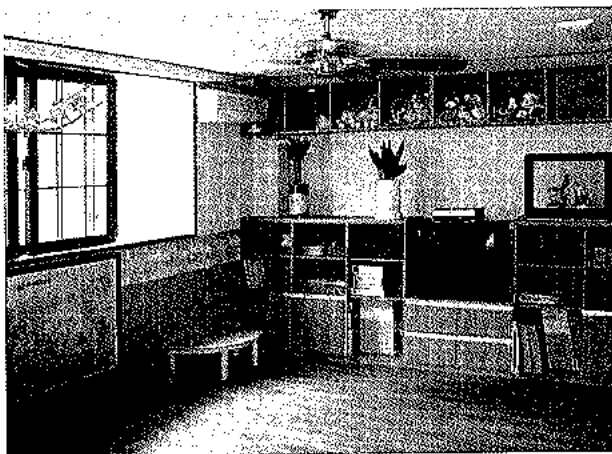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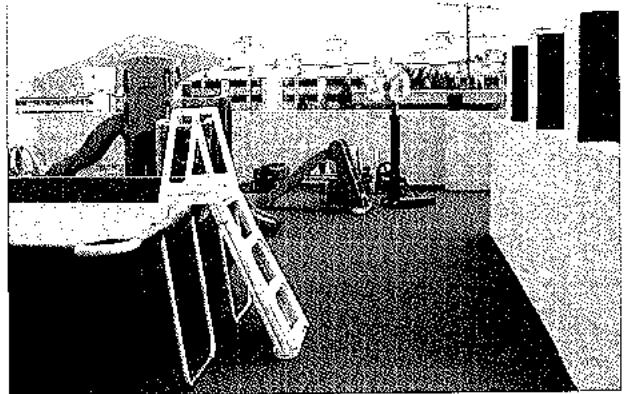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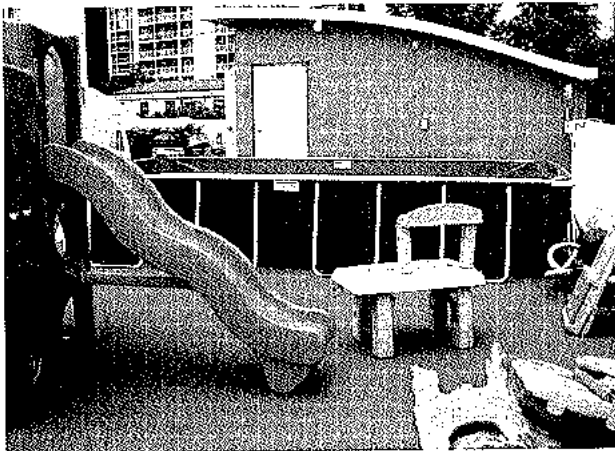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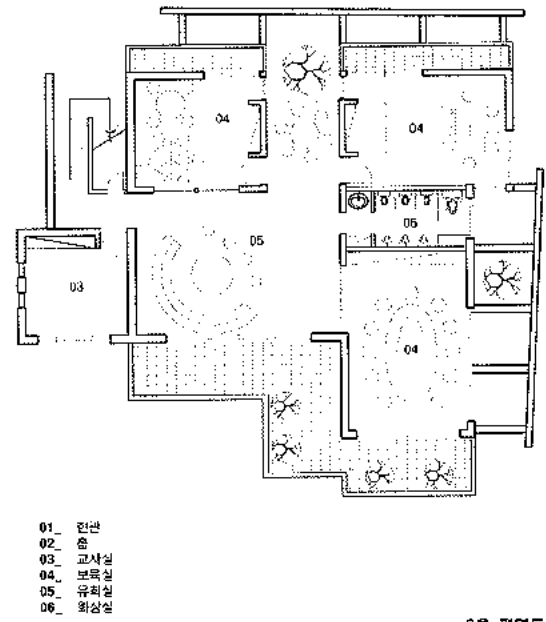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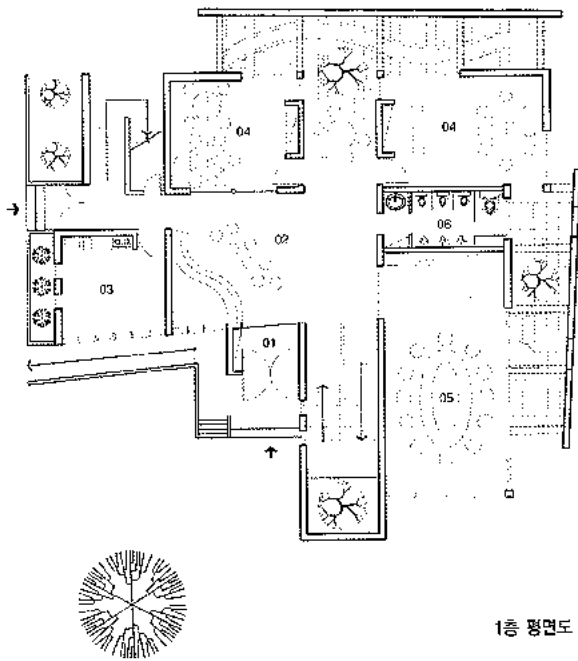
우면동 지역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 건축들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서울시에서 그나마 자연조건이 양호한 지역이다.

소형자동차가 겨우 다닐 수 있는 도로 조건과 붉은 벽돌과 화강석으로 대표되는 건물들이 밀집되어있는 부지에 어린이를 위한 소규모 건축이 이곳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 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했으며, 건축주의 저비용 건축비 문제로 고민을 해야만 했다.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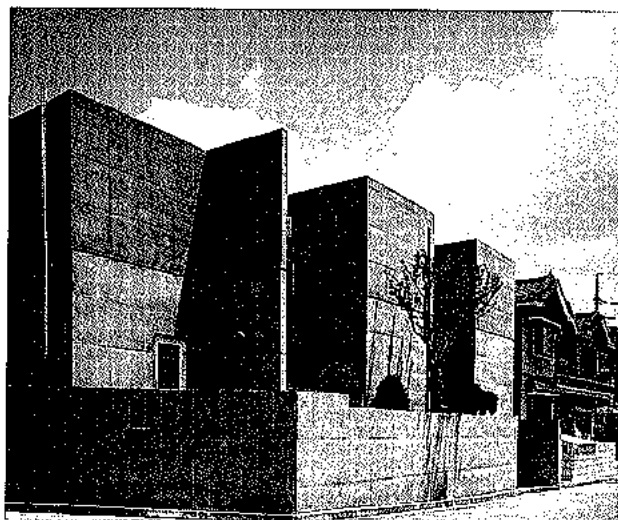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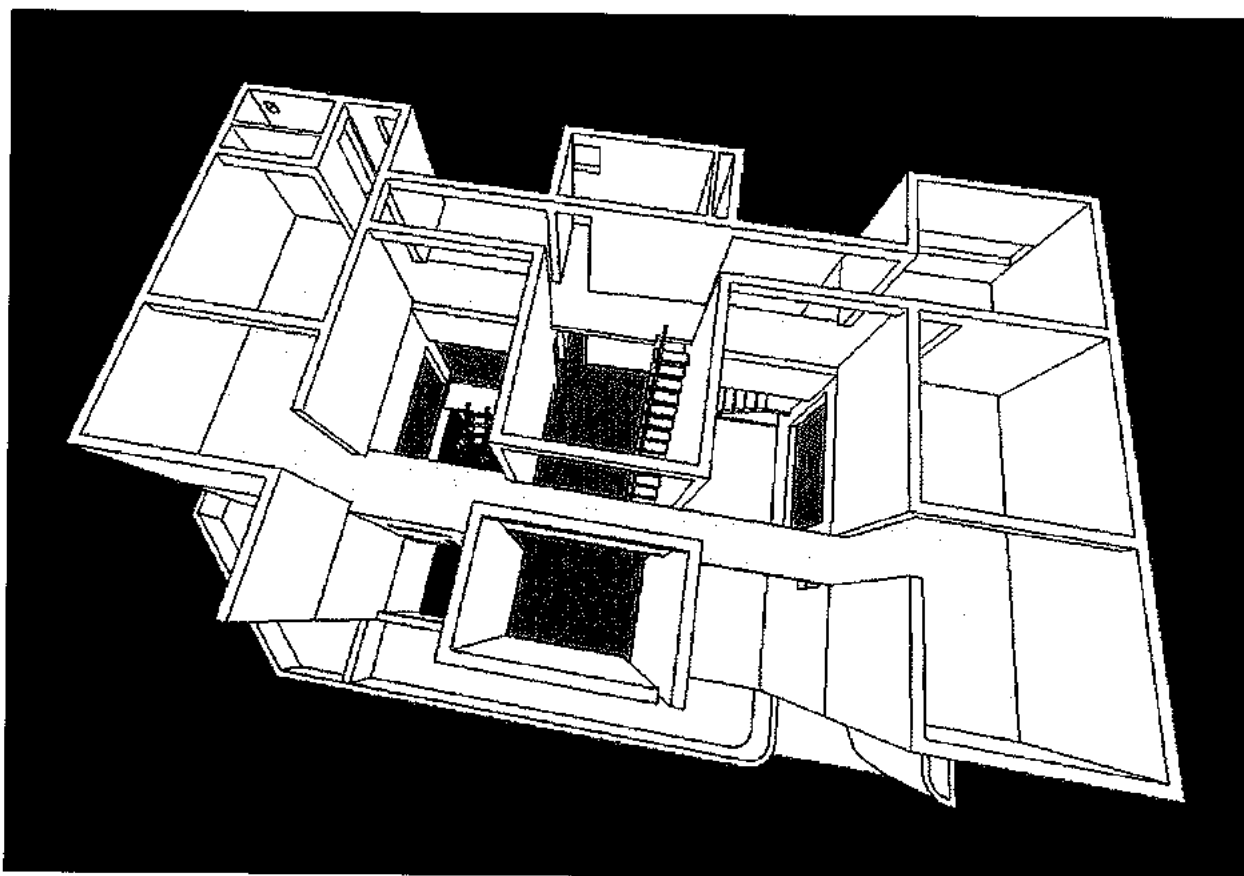
- 이집의 모든 곳에 자연의 햇살과 바람소리, 새소리를 담아야하며, 이면도로에 면한 SITE에 외적 열림을 추구한다.
- 주변 건물들이 지니고 있는 붉은 벽돌과 화강석으로 대표되는 재료의 물성을 배제한다.
- 자연의 마당과 인위적 마당의 교감과 차폐적이며 개방적 공간을 연출한다.
- 틱크에 떨어지는 빗소리와 눈내리는 모습을 한껏 받아들이며 평면동선의 완결과 기능의 집약을 추구한다.
- 어린이집과 건너편 우면초등학교와의 건축적 대화를 모색한다.(글/어인준) 圖





안거당(安居堂)

An-geo-dang



건축주

여느 클라이언트와 마찬가지로 원하는 것은 같았다.

TV에서 로케 장소로 많이 나온 수도권 지역의(자금은 지방에도 많이 보급된) 서양식 목조주택, 그와 유사한 외부 형태만 따오는 유럽형 빌라(?)등..... 무국적 주택. 한결같은 주문에 이젠 넘더러가 난다.

또 설득, 화유, 공갈, 사기 등 거품물고 "이건 안돼요"라고 전쟁을 치려야 했다.

그들의 요구조건은 무시하지 않는다.

100% 수용한다.

그 대신 나의 지향점을 요구한다.

철선 훌륭하게 될 거라고 엄포를 놓으며.

다행히 1회전에 O.K를 받았다.

그래도 건축주가 예전에 연극활동으로 인해

문화라는 맛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기에 가능했을 게다.

집 이름

전염병같이 집 이름 붙이기를 한다(따라 시장가게).

건축주가 불교에 심취한고로 하안거, 동안거에서 가져왔다. 이 주거에서 외부의 간섭없이 삶의 수행을 정진하시라고.

도심 주거

이 집은 도심 주거의 한 유형이다.

우리네 주거의 모습은 시끄럽다.

외부 모습에서 무얼그리 부르짖는게 많은지

제가끔 보아달라고 아우성 친다.

귀가 시끄럽다.

주거는 다른 건축과는 설계의 궤를 달리한다.

건축주의 주거 감각과 작가의 그것이 서로 일치 할때 최상의 결과가 나온다.

유목민의 은신처

우리의 모습은 험경다.

매일 생존이라는 전쟁터에서 전투를 끝낸 후

늦은 밤 귀가하면 반기는 건 가족들의 미소

그 가족의 생활을 규정하는 건축에 도움을 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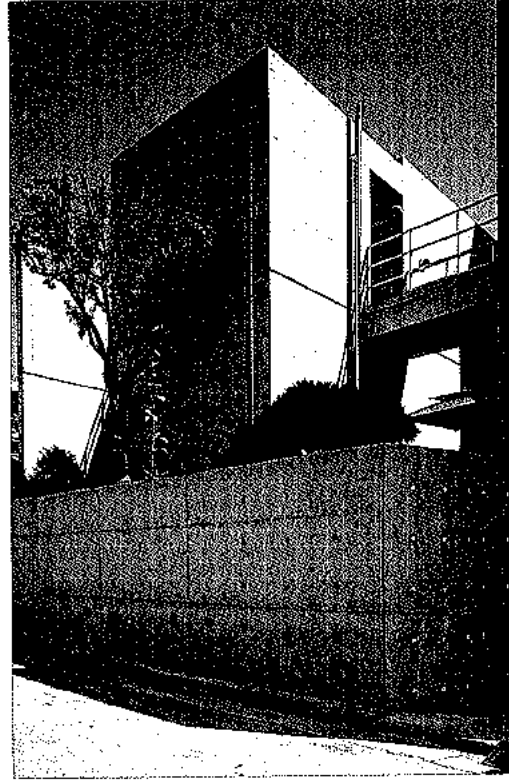
폐쇄적으로 보여지는 외부지만 단아한 재료

와 형태, 내부는 개방적인 생활의 소우주와

빛에 의해 생활이 모여드는 공간 만들기.

동선을 길게 늘어뜨리기, 주거 내에서 산책을

즐기자.



4개의 외부 거실, 마당과 마당들은 주거의
숨통.

구성내용

- 외부모습은 관심 없다. 오로지 내부다.(외부는 폐쇄된 감옥, 내부는 의외로 개방적이고 밝다)
- 집은 안식처다. 바깥에서 훌훌훌 떠다보는 것은 용서 못한다.(자매중, 소우주에의 탐닉)
- 2개의 길과 상자 3개다.(현관에서 거실 → 주방 → 방 1층의 실내 길, 2층의 실외 길 / 대지 원 측부터 주방, 거실, 주침실의 3개의

볼륨)

- 가능하면 실내의 방이 실외의 방을 가졌으면 한다.(거실과 주침실 사이의 둘의 마당, 2층 방들의 대응하는 외부 방)
- 지하층에 숨통을 뚫어주자.(썩은으로 하늘을 열다. 빛보다는 환기를)
- 주거 내부에 길을 만든다.(씨컨스, 수평과 수직의 건축적 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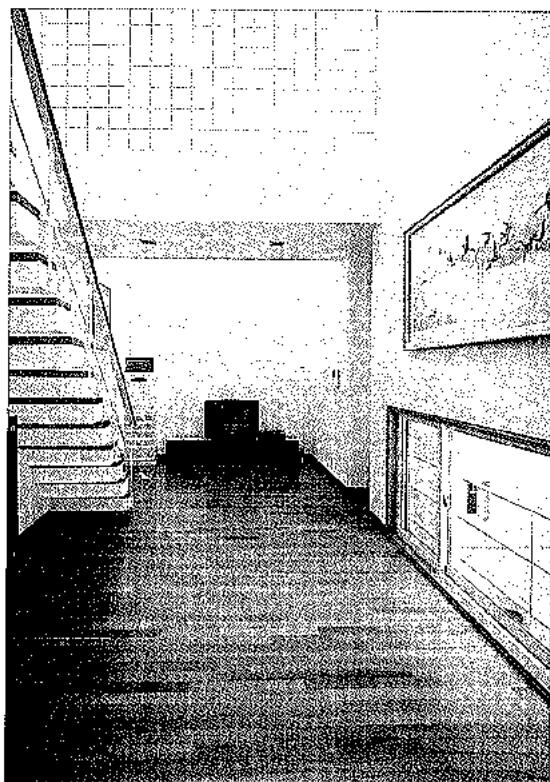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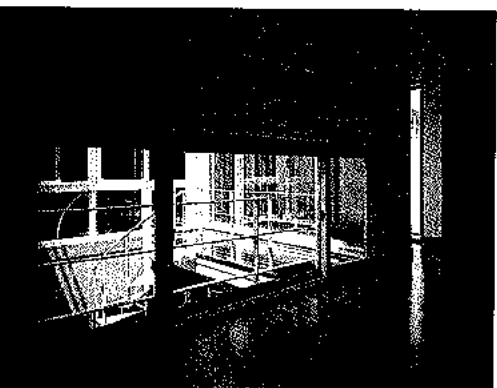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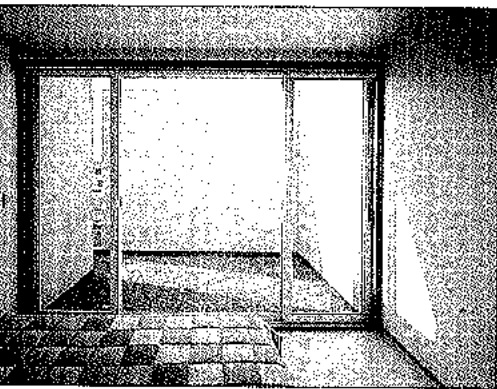
주택 설계

작가 의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 줄수 있는 것은 주택에서다.

근·현대의 작가들, L-C의 빌라 사보에, 미

스의 코트하우스 계획안, 바르셀로나 파빌리온, 판스워스 주택, 라이트의 로비하우스, 알토의 빌라 마야레아, 바라간의 자택, 가까이 는 안도의 스미요시 주택 등에서 보여준 것은 작가의 건축적 원형(archetype)이다. 물론 타 건축설계가 작가의지를 못보여준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특정 소수 이용의 주거가 용이 하다는 것이다.

서양 주거는 팔라디오의 로툰다에서 보였듯이 구분할 평면(nine-square)이 기본적이며 자기 중심적이다. 그러나 한국 주거는 부분적이고 개별적이며 다시점적인 경향이 있다. 우리네 옛 주거의 감흥을 오늘에 표상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면, 이를



바탕으로 건축적인 보편성의 확보야말로 지
상 목표가 되지않을까.

뱀의 발

평지붕을 원했는데 건축허가 조건이 경사지
붕이 아니면 안된단다. 뉘으신 분께서 뉴욕에
사셨는가 본데 그 곳의 경사지붕을 이 곳에
강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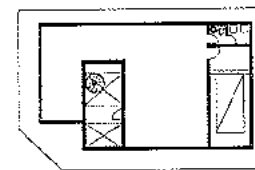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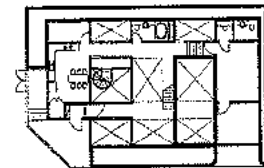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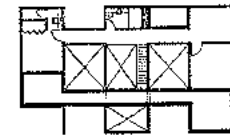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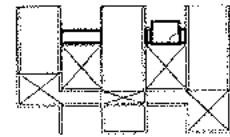
결원아치 지붕으로 공갈쳤다.

공사중에 민원이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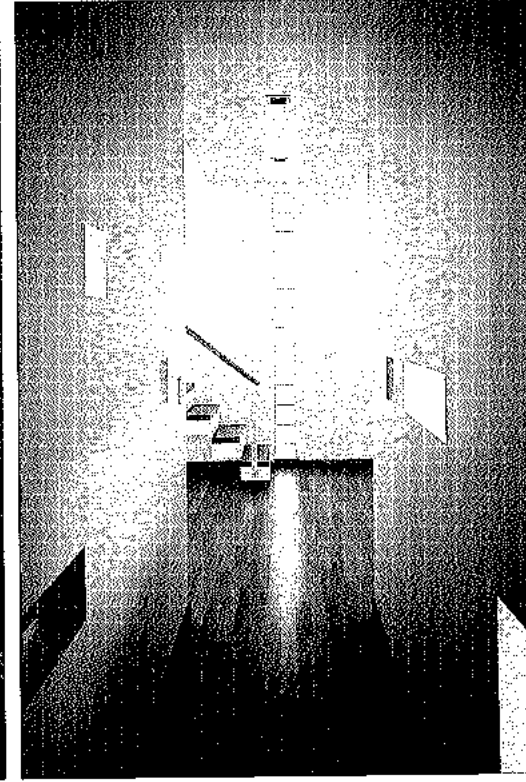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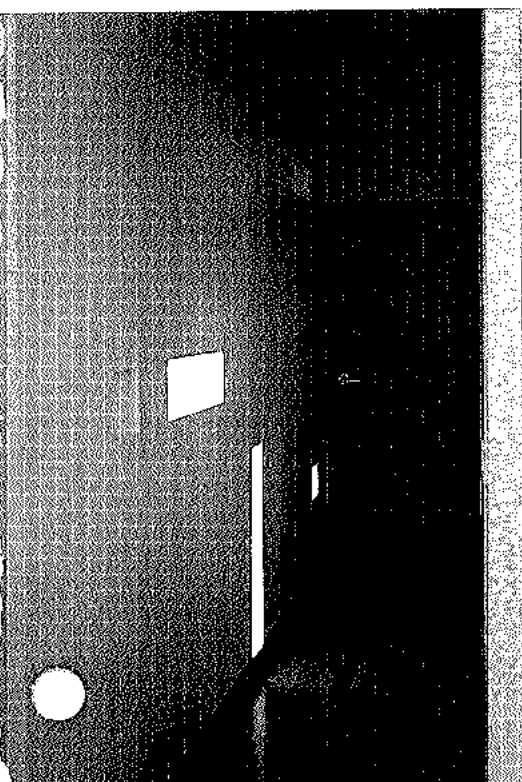
아웃에서 고발하였는데, 공사중인 집이 이교
도 집단의 그것처럼 보인다고 경찰관이 다녀
갔다는 건축주가 전한 이야기...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남 창원시 시파동 24-7
지역지구	1종 일반주거지역
용 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264.20㎡
건축면적	120.75㎡
면 면 적	289.35㎡
건 폐 율	45.70%
용 적 륜	66.77%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마 감	외부-노출콘크리트, 복층유리 내부-바닥-온돌마루, 장판 벽, 천정-석고보드위 이크릴페인트, 한지



평면도



허 정 도
(주)사건건축사사무소
by Heo Jeong-Do

도강언(都江堰)에 올라 이빙(李冰)을 생각하다¹⁾

Think of Lee Being climbing up the Do Kang Won

지난 6월, 중국 사천성 일대를 여행하였다.

그 동안 십 수차례 중국을 드나들었지만 보면 볼수록 놀라운 것은 수천수만 겹 녹아있는 역사의 층위다. 대륙은 깊고 넓었으며 언제나 새로운 것을 보여 주었다.

지구상에 우수한 역사를 가진 나라와 민족이 많지만 중국만큼 볼거리가 많은 나라도 없다. 기기형형한 자연은 물론이고, 추측하기조차 힘든 거석과 미금의 조형물에 이르기까지, 널리 알려진 만리장성과 병마용도 그 중 하나다. 하지만 천하제일이라는 만리장성도,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 넘었다는 병마용도, 이번 여행의 도강언처럼 가슴 요동치는 감동을 필자에게 주지는 못했다.

필자가 지면을 빌어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그 때 요동쳤던 감동을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마땅히 수리시설은 건축과 구분되지만 그것이 공익을 위한 구조물이란 점에서 공유의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다. 이는 백성의 복리를 위해 도강언에 생을 바친 이빙(李冰)의 삶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반추하기 위함이기도 하며, 우리 아니 우리 다음의 누구라도 도강언의 이빙과 같은 위대한 천재 기술자나 목민관이 이 나라에 탄생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이미 도강언의 위대함을 아는 분들은 양해하기 바란다.

1) 이 글은 이준선, 유소영, 심규호, 유정근 네 분 교수의 글을 많이 인용하였다.



그림-1 도강언 전경

여취에서 들어 나누어지는 것을 알 볼 수 있다. 오른쪽으로 흐르는 것이 외강, 왼쪽이 내강이다. 멀리 도강언 사가 보인다.

근대의 힘으로도 상상하기 어려운 위대한 수리시설 도강언이 역사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250년대이다. 지금으로부터 2천수백 년 전,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기 수십 년 전의 일이다.

황무지였던 성도평원을 일거에 옥토로 만든 이 수리시설은 진(秦)나라의 지방 관료에 불과했던 축군 태수 이빙에 의해 건설되었다.

도강언은 사천성 서북 고산지에서 발원하여 양자강 상류로 흐르는 민강의 물을 농업용수로 이용하기 위한 수리시설이다. 사천을 일러 흔히 천부지국(天府之國)이라 부르지만 도강언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런 말이 사용되지 않았다.

사천지방은 서북이 높고 동남이 낮은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고산지대에서 시작되는 민강은 심산협곡을 지나면서 점차 수량이

증가해 사천의 성도분지에 이르러서는 물결이 세지면서 강의 규모도 커진다. 포악해진 강물은 낮고 약한 제방을 무너뜨렸고 범람한 물은 성도 평원을 불모의 땅으로 만들었다. 상류로부터 내려 온 흙과 모래가 강 굽을 높은 탓에 강물이 제방을 넘었던 것이다.

아직 미개했던 주민들은 민강에 탐욕스럽고 독한 웅이 있어서 수마가 생긴다고 믿었다. 하여 독룡의 미움을 풀기 위해 매년 몸에 상처 나지 않은 깨끗한 처녀 둘을 산채로 물속에 떠밀어 희생시켰다. 사천 백성들에게 민강의 홍수는 하늘이 내리는 재앙이었다.

천형(天刑)처럼 피할 수 없던 자연의 섭리, 그 숙명 앞에 민강의 물길을 조절하여 수해를 막아 성도평원을 옥토로 만들겠다고 태수 이빙이 나섰다. 이것이 역사적인 도강언 프로젝트의 시작이다.

도강언의 시설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취(魚嘴)와 비사언(飛沙堰), 보병구(寶瓶口)가 그것이다. 이 세 시설은 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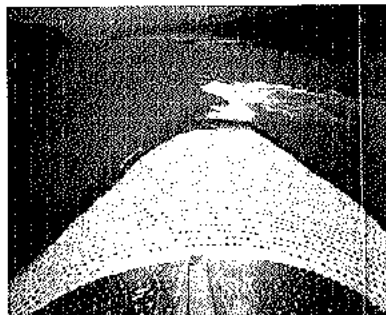


그림-3 도강언 3대 시설 중의 하나인 여취 이곳까지 흘러온 민강은 여취에서 내강과 외강으로 갈라진다. 왼쪽이 외강, 오른쪽이 내강이다. 예전이 여취는 죽룡으로 만들었으나 지금은 외부가 콘크리트로 바뀌었다

있으나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결과적으로 하나의 유기체적 결합을 이루고 있다.

여취(그림-3)란 말 그대로 물고기의 주둥이를 뜻하는데, 이것은 민강을 두 줄기로 가르는 분수제(分水堤)의 역할을 한다. 그림에서 보듯이 물고기 주둥이처럼 푹 푹 나와 있는데, 이 제방에 의해 민강이 본류로 흐르는 외강(外江)과 인공수로인 내강(內江)으로 나누어진다. 여취는 죽룡법(竹籠法)이라는 공법으로

사용되었다. 대나무를 이용하여 죽룡(그림-4)을 만들고 그 속에 하천에 있는 돌을 넣은 다음, 이것들을 쌓아 물을 막는 방식이다.

죽룡법과 함께 거친 강물을 막는 물막이 공법으로 마시법(槩澁法)이 고안되었다. 등변의 삼각시렁과 나무기둥을 엮어 세우고 죽룡으로 눌러 고정시켰으며, 물이 흘러오는 방향에는 대밭과 풀로 만든 자리를 세워 붙인 후 그 위에 점토를 두껍게 발랐다(그림-5, 그림-6).

한편 비사언은 내강으로 들어온 수량과 토사를 조절하는 제방이다. 곧 내강 쪽으로 흘러온 물이 넘칠 경우 이 제방을 통해 다시 민강 본류로 흘러가도록 하는 자동 수량조절 장치인 동시에 상류로부터 내려온 흙과 모래를 내보내는 토사배출구이기도 하다.

보병구(그림-9)는 인공수로인데, 북쪽 옥루산(玉露山) 하부 사면의 암층을 인공으로 절단하여 만든 취수구이다. 당시 옥루산의 형세가 민강이 동으로 흐르는 것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동부지역의 넓은 들을 관개하려면 반드시 이곳을 뚫어야만 했다. 이빙은 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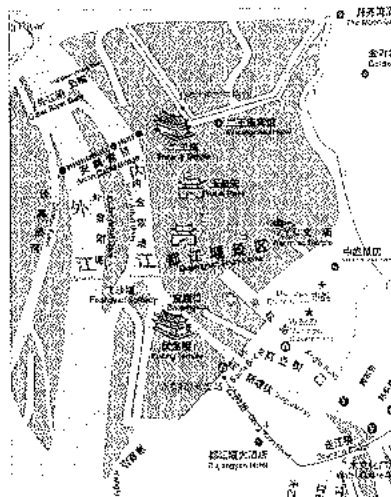


그림-2 도강언 기본 개념도

위로부터 흘러온 민강은 여취를 지나면서 내강과 외강으로 갈라진다. 내강을 통해 흘러온 물 중에서 넘치는 양과 퇴적물은 비사언을 통해 다시 외강으로 가고, 일정한 양의 깨끗한 물이 보병구를 통해 내강으로 흘러간다. 좁은 수로를 통과한 강물은 다시 사에서 부채살처럼 갈라져 비옥한 성도 평원을 만든다.



그림-4 죽룡

대나무를 꼬개어 만든 끈으로 엮어진 죽룡 안에 하천변의 둥근 자갈들이 채워져 있다. 죽룡 한 개의 크기는 길이 10m, 직경 0.57m 정도이다. 채워진 자갈들의 형태가 알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난석(卵石)으로 불린다. (王純五 편, 1997, 千古奇工 都江堰, 都江堰市民間文藝協會, 63쪽)

석에 고열을 가한 후 그 위에 냉수를 끼얹는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암층이 갈라지게 했다. 그 후 다시 망치와 끌로 암층을 깨내고, 쇠파를 이용하여 굵어내었다. 자질의 풍화작용 원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누구도 상상치 못했던 일을 해냈던 것이다. 이 작업은 도강언 공사의 절정이었다.

보병구(寶瓶口)는 대략 폭 20m, 높이 40m, 길이 80m의 규모인데 형태가 꽃병의 목 부분과 같아 붙인 말이다. 이곳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비꾼 물은 인공 수로를 따라 빠른 속도로 도강언사를 향해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보병구와 비사언 사이에는 이른바 이퇴(離堆)라는 유수시설이 개착되어 있었다. 이곳은 물이 보병구로 들어가기 전 잠시 동안 머물게 고안된 것이다. 말하자면 이퇴는 퇴적물을 쌓이게 한 다음 그것이 비사언으로 넘어가도록 만든 인공유수지라고 할 수 있다. 놀라웠던 것은 이퇴의 형상이었다. 유수에 부딪히도록 개착된 벽이 물의 방향과 직각이 아니라 만곡형태의 곡면이 되도록 하여 유수 에너지를 최소화시키고 있었다.

이와 같이 취수와 배수, 토사배출 등 도강언에 적용된 일련의 수리기술에는 강물의 곡류현상과 침식, 운반, 퇴적의 원리가 고스란히 적용되었다.

앞서 말한 어취에서 내강과 외강으로 나누어진 강물은 네 갈래 여덟 갈래 식으로 총 5백여 갈래의 인공 강으로 변했다. 물은 성도 대평원을 옥토로 관개하였으며 내륙수운 용으로도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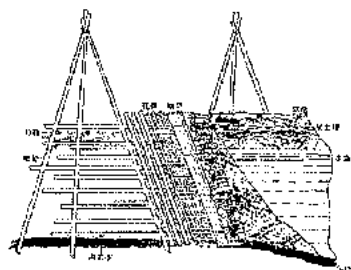


그림-5 마사법의 의한 물막이 독의 단면도
능변 삼각시랑과 나무 기둥들을 위에서 받치고, 속동으로 고정시킨 후, 물이 흘러오는 방향에는 정토로 독을 쌓았다. (王純五 편, 1997, 千古奇工 都江堰, 都江堰市民間文藝家協會, 62쪽)



그림-6 마사법에 의한 물막이 독의 형태
삼각 시랑들을 토대로 대발, 나무, 점토 등을 재료로 하여 조성된 물막이 독의 모습이 잘 관찰된다. (王純五 편, 1997, 千古奇工 都江堰, 都江堰市民間文藝家協會, 62쪽)

도강언 주변 일대는 성도나 인근 지역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아름다운 공원이기도 했다. 울창한 숲 속에서는 특유의 목소리를 내는 사천 매미가 왕왕거리며 울어댔고, 서북쪽의 산록에서는 시원한 고원 바람이 강을 따라 내려왔다. 또한 경내에는 이 수리시설에 공을 세운 이방에서부터 삼국시대 이곳을 지키기 위해 연졸(堰卒)을 두었던 제갈량을 비롯하여 근대의 인물, 예컨대 청 말에 10여 년간 사천 총독으로 재직하였던 정보정(丁寶楨, 1820~1886)의 동상까지 죽 세워져 있었다. 뿐만 아니라 현대의 모택동, 등소평, 강택민 등도 자신의 자취를 남기고 있었다. 도강언은 단지 수리시설로서만이 아니라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중국역사가 압축된 현상이었다.

한 공간 속에 자연과 역사와 과학이 공존한다는 점에서 도강언은 중화민족문화의 깊은 물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해야 한다는 진리를 사실로서 증명해 주고 있었다.

이 수리시설은 2천 2백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천백성의 풍부한 농작물 생산을 가능케 해주고 있다. 실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도강언 때문에 얻은 사천성 민초들의 물질적 이익은 말로 헤아리기 어렵다. 이곳 사천성을 이른바 천부지국(天府之國)으로 만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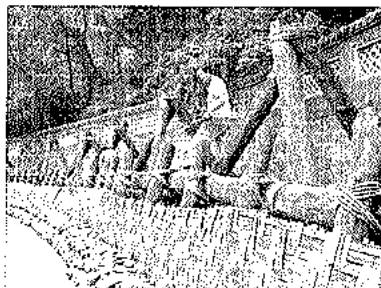


그림-7 이방이 마사법으로 물을 막았다가 최초로 방수(放水)한 장면을 청명절 축제 때 자행하기 위해 도강언 경내 한쪽에서 일꾼들이 삼각시랑을 손보고 있다.



그림-8 매년 청명절에 행하는 방수축제
도강언을 완성한 뒤 내강으로 물을 처음 흘려 보냈던 방수(放水)를 기념하기 위해 이 지역 사람들은 매년 청명절에 방수축제를 거행한다. 물을 막았던 나무 독을 더뜨리고 있는 장면이다. 물위에 떠 있는 돼지에서 우리는 이 의식의 중요성을 볼 수 있다. 2003년에 거행된 장면이다.

이방이 관운장과 더불어 신앙의 대상으로까지 추앙받는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전대미문의 대 수리시설을 설계 시공한 이방은 누구인가?

그는 자신의 평생에 관한 어떤 자료도 남긴 바 없다. 단지 견고한 제방만 남겨두어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삶을 추측하게 할 뿐이다. 2천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이 위대한 수리시설은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까지 지정되었지만 정작 이를 만든 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별로 없다.

다만, 진(秦)이 촉(蜀)을 멸하여 이곳에 촉군(蜀郡)을 설치한지 60년 되던 해, 곧 기원전 256년 그가 촉군 태수로 임명되었으며, 천문지리에 능하였고 실지 고찰을 중시하였다는 사실과 수맥에도 밝아 영점을 파서 촉군의 소금문제를 해결하였다는 정도가 알려져 있을 뿐이다.

도강언을 본 사람은 누구라도 이 위대한 시설 앞에서 한번쯤 물을 것이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언제 태어났으며, 촉나라 사람인지, 진나라 사람인지, 그도 저도 아니면 저강(氏羌)족인지.

그에게 아들이 있어, 그 부자(父子) 2대가



그림-9 보병구와 이퇴
왼쪽의 삼각시랑을 가로질러 물이 흐르는 곳이 보병구이다. 보병구 우측 언덕 위의 건물이 복룡관이며 그 아래쪽에 아퇴가 있다. 오른쪽이 비사언이다.

40여년에 걸쳐 도강언을 완성하였다고도 한다. 또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사당 이왕묘(二王廟)도 도강언 경역 안에 당당하게 서 있다. 하지만 이규태 선생은 이방을 신에게 외동딸을 바친 트로이 전쟁의 아가멤논과 구약 성서의 에프타에 비교하였다. 이방의 두 딸이 두 사나이로 둔갑하여 홍수를 몰고 오는 독룡을 퇴치한 후 상습수해의 황무지 수 천 리를 옥토로 만들었다고 했다. 아들 이야기는 설화라는 뜻이다. 이 말을 뒷받침하듯 우리를 안내해준 이도 사실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으며 아들을 만들어 준 것은 후대 사람들이라고 했다.

신뢰할만한 기록은 사마천의 『사기』 하거서와 동진 시대의 사천지방지 『화양국지』에 남아 있지만 일반적인 내용의 단문이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는 그를 만날 수 있다. 강심의 어취 앞에 서면, 2천여 년 전에 죽은 그가 여전히 살아 물의 흐름을 지휘하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이쪽으로, 자네는 저쪽으로”. 역사 속 어떤 이도 이처럼 장수한 이는 없었다.

저명한 중국의 역사학자 위치우위(余秋雨)는, 중국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건축물은 만



그림-10 1970년대에 출토된 이방의 석상 큰 언적을 남긴 데 반해 정도가 많지 않은 이방 석상은 높이가 2.9미터이며, 양 소매 자락과 그 중간에 글자를 새겨 놓았다. 중간에는 “故魏郡府君諱冰”이라고 새겼다. 지금부터 800여 년 전에 만든 것이다.



그림-12 옥루산 사면에서 본 도강언 정경 그림의 오른쪽 폭어 심루 방향이며 아래쪽이 내강, 위쪽이 외강이다. 중앙의 긴 섬이 금강제인데 오른쪽 사각 부분의 어취와 왼쪽 발단부의 비사언이 뚜렷이 보인다.

리장성이 아니라 도강언이라고 했다. 도강언의 외관상 규모가 만리장성처럼 거대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천년의 복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성이 드넓은 공간을 차지했다고 말한다면 이곳은 아득한 시간을 차지했다고 말할 수 있다. 만리장성은 이미 그 사회적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되었지만 이곳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민중을 위해 맑은 물을 보내주고 있다. 이곳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뭄과 정미가 끝일 새 없던 사천 평원은 천혜의 조건을 가진 땅이 될 수 있었다.

중국민족에게 극심한 재난이 닥쳐올 때마다 이곳은 안온하게 민족을 보호하고 포근하게 적셔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과장됨이 없이 이곳은 영원히 중국 민족에게 생명의 물을 대어 주는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곳이 존재했기 때문에 제갈량과 유비의 지략이 꽃필 수 있었고 이백과 두보의 시문이 존재할 수 있었다. 시기적으로 가깝게는 이곳으로 인해 중국이 항일전쟁의 와중에서도 안정된 후방을 지닐 수 있었다.

이곳의 물줄기는 만리장성같이 화려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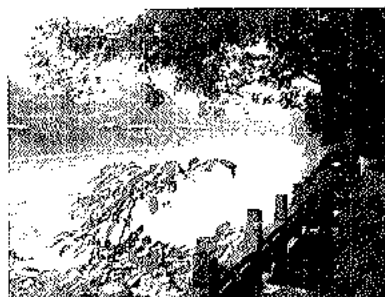


그림-11 보병구를 지나 새치개 오른쪽은 내강 북쪽관에서 찍은 사진으로 하류 쪽에 지붕이 있는 남궁가 보인다. 보병구 부근의 수교 최소 폭은 약 7미터 정도이다. 경치가 좋은데 시원하기까지 해서 지친 몸을 쉬는데 안성맞춤이었다.

않지만 축축이 대지를 적시고 살며시 땅 속으로 스며들어 끝없이 이어진다. 따라서 그 길이로 보면 결코 만리장성보다 짧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이어진다. 만리장성의 문명이 딱딱하기 이를 데 없는 조소(樵歌)라고 한다면, 이곳 도강언의 문명은 살아 숨쉬는 생활 그 자체이다.

만리장성은 마치 오래된 자격증을 내걸고 사람들의 수리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데, 이곳은 구석 한 모퉁이에 자리 잡아 마치 전혀 빛나지 않고 아무 것도 바라는 것이 없는 고향의 어머니처럼 그저 무엇인가를 베풀기만 할 뿐이다. 이곳이 바로 도강언이다.

자연의 법칙에 대한 해박한 지식, 물리적 원리를 응용하여 완벽한 수리시설을 만든 공학적 능력, 자연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강인한 도전정신, 목민관으로서의 신념.

귀국한 후 한참까지 이방은 필자 주위를 서성거렸다. 새벽녘, 불모의 땅을 바라보며 한숨 토하는 이방의 모습이 눈에 어른거렸다.

필자 댁에는 눈 넓힌다고 이곳저곳을 다녀 보았지만 어떤 건축물, 어떤 구조물에서도 이처럼 가슴 뛰는 경이로움을 맛보지는 못했다. 얼굴도 모르는 한 인간에게 이만한 찬사를 보낸 적은 더더욱 없었다.

소중한 경험이었다. 짧았지만 긴 여행이었다.

누가 필자에게 ‘한 인간의 열정이 역사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나는 서슴없이 답할 것이다.

‘도강언에 올라 이방을 보라’ 圖

김 영 수
(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by Kim Young-Soo

지방 분권화 시대 - 협회의 체제변화와 그 성장동력

The era of decentralization - the
structural change of our association
and its growth power

개혁의 물결과 지방분권화 시대

도도한 물결처럼 시대의 흐름 또한 거역할 수 없다. 나의 사고와 의지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같이 가거나 따라서라도 가야하는 것이 순리다. 또한 통치의 논리에 있어서도 크게 다를 바 없는 것 같다. 정권마다 개혁, 개척하다보니 이제는 대세의 흐름이 되어 버렸고 와중에 지방 분권화를 외치고 나오니 대다수가 고개를 끄덕고덕 하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우리네 바쁜 성미들에 붙어 붙었다.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심리적 변화들이 우리사회 각 분야를 뒤흔들고 있는 것 또한 당연한 사실이다. 그럼 우리 건축사들은 어떤가? 예외일 수도 없고, 또 예외가 되어서는 더욱 안 될 말이다. 시대조류에 보다 민감한, 어쩌면 한발 앞서가는 직업인 건축사가 아닌가. 변화보다는 개혁을 그리고 점진적이기 보다는 급진적인 방법을 더 선호하는 사고의 소유자들이다. 한발 앞서 생각하고 한 걸음 앞서 살아가는 직업벽 때문인지도 모른다. 사회개혁에 대한 강한 불만은 자연히 협회체제의 변화와 새로운 구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지방분권화에 대한 강한 열망은 협회조직의 분할과 새로운 통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따라서 하루 빨리 대세를 따르고 그에 걸맞은 협회체제와 조직구성을 조기에 완성하지는 말이다. 절대절망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내년 정기총회 시에는 반드시 정관개정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설계·감리와 관련된 건축관련법의 일대혁신과 보수문제·업역확대 등 건축관련제도의 일대정비에도 협회의 조직력을 총동원하고 그 청사진을 동시에 밝혀야만 될 것이다.

연합회체제로 가고 부설기관들을 조직화하자

지난 10월 1일의 임시총회야말로 그동안 누적된 회원들의 불만과 새로운 협회의 물출변수가 얼마나 불신의 벽이 깊었던가를 단적으로 보여 주었다. 건축설계업의 퇴조 현상과 함께 사회불안·경기침체의 여파는 총회장의 분위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고, 급기야는 임기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회장의 불신임과 감사의 퇴임이라는 불상사까지 야기시키고 말았다. 과거 같으면 웅당 책임졌어야 할 이사 등 임원에 대한 질책은 커녕 정관의 정신에 위배된 시도회장의 이사선출까지 숫자의 논리를 앞세워 안전변을 위협하고 말았다. 전국건축사대회나 회관재건축 등 굵직한 협회 현안 문제들도 많았지만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끝내버린 총회였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는 노릇이기도 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최근의 협회총회를 지켜보면서 평소 생각해 왔던 연합회체제의 출범시기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하고 생각

해 보는 것이다. 방대한 본부체제의 효율적 운영 면에서도 그렇고, 16개 시·도건축사회의 자율적 업무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지방분권화의 시대정신에도 맞고 협회의 구조조정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최근의 총회동향에서도 확인된 셈이다. 사실상이 연합회 체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협회 내에서 연구·검토한 문헌들이다. 다만 아직도 중앙집권체제인 정부조직 하에서 우리가 연합회체제로 앞서 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을 감안해서 그 실행을 미뤄왔을 따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회 시행에 앞서 서울지분문제 등 다른 현안문제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집권적 정부형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물론 안 된다. 동시에 협회에 성장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구조조정을 병행하지 않고서는 또한 생각할 수도 없다. 그것은 다른 아닌 사무처의 일대개편을 통해 그 기능과 역할을 대신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설기관들을 곧바로 조직화하자는 말이다.

이제는 건축연구소·연수원·정보센터를 본격 가동시키자

우리협회 본부의 기능은 사실상 사무처가 담당하고 있다. 이 사무처를 축소 조정하여 대부분의 인력을 부설기관으로 나누어 투입하자는 안이다. 조정된 최소의 인원이 연합회 업무를 관장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무처리인력들은 그 전문성에 따라 부설기관 업무에 분산 배치하자는 내용이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연합회로 가더라도 바로 그 연합회가 현재의 협회 본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다.

솔직히 말해서 연구와 연수 없이 생업을 유지한다는 그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급변하는 디지털시대에 정보센터 하나 제대로 갖지 못한 전문단체가 발전 운운한다는 그 자체가 연목구어나 다름없다. 우리협회가 21세기의 개막을 앞두고 97~98년도에 출범한 건축연구소와 건축연수원이 문을 닫고 있고, 가엾게도 건축정보센터까지 명맥을 유지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물론이고 건설교통부와 행정쇄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와 철석같이 약속한 사안들이다. 재벌사를 비롯한 건설업체들이 건축사를 고용하여 설계·감리업까지 진출하려고 할 때 3개의 부설기관설립을 전제로 빅딜(?)한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

다. 지금 와서 어느 누구를 탓할 수는 없지만 예산을 핑계 삼아 우리협회의 성장 동력을 막아버린 일은 건축사연금제도를 갸낸 것보다 더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제라도 다시 출발하자. 건축사가 전문직 가운데서도 건강보험료 연체율 1위라는 최악의 생업적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이다. 연합회 출범과 때맞추어 새로이 문들을 열고 우리의 직업과 위상에 걸맞게 연구하고 연수하면서 우리의 앞길을 명확하게 이끌어 나가보자. 사회가 혼돈에 빠졌을 때, 특히 건축이 난관에 부딪혔을 때 우리 개개인의 주머니는 힘들지라도 우리 단체의 공동기금은 우리와 우리 후배들을 위해 재투자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지금의 어려운 여건을 헤쳐 나가는 방법을 찾고 또 강구해야 한다. 건축과 건축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끊임없이 법과 제도를 연구하고 개발해 나가야 한다. 바로 건축연구소가 해야 할 과제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을 두고 새로운 사조와 신 기법들을 익혀나가면서 업무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 설계현안과 감리과제 등 사무소 경영 문제들도 연수를 통해 토론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기술자 법정연수, 라이선스 인증교육과 일반인 교양 강좌 등 할 일들이 태산과도 같다. 모두 건축연수원이 담당해 나가야 할 업무들이다. 건축정보센터,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다. 건축사 업무 전반에 대한 전산화는 지금 당장뿐만 아니라 내일까지도 틀림없이 우리의 직업을 대신해 줄 것이다. 데이터베이스, 설계도서 표준화 그리고 디지털 출력에 이르기까지 바로 우리의 생업과 직결된 기구가 바로 정보센터다.

이 지경에 와서 무슨 이유와 변명도 더 이상은 필요 없다. 건축사와 협회의 시황을 걸어야 할 중대사다. 회비 없는 자립협회의 수익모델 창출을 위해서라는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도 그렇고, 체제변화에 따른 성장 동력으로서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들이 아닐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도 그렇다.

더 이상 방관과 지체는 안 된다. 재촉하고 꼭 행동에 옮겨야 한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건축사의 몸과 마음은 편치가 않다. 우리만이 예외인 것도 아니지만 스스로 몸부림치고 일어설 수밖에 없다. 회원들은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협회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전제되는 한 죽기살기식이 되지 않고서는 이루지 못 할 수도 있다. 회장 한사람의 협회가 아닌 것처럼 임원들만의 것도 아니다. 이제는 회원모두가 나서야 할 때가 드디어 온 것이다. 개인적인 모든 요구사항들을 묶어 협회의 조직부터 먼저 활성화하고, 그 튼튼한 기반위에서 협회의 발전방향을 찾고 또 그 성장 동력을 적극 가동시킨다면 우리의 직업적 미래는 틀림없이 보장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 때의 그 책임은 협회와 집행부의 몫만은 아닐 것이며, 자부심과 사명감조차 망각한 회원의 더 큰 책임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절박한 위기감에서 드리는 마지막 총언일 수도 있음을 좌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그야말로 행동하는 지성의 대표적 인물들이 바로 우리 건축사임을 확실하게 보여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할 뿐이다. 어제의 건축사가 아닌 오늘의 우리 건축사임을 잔솔하게 펼쳐 보여야 하고, 어제의 협회가 아닌 오늘의 우리 협회임을 국명하게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다. 말이 많으면 거짓말도 많고 변명도 따라오게 마련이다. 오로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고 또 반드시 그 결과까지 확인하는 철저함이 대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말 땀땀하게 살아온 건축사였고, 당당하게 행동해온 건축사협회였다. 이 정도에 절망하고 이만큼에 주저 않는 우리의 모습을 그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 주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민에게도 그리고 후진과 가족들에게지도 마찬가지다. 지체하는 몇 백배 만큼 그 고통은 더욱 누적될 것이며, 행동하는 수백 배만큼 그 희열은 보다 앞당겨질 것이다. 협회의 맨 앞에서 희생과 봉사를 맹세해온 회장과 임원들은 이번의 위기극복에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며, 협회의 뒤에서 참여와 협조를 약속해온 대의원들과 전국의 회원들은 금번의 성장 동력에 단 일초도 지체함이 없이 발동을 걸어 주어야만 할 것이다.

서울과 지방, 수도권과 충청권이 우리에게까지 발목을 잡을 수는 없다. 이제 우리건축사 모두가 하나 되어 사고를 행동으로 바꾸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밖에 없다. 체제변화에 우리의 직업이 걸려있고 성장 동력에 우리의 생업이 달려있음을 재확인하고 그리고 또 실천하자. 시간은 잡는 사람의 것이고, 실패는 놓치는 사람의 것이다. ■

김 운 태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에이그룹 이사
by Kim Woon-Tae

어떤 건축사가 될 것인가? What kind of architect will you be?

얼마 전 업무관련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다. 출장지 독일은 개인적으로 세 번째 방문하는 것이어서 그런지 그리 낯설지 않은 여행이었다. 처음 독일에 가본 것이 1992년이었고 2001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가보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동안의 방문과는 달리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다. 12일간의 출장기간동안 몇 명의 독일 건축사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고, 대화를 나눌 기회(물론 누군가의 도움은 받았지만)도 있었다. 외국유학을 경험하지 않은 나로서는 외국의 건축사를 직접 만날 기회가 없었으며, 그동안 책이나 잡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하는 정도였다.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최근 몇 년간 필자의 관심사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다.

항상 "어떤 건축사가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며 살지만 정확한 답을 찾아내기란 쉽지가 않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 중에 이런 것이 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필자와 피부색도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도 틀린, 외국에서 건축사로 살아가는 필자 또래의 건축사들은 어떨까. 이번 출장에서 조금이나마 그 의문을 나름대로 풀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독일에서 만난 그들은 아주 진지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필자 혼자 느낄 수도 있지만 그들의 태도는 매우 열정적이었다(건축에 대해), 친절했으며, 건축사로서 자부심 내지는 자신감이 넘쳐나고 있었다. "나도 그들에게 그렇게 보여질까"라고 생각해보면 자신이 없어진다. 상황이 정반대였

다고 가정하고 필자를 평가해 보면, 필자도 그들에게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었을지 의문이 간다. 아마 똑같이 대학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비슷한 기간동안 건축실무를 했을 것이며, 건축사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내와 아이를 가진 가장일 것이다.

지금도 필자와 비슷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을 듯한데, 어떤 차이를 느끼는 건 아마도 필자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과 필자는 대학교육에서 건축에 대해 교육받은 것과 공부한 내용이 조금 틀릴 것이라는 것과 졸업 후 건축실무과정에서 겪은 경험이 다를 것이라는 생각은 지을 수가 없다. 또한 어떤 유형의 건축사들과 건축실무과정을 겪었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건축을 선택하여 대학을 졸업할 때만 해도 사실 어떤 건축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 많은 고민을 해보질 않았다. 단지 열심히 노력하면, 선배들이 하는 만큼만 하면, 또래들보다 더 잘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만이 있었고, 건축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질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실무경력이 쌓이면서 건축사면허도 갖게 되고, 회사에서도 중책을 맡게 되었으며, 아울러 클라이언트를 직접 만날 기회도 생기고, 관공서를 드나드는 일도 찾아지게 되면서 고민거리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여러 유형의 건축사 중 필자는 어떤 건축사가 되길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곤 한다.

지난해 『ARCHITECT? : A Candid Guide to the Profession』 디자인으로 자라기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축사의 여러 가지 유형을 예로 들고 있다.

- 디자이너로서의 재능을 타고난 건축사 (운명적으로 건축사가 될 사람)
- 엘리트 건축사(개인적인 목표와 직업적인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는 환경에

서 태어난)

- 건축예술가(사회적인 배경이나 타고난 재능과 지성이 아니라 행동방식에 의해 규정되는)
- 프리마돈나형 건축사(스스로의 평가로 자신을 받들며 존경한다.)
- 창조적인 공상가(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실현시키는)
- 실용적이며 현실적인 건축사(환상보다 현실을 선호하는 '일이 되게 하는 사람들')
- 실무 중심의 건축사(건물을 세우는 방법을 아는-즉 디테일 디자인, 자재, 시공방식, 시공과정에 관해 지식이 있는-건축사)
-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건축사
- 끈기 있게 일하는 사람들
- 경영인 또는 기업가
- 르네상스 건축사(예술가이자, 시인, 엔지니어, 사회학자, 경영인, 외교관)

이 책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건축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아마 위에서 나열한 여러 건축사의 유형 중 '르네상스 건축사'가 되기를 갈망할 것이다. 다양한 재능과 기술,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로서의 건축사가 되기를.

오늘날의 건축사에게는 복잡성, 불확실성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능력과 다양한 학문들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이상적인 건축사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모여 사회를 구성하고 있듯이 건축사도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각자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것이다. 다만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공동직업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르네상스 건축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건축을 공부하고 사회에 나와 건축사로

직업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은 건축을 하는 이들은 공감할 것이다. 늘 공부해야 하고 갖추어야 할 지식은 많다. 그러나 경제적 현실은 그리 밝지 않다. 하지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축사를 직업으로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간다. 그만큼 매력적인 직업이며, 사회에 작·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직업이기 때문이리라. 늘 미래를 생각하며 보다 풍요로운 환경을 창조하는 과정의 한복판에 서있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직업이 그리 흔치는 않을 것이다. 건축사는 엔지니어, 시공자, 사회학자, 개발업자와는 분명히 다르다. 훌륭한 건축을 창조하고 훌륭한 도시를 창조하는 그런 직업인 것이다.

'어떤 건축사가 될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만들어준 독일에서 만난 젊은 건축사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누군가가 필자에게 어떤 건축사가 되길 원하느냐고 묻는다면 '르네상스 건축사'가 되길 원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평생 그렇게 되지 않을 지라도... 

민 창 기
평택대학교 도시계획과 교수
by Min Chang-Kae

건축계획을 위한 도시시스템의 이해

An Understanding of Urban System for Architectural Plan

근대 도시조성 원리인 나무구조(tree structure) 이론과는 다른 시각에서 크리스토퍼 알렉산더(1965)는 건축과 도시의 관계성을 설명하면서 공간 간의 연계와 중첩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최근 제인 제콧스는 도시의 획일적인 가로구조와 가로 건물형태, 가로와 단절된 오픈스페이스의 조성 등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혼합용도에 의한 가로 공간의 개발, 보차 공존도로의 조성 등이 도시를 살리는 길이라면서 도시와 건축의 사회적 역할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들 도시설계가의 도시와 건축의 연계성에 대한 논의를 배경으로, 필자는 건축사의 건축 계획 시에 알아야 할 도시공간패턴과 도시순환체계 등의 도시시스템이 건축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도시 공간 패턴과 건축계획

토지이용패턴: 건축사는 도시의 토지이용 패턴을 고려하여 건축계획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도시의 토지이용은 지역·지구제도에 의하여 조정되는데 이는 건축물 계획의 근간이 된다. 건물은 한 지역·지구 내에서 건축하여서는 아니되는 불허용도, 건축을 권장하는 권장용도로 구분됨을 이해하고, 특정 내용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지역·지구에서 통제하는 용적율, 건폐율, 건물높이 등을 고려하여 건축계획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토지이용의 내용에 따라 당해 건물의 계획에 좋은 혹은 나쁜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발견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토지의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매연, 소음, 냄새, 쓰레기 등의 부정적 요인의 위치와 파급 정도를 분석하여 이에 대처하도록 건축물을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당해 건물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에 일조권, 미기후의 발생, 심리적 압박감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도 알아 지혜롭게 대처하여야 한다.

가로패턴: 가로(街道)의 패턴은 건물의 이용과 형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첫째, 가로는 사회적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로써 건물의 이용과 연결

되어 있다.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가로에 접하여 있는 건축물은 영향을 받아서 더불어 활발한 동선이 창출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거꾸로 건물의 활동 동선이 강하면 가로의 활발한 이용을 창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둘째, 도로와 건물은 건물의 높이, 크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물의 사선 제한을 차치하고라도 도로의 폭에 따라 건물의 규모(Mass)가 결정되기도 한다. 셋째, 건축물은 도로에 따라 차량 및 보행자 진입구가 결정될 수 있다. 대로변 보다 는 중로 또는 소로 변에 진입구가 생성되는 것은 진입구를 보호하고 대로의 교통 흐름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가구패턴 : 가구(Districts)의 패턴은 개개 건물의 크기와 높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가구의 패턴에 따라 개개의 건물의 높이를 결정하게 된다. 가구 전체의 건물 높이 개념에 따라 당해 건물의 높이를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하면 가구 내 건물에 대한 패턴이 생성되어 도시의 실루엣이 살아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가구의 패턴은 가구의 진입구에서 또는 동서남북 여러 방향에서의 조망이 어떠한가를 꼼꼼히 살펴보고 가구의 패턴을 발견한 다음 당해 건물의 높이계획에 임하여야 한다. 경제적 이유에 의하여 건물의 형태가 결정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조형적인 면도 고려하여 주변 가구와도 조화를 이루도록 가구패턴과 건물의 형태 및 높이를 결정하여야 함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가로와 대지와의 관계 : 건물의 형태와 방향성을 정할 때에 가로에서 보행자의 시선에 대한 고려를 잊지 말아야 한다. 첫째, 우리나라 가로에 접하는 필지는 정형이 아닌 경우가 허다하다. 부정형한 대지는 부정형한 모양의 건물을 만들어내고 가로로부터 질서 정연한 건물의 화사드를 창출하기가 쉽지 않다. 소유주가 동일인이어서 대지의 합병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로에서 보행자의 활동과 시선을 고려하여 건축

지정선,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벽면한계선을 지정하여 건물의 배치를 통제하기도 한다. 건축지정선은 건축물의 외벽을 가지런하여 건물로 인한 연속적인 가로 형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축한계선은 가로로부터 보행자의 시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계선 이후로 건물을 배치하기 위하여 설치된다. 벽면의 정확한 지정으로 공간의 의미를 더욱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벽면지정선과 벽면한계선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지정선과 한계선 내에서 건물을 계획하여야 함이 계획가의 지켜야 할 사항이다.

도시 순환체계와 건축계획

가로망체계/ 보행체계 : 도로망의 체계와 보행 체계는 건물의 모양을 통제한다. 도시 속에서 도로망과 보행 체계는 가구와 획지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가구는 폭 30m 이상의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에 의하여 분할되어 도시의 주요 골격을 형성한다. 대가구는 폭 20~30m의 주간선도로를 보조하는 보조간선도로에 의하여 형성되며, 200~300m x 400~800m 규모로 도시 건물 높이 등 형태의 중추적 근간이 된다. 중가구는 10~20m의 단지 내 교통망을 소회해내는 집산도로에 의하여 구획되어지며, 60~80m x 120~200m 규모로 가구의 중심부분의 건물 형상을 이룬다. 소가구는 10m 이하의 내부 접근을 목적으로 하는 국지도로에 의하여 구축되며, 30~60m x 100~150m 규모로 단지내부의 건물의 형상을 통제하기도 한다. 가구에 의하여 생겨나는 거리는 차량 통행과 보행자 통행을 위하여 사용되는데, 보행자의 보행에 가구의 길이가 길 경우는 중간에 보행자 도로가 생길 수도 있다.

획지는 동질적인 것을 구축하는 도로로 둘러싸인 개념을 말하며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다. 획지를 구축할 때에는 대지의 입지 상태, 건물의 유형, 전면도로의

특성을 고려하기도 하고 토지의 이용효율과 계획밀도를 고려하기도 하며, 일조 통풍 등의 생활환경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가구와 획지 속에서 건물의 방향성은 차량과 보행자의 진행 방향을 유도하기도 한다. 차량이 회전할 필요가 있을 때는 건물이 회전하는 도로 변을 막아서 시각적으로 회전하여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운전자에게 주게 된다. 또한 보행자의 행보를 유도하기 위하여 건물의 형상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오픈 스페이스 체계 : 공공 공간은 공개공지와 공개공간, 건축물안의 공간까지 다양하며 이들 공간은 건물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 건축선의 설치를 이용한 대지 내 공지는 휴식공간의 확보와 전면 공지의 확보로 쾌적한 보행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또 가구와 획지 간에 자동차 동선 체계와 보행체계의 확립이 어려운 경우 또는 외부 공간 질의 향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조경으로 인한 외부 공간의 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때에 또는 대형 건물로 인하여 운집하는 이용자의 휴게 공간의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기도 한다.

대지내 공지의 설치는 가구 및 획지의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건물의 피로티, 화랑 등으로 연결되기도 하며 건물의 전면부에 설치함이 바람직하다. 보행환경의 제고를 위하여 설치되는 공지는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통로, 대지내 조정, 보차혼용도로로 그들의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들 공지가 녹지공간 체계 및 보행로 체계와 연결되도록 하는 지제도 필요하다.

건축사의 도시 시스템 이해 : 건축사는 건물의 배치 및 형상을 계획할 때 주변의 토지이용, 가로 형태, 가구 계획, 도로와 대지 간의 관계 등 도시 공간체계를 이해하고 계획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가로망 및 보행 체계와 오픈 스페이스의 체계를 이해하고 이를 연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건물을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고 호 석
(주)지승구조건설
by Go Hyo-Suk

리모델링을 위한 최신 지반보강 및 침하구조물 복원공법

The state-of-the-art methods of
construction in foundation
reinforcement and a subsidence
structure for remodeling

최근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진정시키고자 정부의 각종 규제 조치가 잇따르고, 건축관련 각종 계획들이 수정 또는 폐기됨은 물론 건설경기의 급락과 함께 전반적인 경기 하락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관련업계에서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대안모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으나 리모델링 시장에 있어서 단순히 내·외부의 마감재, 설비재 등의 교체만으로는 일반 건축주들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없기에 대부분 허가 범위 내에서 면적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이의 1차적인 방법으로 건물의 수직·수평 증축을 꼽을 수 있다.

건축물 증축시에는 구조물의 안전성검토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며, 증축으로 인해 증가된 하중을 기존 기초구조물이 수용하지 못하는 점 또는 지내력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반 보강방법을 강구하게 되나 일반 지반보강공법의 경우 대형 토목장비의 내부 반입에 어려움이 있어 시공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일부 구조물의 손상·파괴, 과대한 공사비용 및 공사지연 등에 의해 리모델링 계획 자체가 초기단계에서 좌절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최신공법(JOG공법)은 기존 지반보강의 인식을 뛰어넘는 한차원 높은 기술적 해결방안과 기존의 지반보강공법 또는 선진외국의 유사기술과 비교검토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후에야 국내에 서서히 안착될 수 있었다.

리모델링 대상 구조물에 적용할 수 있는 최신 지반보강공법에 대해 대부분의 설계자 또는 수요자들이 관련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있어 본란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내용 및 특성

이 공법의 두드러진 특징은 보이지 않는 땅속에 주입되는 지반보강용 그라우트 재료의 주입범위(보강범위)를 정확하게 통제·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입재료의 경화시간을 수초에서 수십초로 자유롭게 조절함으로써 지반내 주입범위를 제어할 수 있다. 주입재료는 일반 포틀랜드시멘트와 특수한 폴리머계 재료 등(6종류)이 복잡한 혼합 비율에 의해 배합·주입되며 공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장비의 소형·첨단화로 시공현장 접근 용이 (지하층 및 PIT층 등 협소부위)
- 무진동, 무분진, 무소음 등으로 시공 중 시설물 사용가능
- 시공 중 주변 구조물 파해에 의한 민원 발생 없음
- 공사기간 단축으로 시공비용 저감
- 오랜 세월 후에도 언제든지 재주입 등 유지 관리 가능
- 공법의 다양한 응용 가능(침하구조물 복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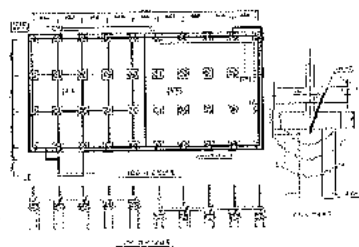
리모델링 현장에서의 시공사례

1. KEC JAPAN 공장 증축에 따른 지반보강

- ① 증축규모 : 기존 2층에서 4층으로 증축



건물전경



시공도면

- ② 지반조건 : 실트질 점토

- ③ 기초형식 : 파일기초(독립기초)

- ④ 시공범위 : 바닥면적 전체

- ⑤ 내용 : 기존 파일기초를 손상시키지 않고 부족한 지 내력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만이 적용 가능함으로써 초기에 마이크로파일 등 여러 공법을 검토했으나 비용, 시간, 피트층 등의 문제로 여타 공법을 선정하기 매우 어려웠던 상황에서 이 공법을 채택하여 공사실시.

2. 00대학교 도서관 증축에 따른 지반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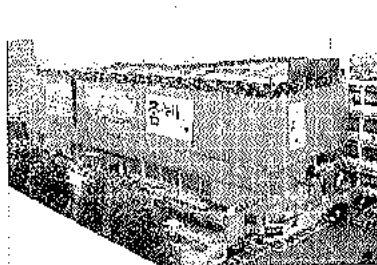
- ① 증축규모 :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증축

- ② 지반조건 : 매립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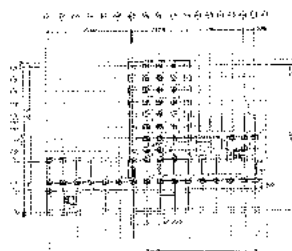
- ③ 기초형식 : 독립기초(내림기초 : 기초 깊이 각각 상이)

- ④ 시공범위 : 기둥(독립기초) 50개소

- ⑤ 내용 : 약 40년 가량 경과된 건물로써 주변 도면이 없는 상태였으며, 지내력 보강이 필요한 기초를 보강하고자 할 때 소요되는 비용, 시간 및 현장 여건 상 기존방법 적용이 부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어 사업체에게 상당히 지연된 상황에서 이 공법이 소개되어 발주처 실의를 통해 채택.



건물전경



시공도면

3. 철도청 통합 사령실 지반 보강

- ① 사유 : 설계변경에 의한 사용하중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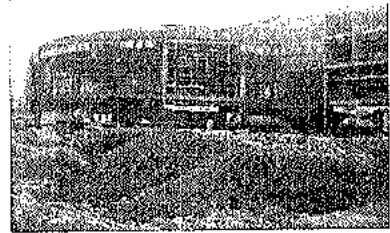
- ② 지반조건 : 실트질 연약지반

- ③ 기초형식 : 파일기초(MAT 기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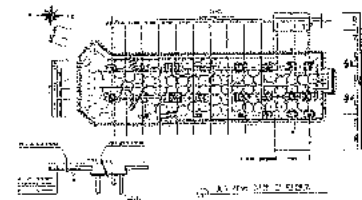
- ④ 시공범위 : 75m x 25m

- ⑤ 내용 : 신축공사 중 설계 변경에 따른 하중 증가로

지반 보강이 필수적이었으나 기존 파일의 손상없이 시행할 수 있는 공법선택이 불가하여 약 2개월 간 현상이 중단된 상태에서 해당공법이 제출되어 철도청 본청 심의 후 채택.



건물전경



시공도면

4. 시흥시 정왕동 00빌딩 지반보강 및 복원공사

- ① 규모 : 지상5층 근강건물 2개동

- ② 지반조건 : 점토질 연약지반

- ③ 기초형식 : MAT 기초

- ④ 시공범위 : 침하건물을 2개동

- ⑤ 내용 : 연약지반에 파일없이 시공된 건축물 2개동에 각각 부등침하(약 20cm)현상이 발생되어 지붕 층이 맞닿아 있는 상태였으며, 하루 2mm 가량의 침하가 진행되는 상태에서 지반보강 및 복원공사를 실시하였음.



(시공 전 / 옥상층 일착)

(시공 후 / 균등간격 이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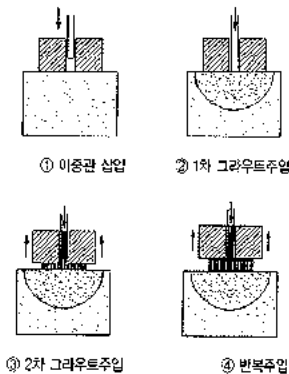


(시공 전 / 옥상층 일착)

(시공 후 / 옥상층 이격)

원리 및 시공 순서

1. 원리



1) 1차 그라우트 주입 : 지반보강

기초판을 관통하여 주입관을 설치한 후 지반보강을 위해 중결성 그라우트재(M-GROUT)를 주입한다. 중결성 그라우트재는 주입관에서 분출된 후 30~90초 이내에 경화(GEL化)되어 유동성을 상실하게 된다.

각 주입구별로 중결성 그라우트재를 반복 주입하면 주입된 그라우트재는 주입관으로부터 직경 2~3m 이내로 할렐·침투·압밀 주입되어 상부하중을 지지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보강이 이루어지게 되며, 더 이상 자재가 주입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주입될 경우 주입압력이 상승하고, 구조물에 일부 변위현상이 나타난다. 압력 상승 및 계측기를 통해 구조물의 거동이 확인될 경우 1차 그라우트 주입(지반보강작업)을 완료한다.

2) 2차 그라우트 주입 : 구조물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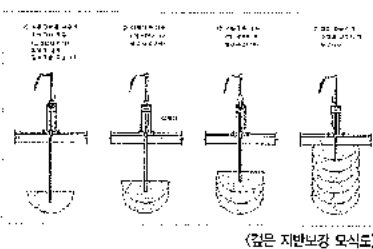
M-GROUT재의 주입으로 더 이상 주입재가 투입될 수 없을 정도로 지반이 보강되었음이 확인되었을 경우 보강된 지반과 기초판 사이에 급결성 그라우트재(S-GROUT, GEL TIME 1~3초)를 주입한다. 급결성 그라우트재는 주입관에서 분출된 후 1~3초 이내에 경화되기 때문에 주입재의 분출압력에 의해 상승된 구조물과 지반사이에 그라우트재의 얇은 점막을 형성하게 된다. 1회 주입시 형성되는 점막은 약 0.1~0.3mm 이내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탄성변형 이내의 변위를 주게 되므로 균열

등의 손상없이 구조물을 복원시킬 수 있다.

3) 위 1), 2)항의 주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 먼저 주입되어 지반에 할렐침투한 고결체 및 호모겔이 강도발현 도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주입된 재료들이 먼저 주입된 재료들 사이로 침투된다. 침투한 그라우트는 구속영역 밖으로 퍼져나가려 하지만 재료의 겔타임에 의해 유동성을 상실하여 재료의 압력이 얇은 원반형상의 액층 상하로 넓게 전파된다. 이 압력을 액상폐기력이라 하며, 이를 물리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지반을 보강 또는 구조물을 복원시키는 것이 JOG공법의 기본적 메카니즘이다.

4) 지반보강 또는 구조물 복원을 위해 기초구조물 일부분에 막대한 힘을 가하여 내부 응력의 균형이 깨지면 기초는 강성을 잃고 파괴되기 때문에 기초의 강성을 고려하여 복수의 포인트에 힘을 가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주입조작을 순차·전환하는 인터벌 주입방법을 이용함으로써 구조체에 불균형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이 가능하게 된다.

5) 지반보강공사 범위는 일반적으로 구조물 기초저면 1m 이내에서 실시하고, 기초 저면의 지반이 연약지반일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깊은 지반에 대한 보강공사를 실시한다.



2. 시공순서

(1) 플랜트 설치

약 20~30m²의 용지를 확보하여 배합장치와 약액펌프 등의 플랜트를 설치한다.

(2) 천공 및 주입관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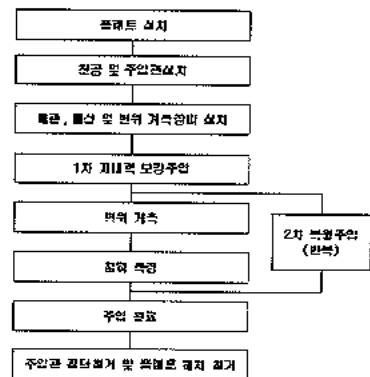
φ40mm 내외의 구경으로 일정 깊이까지 천공한 후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주입관을 설치한다.

(3) 변위계측장비 설치

작업장 내·외부에 레벨을 설치하여 주입 시작 전·중·후의 각 측정 포인트의 레벨값을 측정한다.

(4) 주입 작업

중앙 제어장치에 각 포인트의 주입량을 설정하고 지반보강을 위한 주입을 실시한다. 토질에 따라 중결 및 급결 그라우트를 반복 주입하여 점지압의 균동화를 도모한다. 반력형성으로 인하여 구조물의 거동이 감지되면 각 포인트의 주입량을 정밀하게 제어하며, 보강 또는 복원 목표치에 다다를 때까지 인터벌 주입을 반복 시행한다.



(사공 요령도)

결언

최근까지 건축물의 유지관리 분야에서 재료 및 보수·보강기술의 꾸준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존 구조물의 기초지반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또는 효율적인 보강방안 개발은 극히 미진한 상태였다.

본문에 소개된 지반보강공법은 기존 구조물의 라모델링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성, 시공성, 현장접근성, 사용성 등의 측면에서 여타 공법에 비해 상당한 진전을 가져온 공법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동안 대안을 찾을 수 없어 해결하지 못했던 건축사들의 고충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더욱 광범위한 문제점을 해소시킬 수 있고, 건설관련 시장의 새로운 활로를 열 수 있는 신기술 개발 및 출현을 기대한다. □

네덜란드의 근대집합주택-04

Dutch Modern Housings

원제 : Housing in The Netherlands 1900-1940

어느 나라보다 공동체 인식의 바탕에 형성된 네덜란드 집합주택은 엄격한 가톨릭 정신과 자연을 극복해야만 하는 절박한 운명이 네덜란드인을 하나로 묶으면서 동시에 집합주택이 도시미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네덜란드인의 기본정신 위에 발전된 집합주택은 이념을 달리 하는 다양한 건축운동, 건축가의 의지와 실험정신 그리고 예술가와 건축가의 협력 등이 모태가 되어 생성되었다. 역사가 몇 번에 걸쳐 연재할 호린베르흐(Donald I. Grinberg)의 저서, 'Housing in The Netherlands 1900~1940' (Delft University Press/1982)을 통하여, 네덜란드 근대집합주택을 '근대'라는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시점만이 아닌 도시미와 커뮤니티 그리고 선단적인 집합주거 공간을 파악하는 주요한 단서로서 기대하고자 한다. <역자 주>

01_역지서문/첫머리에/산업혁명 이전의 주거상황/산업화와 도시화

02_1900년 이전의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03_1902년에 제정된 주택법/카미로 자테의 영향

04_건축사의 새로운 역할

05_전원도시의 전통

06_집합성과 공유공간

07_표준화

08_이데오그램(목적과 수단)/공간의 새로운 개념

09_공간의 개방성/고층화/결론

※ 저자 호린베르흐(Donald I. Grinberg)는 미국인으로 하버드대학 대학원을 마치고, 네덜란드로 건너가 델프트 공과대학 건축학부에서 연구하였다. 부인이 네덜란드인으로 자료를 모으거나 분석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 호린베르흐 자신도 농숙하게 네덜란드어를 구사하게 되어, 네덜란드 체재 5년간의 연구 결과로 출판된 것이 'Housing in The Netherlands 1900-1940'이다.

※ 역자 최재석은 1982년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요코하미국립대학 대학원 건축학석사 졸업 후 경원대, 육원대, 경주대 건축학과 강사를 거쳐 현재 한라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 전공은 건축 설계·의상·으로, 특히 네덜란드 근대건축운동 중 '더 스타일(De Stijl)' 운동과 관련한 조형사상 및 세 채설함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대한건축학회·한국 건축역사학회·일본건축학회 등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함. 건축사(1997)저작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저서로 '네덜란드 근대건축', '원주 근대건축', '더 스타일의 역사와 이념' 등이 있다.

건축사의 새로운 역할

일반적인 의미에서 20세기 초 몇 십 년은 사회에서 건축사의 역할과 관계에 대한 건축사 자신의 시점(視點)이 바뀌었다는 것은 건축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은 형태적, 공간적, 기술적 본질의 변화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집합주택에 대한 많은 네덜란드 건축사의 관심과 그 결과로 발생한 디자인은 보편적인 세계인식(the general world view)의 덕택이고, 이것 또한 형태의 상징적 언어(the formal symbolic language)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사회주의

네덜란드에는 오웬(Robert Owen)이나 모리스(William Morris)에 필적할 만한 인물이 없다. 모리스보다 앞서 간 건축사 켄퍼(Gottfried Semper)는 '건축사는 사회적 책임을 동반한 직업이어야 한다'라는 이념으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고 있었다.

네덜란드 건축사 중에서 특히, 베를라헤는 1875년부터 1878년까지 주리히 건축학교(현재는 '주리히 공과대학'을 말함-역주)에서 스타들러(Stadler)와 라지우스(Lasius)의 지도를 받았다. 이들은 켄퍼의 문하생들로 켄퍼가 1871년 주리히 건축학교를 떠난 이후에도 그의 이론을 성격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

베를라헤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었듯이 베를라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 켄퍼는 가끔 정치학(politics)을 강의에 포함시키고 자기 강의에서 예술가와 사회 그리고 미학과와 관계성을 다루었다.

켄퍼는 예술성의 저하(the low-standing position of the arts)가 사회의 불만족스러운 여건으로부터 초래된다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확신은 1848년에 발생한 파리혁명에 대한 그의 지지표명에 바탕을 두고 있다. 1905년 출판된 '양식에 관한 고찰'에서 베를라헤의 관점은 켄퍼의 직접적인 영향을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였다. 당시, 이들은 인간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위력을 절망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젊은 시절부터 사회를 변혁시킬 필요가 있다고 믿고 있던 베를라헤가 지향하는 사회는 통일되고 공동체적 문화에 참여하면서 평등한 사회에 봉사하는 예술가와 건축사를 인정하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모리스, 또한 베를라헤에게 의미심장한 영향을 주었다.

1903년 간행된 모리스의 저서 『예술과 사회』의 네덜란드어판에 베를라헤의 친구이자 클라이언트인 폴락(Heni Polak)이 모리스의 오래된 스케치를 첨부시켰다. 모리스의 영향은 베를라헤 뿐만아니라 도롭(Toorop)이나 뷔드벨드(Wijdeweld) 등의 건축사에게도 영향을 많이 주었다.

베를라헤 이념의 방향을 지지하는 사건은 1894년, 사회 민주노동당(SDAP)의 설립으로서 주목받게 되었다. 베를라헤는 그 밖의 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사회 민주노동당에 가입하였다.¹⁾ 베를라헤의 사회주의 이념은 그의 말년에 보다 강한 종교적, 윤리적 측면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932년 베를라헤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기독교,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주의는 하나의 동일한 사고에 3개의 다른 형태이다."²⁾

1918년, 윤리학, 사회주의, 문화 그리고 양식에 대한 베를라헤의 동시적 고찰에서 건축사는 그들 스스로 주택 문제와 관련시켜야만 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형성된 엄격한 도덕성을 이미 함유하고 있었다. 켄퍼에 대한 베를라헤의 개인적 해석은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는 정치를 초월한 것이다. 이것은 정신의 윤리적 상태이고, 문화가 되도록 하는 진화인 것이다. 그리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규범에 바탕을 둔 철학적 위치와 외의 어떠한 것도 아니며 시대양식을 동시에 형성하는 것이다.³⁾

베를라헤가 자주 강조한 '건축예술은 예외 없이 사회적인 예술이다'라고 하는 신념은⁴⁾ 1918년에 개최된 암스테르담 주택회의에서 미학적 원리의 독특한 접점을 발견하게 된다.

여기서, 베를라헤는 주택의 표준화를 제안하고 건축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건축사는 공동체 사회에 대한 진정한 봉사자(indeed servants of the community)라는 것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⁵⁾

일반적으로 베를라헤의 사회주의 이념과 특히, 위와 같은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언급은 베를라헤 자신의 실무 작업에서 보다 차세대 건축사들에게 보다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자주 언급되어 왔지만 네덜란드 사회주의 매력은 협동(cooperation)에

1) P. Singelenberg, H.P. Berlage (Utrecht, 1972), p.8. Gottfried Semper and His Influence (pp.8-22)의 장 전체를 참조. 여기서는 기술을 바탕으로 전개되었다.

2) Ger Harmsen, Historisch Overzicht van Socialisme en Arbeidersbeweging in Nederland, Part I (Nijmegen, no date), p.45.

3) H.P. Berlage, Bouwkunst en Socialisme, Socialisme, Kunst, Levensbeschouwing (Arnhem, 1932), p.56

4) Ibid., p.4.

5) H.P. Berlage, De Bouwkunst: als Maatschappelijke Kunst, Schoonheid in Samenleving (Rotterdam, 1919), p.92.

6) H.P. Berlage, Normalisatie in Woningbouw (Rotterdam, 1918), p.44.

대한 고도의 세련된 형태에 의존하여 국가의 역사적 욕구와 존재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듯이 베를라헤는 사회적 참여 건축사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렸다.

이와 같은 건축사의 사회적 인식에 대한 베를라헤의 사고는 로흐렘, 스담, 데르 겔바하의 사회적 비전뿐만 아니라 아우드, 다위꺼르 등의 건축사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베를라헤의 이런 철학적 위치는 네덜란드에서 현실적으로 실현을 보게 되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 이빙가르드 건축사의 상대적 고립과는 대조적으로 네덜란드에서는 베를라헤, 아우드, 듀독, 에이스페렌 그리고 그 밖의 많은 건축사가 직접 공무원으로서 혹은 이들을 대신하여 건축물의 설계 및 건설을 수행하였다.⁷⁾

지자체의 세력과 주(州)의 사회주의 이념은 건축사 개인의 재능과 함께 주택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예술가, 개인성 그리고 보편주의

사회참여에 대한 요구는, 특히 개인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제1차세계대전 중 네덜란드의 중립적 분위기에서 개인주의는 무질서한 세계를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로 인식하게 되었다.

베를라헤와 같은 예술이론가는 개인주의를 예술적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비난하였다. 1918년 '주택회의'가 개최된 직후에 베를라헤는 주택건축(housing)에서 건축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겸손할 것. (생략) 건축사는 그 자신의 개인적 예술을 사회에 강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calls upon you humility...; it calls upon you not to desire to press your art on the community.)⁸⁾

다음 해, 베를라헤는 그의 주요한 저서 중 하나인 「사회에 있어서의 미」(1919)를 집필 중에 있었다. 건축이 개인적인 예술(personal art)이 될 수 없다는 논쟁은⁹⁾ '더 스테일'의 이념과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더 스테일'은 많은 것을 베를라헤 건축의 사회적 사고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었다.

개인주의에 대한 억압은 '더 스테일'의 기본개념 중 하나로서 인식될 수 있다. 그리고 몽드리안과 두스부르흐에 의해서 형성된 이런 원리는 미학적 영향과 마찬가지로 심리적 영향도 고려하여 해석해야만 할 것이다. 1918년 11월 '더 스테일' 선언에서 "밝은 인식은 개인성과 관계하고, 새로운 의식은 보편성과 관계한다"¹⁰⁾ 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 내용은 두스부르흐가 이전에 작성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한 것이다.

"이런 개념과 초기의 예술 개념과의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의 하나는 새로운 예술에서 예술가의 성격이 이미 두드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¹¹⁾

몽드리안은 입체파(cubist), 순수파(purist) 그리고 구성주의 운동(constructionist movement)에서 볼 수 있는 보편적 자아(universal ego)를 시종일관 조리 있게 논하였다. 그는 양식의 기초가 '개인성을 초월한 보편성(universal over the individual)'의 표현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1926년까지 몽드리안은 이와 같은 견해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건축을 논하지는 못

하였다. 그러나 몽드리안의 이념을 반영한 일부 내용을 1918년의 논문에서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방식과 전혀 다른 형태로 주택을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에 외연적 자아(the external self ego)의 움직임을 피할 수 없었다. 우리의 물질적 환경이 순수미(pure beauty)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건전한 것이고 그리고 실제 필요한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이 때, 더 이상 우리의 미세한 개인성의 자기본위적 감정을 반영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확실한 시적(詩的) 표현이 아닌 순수한 이미지인 것이다.¹²⁾

이런 몽드리안의 관점은 베를라헤의 견해와 일치한다.

건축적 개인주의에 대한 맹신은 과거의 것에 속한다.¹³⁾

이런 언설은 윤리적 책임에 바탕을 둔 원리를 함축하고 있지만 실제 무엇이 개인주의를 부정하여 예술적, 건축적 생산을 대신하였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다. '더 스테일'이 신조형주의의 법칙(neo-plastic laws)의 상징주의적 적용으로 이런 의문이 어느 정도 해답을 얻었다고 보이지만 건축은 비 이론적인 레벨, 비체계적인 레벨에 관하여 진보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진보는 결코 비 상징적인 레벨은 아니다.

문화적 상징으로서의 주택

'더 스테일'의 폴레믹(polemic)으로 특징

7) Wolfgang Pehnt, Expressionist Architecture (London, 1973), p. 181.

8) H.P. Berlage, Normalisatie in Woningbouw, p.44.

9) H.P. Berlage, Schoonheid in Samenleving, p.94.

10) De Stijl, II, No. 1(November 1918), p.4.

11) Theo van Doesburg, Principles of Neo-Plastic Art (London, 1969), p.8.

이 책은 바우하우스 시리즈 제6권 Grundbegriffe der Neuen Gestaltenden Kunst의 영어판이다. 두스부르흐는 1924년 '본 원고는 1917년에 작성되었다'라고 회고하고 있다.

12) P. Mondriaan, Neo-Plasticism. De Woning-De Straal-De Stad, I 10, 1, No.1(1927), p.14.

13) H.P. Berlage, Normalisatie in Woningbouw, p.38.

지을 수 있는 미학, 윤리학 그리고 문화를 통합화하기 위한 노력은 '양식은 문화의 반영'이라고 하는 베를라헤의 견해를 충분히 이어받고 있었다. 그러나 개인주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주택에 대한 특별한 접근을 가져오지 못하였다. 형식의 통합(type of integration)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베를라헤의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고찰이 요구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노동운동에 대한 베를라헤의 옹호는, 특히 주택과 관련한 운동과의 연관성을 갖고 있다. 베를라헤는 주택형태를 통일적 개념으로서 진전시키기 위한 것을 다 음과 같이 확신하고 있었다. "주로 노동자 자신에 의한 작업이다. 주택 사업에 있어서 전체적인 활동은 그들 자신의 노력의 덕택이다. 그리고 놀랄만한 업적에 대한 희열은 계획과 건설에 대한 참여의 결과인 것이다"¹⁴

베를라헤는 그 자신이 제창하는 사회의 순수한 선언 중 하나를 보여주는 것이 노동자용 주택이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베를라헤가 생각하는 노동자용 주택은 그 밖의 건축적 관심을 초월한 상징적 역할을 나타내고 있었다.

노동자층에 존재하는 민주주의 덕분에 노동자용 주거에서 이미 일정한 문화적 표현이 상징화되어 있었다. 이것은 아직 노동자용 주택을 제외한 건축에서는 확보되지 않았다.¹⁵

베를라헤의 주택 표준화에 대한 지지는 '거주자의 완전한 사회적 평등'을 전제로 한¹⁶ 동일한 주택의 연속적인 형태로 반복해야 한다는 믿음에 의해서 강조되어 있었다. 역

설적으로 말하면, 베를라헤의 이념은 '개인주의적 도시 이미지(the individualistic city image)'가 '노동자에 적대적인 계급의 표현(the expression of the worker's hostile class)'으로서 인식되는 것이 참기 어려운 문제로, 따라서 표준화되고 반복적인 주거 유닛으로 형성된 도시 이미지는 노동자층을 정당화하고 표상화하는 미학적 접근이 될 것으로 베를라헤는 확신하고 있었다.

무엇이 베를라헤 이념의 혁신성인가 하는 것은 미학이 사회조직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을 명확히 밝히는 것에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베를라헤는 이미 중세에 존재하고 있던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어느 정도, 베를라헤는 노동자층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미학원리를 논하였다.¹⁷ 이와 같은 논의는 전통적이고 비정치적인 접근에서 미학만으로 설계를 추진하여 온 건축사의 사회참여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주택이 문화의 상징이라고 하는 이념은 물론 사회주의 사상의 창안은 아니었다. 17세기 암스테르담의 시민주택(burgher house)은 품위, 부유 그리고 개인적인 성공을 상징하는 것으로 부각되었다. 아흐네타 공원단지와 같이 몇 개의 기업에 의해서 지어진 주택은 노동자들이 마치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것 같은 주택 외관을 만들어 줌으로써 노동자용 주택에 품위를 찾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노동자용 주택을 기념비화하려는 목적으로서 시민주택에서 볼 수 있는 절충주의적 디테일의 사용이라든가 아흐네타 공원단지에서 시도된 것과 같은 기념비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규모를 확장시키는 것에 있었다.

베를라헤에 있어서 노동자층의 가치에 대

한 확실한 표상은 주택의 표준화에 대한 미학적 함축에 있다. 더욱이 건축의 상징적 내용을 재구성해 나가는 과정은 건축사에게서 클라이언트는 본래 부유계급, 왕실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주택법의 제정으로 정부 가구, 협회,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20세기 초, 건축언어는 클라이언트와 건축사 사이에 무언(無言)의 '문화협약(cultural contract)'을 맺는 것으로 발전되었다. 이런 언어는 초월적인 것이고 양식은 마을 형성하는 이념에 바탕을 두는 동시에 이런 미(美)는 확실한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런 전통 안에서 더욱 추상화되고 보편화된 클라이언트를 다루는 것으로서 건축사는 새로운 건축형태 언어(the new building type a language)를 위한 발견을 해야만 하였다.

또한, 이것은 건축사 자신과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 '문화협약'과 같은 관계로 봉사할 수 있어야만 하였다. 노동자 주택에 적합한 상징적인 표현을 창조하기 위한 시도는 네덜란드에서 표현주의 출현과 동시에 발생하였다.

합리적인 베를라헤도 노동자용 주택에 대하여 흥미적 체질로 밝혀졌듯이 표현주의자들의 건축에 대한 심리적 의미의 높은 관심은 공유하고 있었다. 주택에서 표상적, 은유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베를라헤의 시도는 의심할 여지없이 고틀러 뮐러 가(家)를 위한 훈더루(Hoenderloo, 1914~1920)에 있는 수렵 로지(hunting lodge)와 같은 건물과 관련이 있거나, 혹은 암스테르담파의 건축사 스탈이나 크로폴러(Kropholler)가 지은 베르겐(Bergen)에 있는 메이르베익

14) Ibid., p.39.

15) Ibid., pp39-40.

16) Ibid., p.31-32.

17) 크레이세(Walter L. Creese)는 영국 정원도시에 관한 기술 중에서 '허용계급의 거주환경에 무언가의 미학적 처리를 부여한다는 신념조차도 혁명적인 것이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The Search for Environment: The Garden City Before and After (New Haven, 1966), p.137.

(Meerwijk) 공원단지내의 주택과 같은 것을 말한다.¹⁸⁾

표현주의와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파’의 용어는 1916년 건축사이자 비평가인 흐라타마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건축사에 의해서 설계된 집합주택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창조성뿐만 아니라 새로운 건축 형태가 갖는 힘을 반영하고 있었다.(그림 1~8)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사회참여(social commitment), 예술적 개인주의(artistic individualism), 상징주의(symbolism)라고 하는 다양한 힘(力)의 접점에서 ‘암스테르담파’ 건축사에 의해서 진행된 집합주택은 비평가가 인식한 이상의 적극적인 변화와 개혁을 대변하고 있었다.

‘암스테르담파’ 건축사의 중요성은 건축사 개인의 재능에 있지 않고 건축을 실험의 대상으로 간주한 것에 있다. 1915년 이후, 암스테르담 시(市) 주택국 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케플러(A. Keppler)는 1915년 베를라헤가 기획한 도시확장계획안 지구 내에서 건설될 대량의 주택설계를 위하여 여러 명의 건축사를 채용하여 주택국을 쇄신시켰다.

대부분의 집합적 이미지와 단위공간계획을 결정하는 전체 레이아웃은 건축사의 참여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고, 대규모 집합주택계획의 입장에서 건축사의 활용은 과거에 적용한 방법과는 너무 달랐다. 19세기 투기건설업자들은 주택건설환경에 거의 완벽한 관리시스템(설계부터 시공까지의 전 과정을 말함-역주)을 갖고 있었다.

1902년 주택법의 시행이후에 암스테르담

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집합주택의 설계에서 건축사를 채용한 업체는 로흐타레(Rochdale)주택조합으로 조합설립 50주년에 건설된 것으로 ‘독특한 사건’으로 지적되고 있다.¹⁹⁾ 특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심각한 주택부족의 상황에서 케플러 등의 시(市) 공무원들은 노동자용 주택을 미적 대상으로 간주한 것에 있다.

‘암스테르담파’가 설계한 집합주택의 몇 가지 특징은 노동자용 주택건설에 건축사가 참여한 것에 대한 상찬과 그리고 디자인의 지나친 과용은 노동자용 주거를 가능한 한 미학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욕망으로부터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경향은 벨기에의 건축사 호스테(H. Hoste)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다. 1915년, 그는 ‘건축사와 동지의 전람회’ 직후 필리크 작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그는 집합주택이 **마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생략) **마치 시(市)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생략) 나는 암스테르담에 건설되는 모든 집합주택을 보여주고 싶다. (생략) 노동자용 주택이 기념비적 문제의 테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을...**²⁰⁾

그라타마는 ‘암스테르담파’ 건축사가 성취한 기념비성의 특징을 지적하고 있었다. “지성에 의해서 **확보되는 것으로, 이것은 진실(truth)과 구축(construction)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²¹⁾

그라타마는 ‘암스테르담파’가 추진한 집합주택이 베를라헤적 원리로부터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넘츠시 비추고 있지만, 이 또한 이런 기념비성이 순전히 건축사 개인

적인 의도에 의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건축사의 개인적인 의도에도 불구하고 필리크(De Klerk) 등이 설계한 집합주택의 기념비적 특징은 도시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암스테르담파’ 건축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흥미를 갖고 있던 몇몇의 건축사나 비평가 중에서 타우트(Bruno Taut)는 이런 도시적 기념비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은 집합성(collectivity) 안에 존재하는 유일한 성격처럼 보여질 것이다.”²²⁾

‘암스테르담파’ 집합주택의 패러독스(paradoxes)중 하나는 연속성과 집합적 형태 그리고 개인성에 위엄을 갖는 이미지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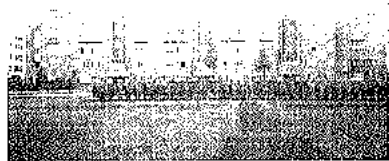


그림 1. 필리크, 에이언 하르트 주택조합에 의한 집합주택 가로축 전경 (스피르다메르플라트산, 1915~16)
이 집합주택의 설계과정에서 가로에 면한 마시는 자유롭게 디자인하도록 허가되었지만, 배안쪽 파사드는 거의 관여할 수 없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어떤 디자인은 건축업자가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필리크가 설계한 이 집합주택을 두고 건축사 이우트, 머르셀레라들은 ‘파사드 건축(facade architecture)’이라고 비판하였다. 이들 건축사는 연관성이 없는 방위, 주동으로 둘러싸여 있는 내부 공간구성의 혼동, 그리고 진부한 주거 공간 계획을 비판하였다. 이런 주거환경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필리크의 욕보다 설계개념을 둘러싼 권력과 베를라헤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전통성에 있다. 그러나 낭만적이고 창조적인 개인성을 공격하는 상다로서와 필리크는 가장 이상적인 인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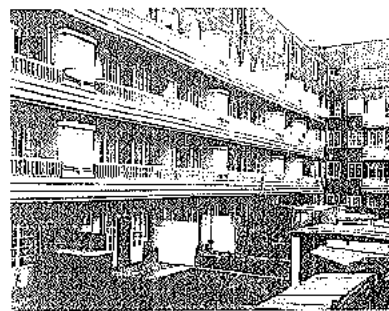


그림 2. 집합주택 주동면부 전경

18) Pehnt, Expressionist Architecture, p. 183.

19) Coöperatieve Bouwvereniging Rochdale, Rochdale 50 Jaar, p. 33.

20) 호스테(Huib Hoste)는 프랑크(Suzanne Frank)의 저서, Michel de Klerk 1884-1923: An Architect of the Amsterdam School의 박사논문(Columbia University, 1969, p. 182)에서 인용한 1934년으로, 바우어(Catherine Bauer)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로맨틱한 운동이 각인된 인상에서 탈피한 것이 네덜란드였다. 베를라헤와 그의 추종자들은 한편으로는 모리스의 중세주의적 사고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인상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재능이 넘치는 미국인 건축사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로부터도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정한 지방(vernacular)건축을 이루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의 ‘양식(style)’이며 기념비적인 특성으로 특징된 빌라, 작은 공공건축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집합주택의 주동, 가로, 상점 그리고 사무소에 존재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배치 및 평면계획에서 이런 양식은 중산층 주택이나 지적인 보헤미안 문학자의 주택에서도 이런 양식은 존재하였다. 이것은 특히 암스테르담에서 현저하게 보여 주고 있었다. 암스테르담의 집합주택은 지방자치체로부터의 원조를 받아 건설된 값싼 노동자용 집합주택, 오토 오웰, 의료, 공동 욕탕, 다리를 포함하여 근대사회를 지향한 새로운 시도에 풍기가 충분하였으며 대부분은 통일적인 것이었다. Bauer, Modern Housing, p. 108.

21) J. Gratama, Kroniek LXX, Bouwrijndig Weekblad, 36, No. 33 (1915), p. 244.

22) Bruno Taut, Modern Architecture (London, 1929), p. 92.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미지는 환상(illusion)과 관련이 있다.

"22cm 두께의 외벽은 기적을 연출하여 만 하고 인간이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무서워하는 것으로부터 구출하여야만 한다. 모든 환상을 소멸시키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주택을 적응화해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과 병행하여 냉혹하리 만큼 인간을 동일화시키는 과정이다."²³⁾

그러타마는 이와 같은 환상성을 끌러크가 설계한 스파르다메르플라트순 광장에 있는 에이언 하르트 집합주택(그림 1~5)에서 인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구축의 요소, 동질성 그리고 단순로운 연속성을 갖는 노동자용 주택은 강력한 환상성과 건축사의 수행능력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다. 변화되고 있지만 건축물 외관에 관한 기념비적이고 살아 있는 듯한 창조와 관련되는데 이것은 더 이상 노동자용 주택에서는 볼 수 없다."²⁴⁾

얼마 후 암스테르담의 스바르츠 광장과 룬너 광장(그림 6~7) 사이에 건설된 더 다 헤라트 집합주택에서 끌러크는 하나의 지붕 아래 여섯 개의 세대를 한데 모으고 분절된 연속적인 형태로 구성하였다. 여기서 빌라들은 중류층 주택으로 보이도록 배려하였다. 이런 효과는 아호네타 공원단지에서 이루어 낸 것과 유사한 환상적인 규모를 반영하고 있었다.²⁵⁾

그러나 이런 환상성은 노동자가 새로운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연상을 갖게 되었다. 어떤 노동자 부인은 끌러크가 작고한 후 1923년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그는 멀리 가버렸다. 그는 우리들의 집을

지어준 사람이다. 우리 노동자 부인들은 이 불굴의 건축사가 우리들의 남편과 어린이들을 위하여 해준 것에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 피로에 지친 일과 후, 순수한 즐거움과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지어진 집으로 되돌아 갈 수 있다는 것이 영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 개 한 개의 돌아서 당신의 귀로를 기다리고 있다면 이 또한 순수한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노동자가 각자의 가정으로 되돌아가, 특히 노동자 가족을 위하여 특별히 지어진 주택에서 따뜻함을 얻고 있습니다. 스파르다메르 광장은 마치 어린 시절 꿈에서 본 요정아가리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끌러크가 좀더 오래 살았더라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꿈을

실현하도록 해 주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²⁶⁾

그러나 형태적 수단을 통한 노동자용 주택에 품위를 갖게 하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암스테르담파' 건축사는 '건축적 형태를 통하여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원리를 상징화하는 시도와는 무관한 것이다'²⁷⁾

이러하여 '암스테르담파' 건축사는 영광과 품위를 갖춘 노동자용 주택이라고 하는 이념을 동반한 세계관을 동일시키려고 했던 베를



그림 5. 살레 전경



그림 3. 끌러크, 에이언 하르트 주택조합에 의한 집합주택의 코너 전경 (반 거리와 오스트방 거리), 1917~20
클러크는 스파르다메르 근린지구 한쪽 요충지에 앉았적으로 시각적인 분할법을 도입하여, 상각형 대지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설계하였다. 이런 양인적인 접근은 이 집합주택이 갖는 독자성을 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로측은 물론 주동으로 둘러싸여 있는 풍경에도 건축적 위엄을 부여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림 6. 끌러크, 더 다헤라트 주택조합이 주관한 집합주택 전경 (룬너 광장, 1921)
여기서는 암스테르담파 건축사들 사이에서 표출되는 차이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뤼도벌드가 설계한 집합주택(그림8) 전경에서는 역시도 상부에 뚜렷한 특징과 명쾌한 연속성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 특히 여기서는 울퉁과 힘이 돋보인다. 가로 축에서의 피사체는 단속성(斷續性)과 세대 구성의 리듬으로 되어 있다. 끌러크의 도시 계획적 문법은 가로가 아닌 광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뤼도벌드 계획보다 앞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끌러크는 미술과 메타포(metaphor)를 의미하는 공백이러든가 경사지붕을 차용하여 뤼도벌드가 추구한 낭만적 이미지 이상을 모색하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델프트에 있는 아호네타 공원단지라든가 에인하위켄(Eindhoven)에 있는 스노 & 반 로센(Snoek van Loosen)과 같이 6세대를 한 동으로 묶고 이것을 다시 연속한 주동 단위로써 고려하여 전체적인 규모를 분절시킴으로써 개인주택 이미지를 극대화하였다. 이런 접근은 주택에 단지 물리적 피난처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려고 한 의지로 이해 할 수 있다. 끌러크가 계획한 더 다헤라트 집합주택의 전면공장은 물론 뒤쪽의 공유정원에서 도 공간감이 잘 배려되어 있다.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암스테르담파에 대한 비판적인 인물들로 인하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그림 4. 주동의 내부 전경

23) J. Boterenbrood, Inleiding, Wendingen, No.6/7(1927), p.3.

24) J. Gratama, Nieuwe Nederlandsche Bouwkunst sinds De Nieuwe Beurs te Amsterdam, Bouwkunst in Nederland, Algemeen Handelsblad 1929년 4월 17일자 기사 내용.

25) 르 꼬르뷔제는 이미지를 변화시킴으로써 주택을 변형시킨다고 하는 유사한 작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르 꼬르뷔제는 푸리에(Fourier) 이후 주택을 궁전으로 변형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작업을 생물학적 '노동(labor)' 으로서의 주택을 재결하기 위한 시도였다. 이는 건축의 지위와 관련된 것이며 '노동'에 관한 것이었다'. Kenneth Frampton, Work and Architecture. Charles Jencks and George Baird, eds., Meaning in Architecture (London, 1970), p.162에 수록.

26) Het Volk, 28 November 1923

27) Frank, p.8.

라례적 전통의 또 다른 상속인인 것이다.

신작물주의

기념비적 형태와 집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특징지어진 주택 이미지의 창조는 꼭 주택의 문화적 가치가 전환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념비적인 개념은 이질적인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또 다른 해석에 있어서의 주제였다.

아우드는 '더 스테일'의 창간호에 기념비적인 양식의 필요성과 그와 관련한 장소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건축이 회화와 마찬가지로 보편성과 기념비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베를라헤파에 의해서 설정된 진로를 따르고, 또한 원칙적으로 암스테



그림 7. 더 디헤르딕 집합주택의 중정 내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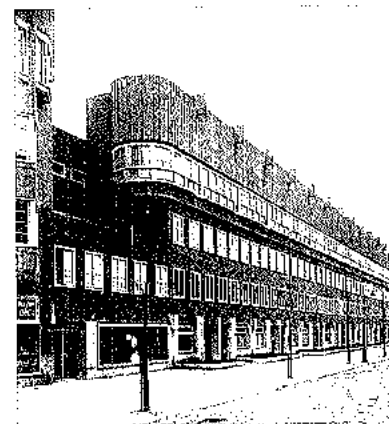


그림 8. 위드벨드 건설업자가 지은 집합주택의 가로 전경 (루프드메이호, 1926)

르담파와는 대립되는 것이다. '암스테르담 파'에서의 기념비성은 본질적으로 데카당(decadent)한 것으로 추락하여 버렸다.²⁸⁾

아우드와 '암스테르담 파' 건축사들은 베를라헤와 지테로부터 공통적인 전통을 계승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우드가 '암스테르담 파'의 접근방법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은 아우드가 도시주택의 집합성을 표현하기 위한 보편적 의미를 찾고자 하는데 있었다.

"오래된 도시 가로경관과의 현저한 대립적 측면에서 주택은 자의적으로 집합화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현대적 가로경관은 리드미컬한 면적 구성과 매스로 배치된 주동에 의해서 지배될 것이다."²⁹⁾

1923년 로테르담 시(市)의 공무원으로서 아우드의 설계는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보다는 암스테르담에서 시행된 도시계획 원리의와 전반적인 유사성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아우드에 있어서 주택의 문화적 가치의 반복적 정의는 기술적 그리고 연속적 공간에서 이데올로기적 참여가 요구되고 있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암스테르담파'의 비이데올로기적 작업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베를라헤에 의해서 형성된 단순한 쉼터(shelter) 이상의 주택이라고 하는 주제는 '암스테르담파'에 있어서 다소 중말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그 밖의 건축사는 베를라헤가 추진한 작업을 계승하고 있었다. 네덜란드 국민주택·도시건축협회에 보내려고 했던 편지의 초안에서, 1930년 페인(van Tijen)은 메르켈바하에게 CIAM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CIAM은 네덜란드에서 신작물주의로 정의되는 현대철학을 대변하는 것 중 하나로

서 고려되고 있다. 이것은 주택과 관련하여 CIAM회원들은 단지 유물적 규정의 한계를 뛰어넘는 주택을 실현하는 것과 그리고 새로운 문화적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일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³⁰⁾

베를라헤와 유사하게 페인도 현대성을 갖는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힘의 협력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 개인주의와 장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작물주의의 건축사는 노동자용 주택에서 존엄성을 상징화하는 의미를 계속 찾고 있었다.

표현주의와 합리주의 사이에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온 대립적 구도(dichotomy)는 서로 다른 건축양식을 구별하는데 유용한 것처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접근은 사회주의와 새로운 기술을 상징한다고 하는 합리주의자적 전통의 동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

28) J. J. P. Oud, Het Monumentale Stadsbeeld.

29) Ibid.

30) 페인(W. van Tijen)이 메르켈바하에게 보낸 편지(1930.10.18)

Merckelbach Archive No. 62, Documentatie Centrum voor de Bouwkunst, Amsterdam.

협회소식 kira news

2004년도 제1회 임시총회

2004년도 제1회 임시총회가 지난 10월 1일 전 문건설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재적대의원 450명 중 349명이 출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2004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 안과 회장 선임여부에 관한 안, 감사 불신임의 안, 임원선출의 안이 논의되었다. 이날 제2호의안 「회장 불신임에 관한 건」에서 이세훈 회장이 불신 임됨에 따라 2005년도 정기총회까지 송수구 비상 근무회장이 회장직무를 대행하기로 하였다.

주요 부의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의안 : 2004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회장 선임여부에 관한 건
- 의제를 「회장 불신임에 관한 건」으로 변경한 후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거 현 회장을 불신 임 함.
- 제3호의안 : 감사 불신임의 건
- 당사자인 이영복 감사의 사임으로 원안 폐기함.
- 제4호의안 : 임원선출의 건
- 이사 7인에 강성익, 안태경, 이길웅, 이창섭, 정명옥, 최명철, 한명수를, 감사 1인에 강산을 각각 2006년도 제40회 정기총회시까지 임기로 하여 선출함.
- 이영복 감사의 사임에 따라 최정일 대의원을 감사로 보선함.



제12회 이사회

2004년도 제12회 이사회가 지난 10월 13일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04 전국건축사대회 개최에 관한 안과 예비비 사용 승인의 안, 지역건축사회설치및운영규정중 개정규정(안)승인의 안, 지역건축사회 설치 승인의 안 등이 논의되었으며, 이밖에도 정부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혁 추진에 관한 협의, 건정건축 소송 결과에 관한 협의, 건축사 위상 제고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이 협의되었다.

주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2004 전국건축사대회 개최에 관한 건
- 회원의 참여율 저조와 임시총회 개최결과 등을 감안하여 2004 전국건축사대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함.
- 제2호의안 :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 회원관리비(13,000천원)와 수선수수료(1,500천원)를 예비비에서 사용기로 함.
- 제3호의안 : 지역건축사회설치및운영규정중 개정규정(안)승인의 건
- 지역건축사회설치 및 폐쇄에 관한 사항을 소속 건축사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건축사회 설치시 최소 인원기준을 마련하여 차기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제4호의안 : 지역건축사회 설치 승인의 건
- 경북건축사회소속 지역 건축사회의 설치를 승인하기로 함.(의성·군위 또는 군위·의성 건축사회 및 청도지역 건축사회)

△ 협의사항

- 제1호 : 정부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혁 추진에 관한 건
- 협회에서 적극 대처하기로 하되 토론회 등을 통해 논리적 뒷받침을 하기로 함.
- 제2호 : 건정건축 소송 결과에 관한 건
- 회장대행이 당사자 면담 후에 결정하기로 함.
- 제3호 : 건축사 위상 제고 방안 등에 관한 건

- 홍보편찬위원회에서 세부 실행방안을 연구·검토하여 보완하기로 함.
- 제4호 : 정관 개정(안)이 작성되는 대로 별도의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폭넓은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협의과정을 거치기로 함.

대전광역시 건축사회, 해외건축탐방

대전건축사회에서는 2004년도 사업계획에 의거, 지난 9월 1일~9월 4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41명의 회원이 해외건축탐방(일본 북 규슈)을 다녀왔다.

주요 일정으로 첫째 날은 부산 국제터미널에서 출발하여 하카타항에 도착 후 초대형 종합쇼핑센터 캐널시티를, 둘째 날은 구마모토성, 구마모토 신도시 아트플리스와 셋째 날은 활화산 아소 분화구, 2002년 월드컵경기장, 세계적인 건축사 이소자키씨 작품 오이타 아트프라자, 벳부에서의 지옥온천 순례를 거쳐, 마지막 날은 태재 부천만궁, 종합모텔하우스전시장을 견학하였다.

관계자는 "두 번째로 시행하는 해외건축탐방에 많은 관심과 후원이 있었고, 청명한 날씨 속에 평소 잘 알지 못한 회원들과도 잘 융합하며 회기에애한 분위기 속에 순조로운 여행이었으며, 다음에는 이런 모임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하자고 할 만큼 유익한 탐방"이었다고 전했다.

문의 : 대전광역시 건축사회 042-485-2813



광주건축사회, 「2004 광주 건축문화제」

광주건축사회에서는 일반 시민 및 학생들이 건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2004광주건축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의 내용은 제6회 광주·후쿠오카 건축작품교류전과 도시·건축사진공모작품전시회, 광주·후쿠오카 학생건축작품 교류전, 학생도시·건축그림전시회, 건축모형작품전시회, 준공건축물사진전시회 등의 풍성한 내용으로 2004년 10월 27일부터 28일 이틀간 광주광역시 여성발전센터 3층에서 개최된다.

이틀리 시민건축문화강좌도 함께 개최되는데, 제1강좌는 10월 27일 15시부터 16시30분까지 이상림(공간건축) 건축사가 '사회와 건축가'에 대하여, 제2강좌는 10월 28일 15시부터 16시



30분까지 민현석(한국예술학교 미술원 건축과) 교수가 '비움의 구축'에 대해 각각 강의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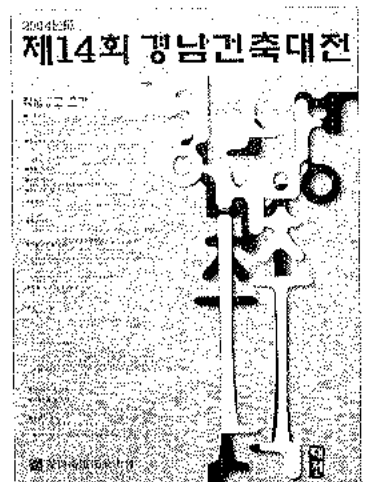
문의 : 광주광역시 건축사회 062-521-0025

경남건축사회, 제14회 경남건축대전

올해로 제14회를 맞이하는 '경남건축대전'은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전문 건축인으로서의 위상을 고양하고 일반국민의 건축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하여 건축문화의 질적 발전을 꾀하며, 차후 건축계의 장래를 이끌어갈 후진의 발굴 및 양성을 바탕으로 건축계의 새로운 기풍 조성의 토대를 마련하여 국가발전에 기여코자 경상남도 건축사회에서 주최하는 건축축제이다.

건축대전은 일반 공모전과 회원 건축전으로 구분되며, 일반 공모전은 경상남도 내 건축학 또는 건축 관련학을 전공하거나 건축설계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자에 출품 자격이 주어지며, 회원 건축전은 본회에 회원 자격이 있는 자에게 출품 자격이 주어진다.

출품내용은 건축 및 도시 설계에 관한 창작품(일반공모전)과 건축 및 도시 설계에 관한 창작품 및 경남도내 설계 경기 계획작품 혹은 경남도내 건립된 2004년 10월 이전 준공건물(회원건축전)이다. 원서교부는 2004년 9월 1일부터 교부되며, 원서접수 및 작품접수는 10월 27일



(수) 18시까지 1일 동안 경남건축사 복지회관 지하 대회의실에서 접수한다.

문의 : 경상남도 건축사회

055-246-4530~3, <http://gira.kira.or.kr>

제주도건축사회, 제2기 시민건축대학

제주도건축사회와 제주대학교 건축디자인전공이 공동 주최한 '제2기 시민건축대학'이 개최된다.

이 행사는 누구나 생활하는데 상식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건축에 관한 정보들을 재미있고 쉽게 이해시키고자 마련된 강좌로서, 강좌 후 질의응답 시간도 가져 더욱 알찬 시간으로 꾸며진다.

일반시민을 수강대상으로 하며, 수강료와 교재는 무료이고 참석자들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한다.

- 일시 : 2004년 10월 22일(금), 10월 29일(금), 11월 5일(금) 각 14:00~17:00

- 장소 : 제주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다목적홀

문의 : 제주도건축사회 064-752-3248

000소장을 000건축사로 부름시다

우리 협회에서는 건축사의 위상제고와 상호존중을 위해 현행 000소장으로 통용되던 호칭을 000건축사로 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건축사의 사회적 위상제고 및 상호존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계소식 archi-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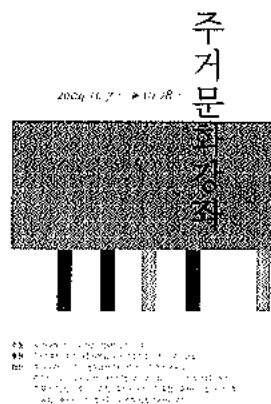
여성건축가협회

'월빙' 주거문화 강좌

한국여성건축가협회(회장 박연성)는 지난 10월 7일 개최하여 10월 28일까지 약 한 달여간 대림주택 문화관에서 '삶과 주거가 하나 되는 이야기'란 주제로 월빙 주거문화강좌를 실시한다.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 강좌는 문화예술진흥원의 후원으로 4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강좌씩 총 8강좌가 실시되며, 주부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주거문화에 대한 지식 전파와 아울러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서의 주거문화 인식 증진에 기여해오고 있다.

문의 : 한국여성건축가협회 02-581-1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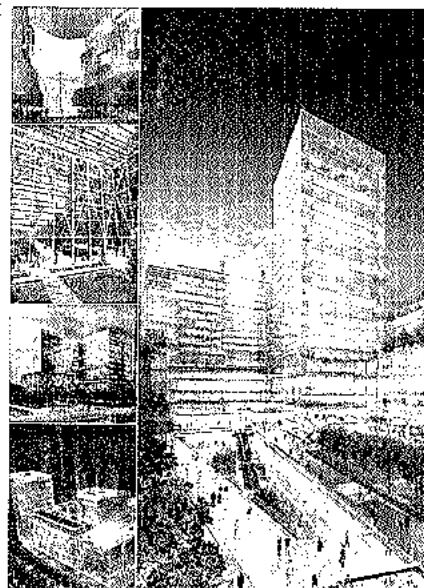
세운상가 4구역 재개발건축기본계획에 대한 국제지명초청 현상설계 심사결과 발표

지난 7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서울시와 종로구가 함께 주최한 '세운상가 4구역(종로구 예지동 일대) 재개발 건축기본계획'에 대한 국제지명현상설계 결과가 발표되었다.

당선작으로는 미국 건축가 코터 김(Koetter Kim & Associate)과 무영건축(안길원), 동우건축(이윤익)이 공동으로 작업한 작품이 선정되었다. 이 당선작은 주어진 계획대지인 예지동 블록 뿐만 아니라 세운상가 및 대림상가 양측 4개 블록에 대한 마스터플랜도 함께 제출하여 향후 도심부 발전의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밀그림도 포함되어 있어 호평을 받았다.

또한 당선작은 스틸과 유리로 마감된 커튼 월 외피의 5층에서 25층까지의 다양한 층수의 건물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의 도시 구조가 가지고 있는 가로특성을 수용한 단지 내 보행가로를 최대화하여 재개발 후 상권의 재 활성화 및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가 용이하도록 계획된 안이다. 아울러 청계천의 수공간과 연결하여 광장내의 친수공간을 끌어 들여 지하에 빗물 저장도 기능하도록 하였고, 종로의 역사성과 녹지를 단지 내 남북축에 중앙공원으로 연계시켜 친환경적 도심 개발개념을 적극 살리고 있다.

이번 재개발은 죽어버린 세운상가의 소규모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낙후된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예지동 일대를 1차적으로 개발하여 기존의 소규모 상권을 이전시켜 기존 세운상가의 철거와 함께 재개발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되었다.



세운상가 4구역 마스터플랜/코터 김(Koetter Kim & Associate)+무영건축(안길원)+동우건축(이윤익)

향후 추진은 당선 건축사가 마스터 아키텍터로 활동하면서 2, 3위 설계업체가 실시설계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2005년 1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여 2005년 4월까지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를 밟아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간다.

한편 2위는 Richard Rogers(영국)+희림건축(이영희), 공동 3위는 Machado & Silvetti(미국)+공간(이상립), Jerde Partnership(미국)+단우(최명철)+이웨스(박종기)가 차지하였다.

2005 이상 건축상

올 해로 11번째 열리는 '2005이상건축상'의 주제는 '남남북녀(南男北女)'이다.

이 주제는 통일에 대한 기대가 커져가는 현실에서 통일이후 새로운 이 땅에 필요한 집합 주거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또한 통일 시대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남남북녀와 그들의 아들, 딸을 담을 주거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묻는 것이다.

응모자격은 전국의 건축관련(직장인의 경우 소장급 제외) 종사자나 건축, 인테리어, 환경조경, 디자인 관련학과 학생(2년제 대학 및 대학원, 유학생 포함)에게 주어지며 1인 1작에 한한다.

작품제출은 1차 패널(도면은 자유롭게 표현, 600mm×900mm 크기 2매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조합 가능, 10mm 우드락에 부착해 제출)을 제출하면 되고, 2차는 공개 프리젠테이션(모형은 제출해도 되며,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2004년 10월 11일부터 22일까지이며, 전화나 이메일로 가능하다. 작품제출은 2005년 1월 26일부터 1월 28일까지이다.

문의 : 월간 이상건축 02-582-5387,
AL1833@kornet.net

2004 녹색에너지설계 세미나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에너지절약형 건물의 확대 보급을 위한 에너지절약형 설계의 활성화와 에너지절약형 설계관련 정보교류를 통한 참여 확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세미나를 개최한다.

- 개최일시 : 2004. 11. 1(월) 14:00~17:00
- 개최장소 : AT센터 3층 중회의실(서울 양재동 소재)
- 참석대상 :
 - 녹색에너지 설계운동 약정업체 관계자
 - 에너지절약형 설계에 관심 있는 건축사 사무소, 전기·기계설비 설계 사무소 관계자, 관련업체, 일반인, 학생 등
- 참가신청

• 10. 27일까지 에너지관리공단 홍보교육실로 참가신청서 송부
문의 : 에너지관리공단 홍보교육실
(김상명, 이진국) 031-260-4396~7

제1회 평택시 건축문화상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공간 조성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우수한 건축물을 빛어낸 설계자·시공자·건축주 등을 발굴·시상하고, 새로운 건축문화를 창출하고자 건축인의 장을 마련한 '제1회 평택시 건축문화상'은 '살기 좋은 도시, 세계속의 일류평택'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응모방법

- 일반부(사용승인건축물 부문) : 작품 설명서가 포함된 B4 규격의 사진첩(8"×10" 사진 10매를 부착하되, 주변 건축물을 포함한 원경사진과 조경사진 각1매를 포함한다) 1부
- 규격의 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 수록) 1부
- 설계자·시공자·건축주의 소개서, 건축

물대장 1부, 건축사사무소등록증사본 1부

- 1차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하여 패널(90cm×90cm)을 제출(필요시 모형포함)
- 건물전경사진 패널1장 (액자크기 68cm×58cm, 사진크기 60cm×50cm)
- 학생부(계획작품 부문)
 - 패널 1매(90cm×180cm) 또는 2매(90cm×90cm) 및 모형 1점(100cm×100cm이내)
 - 작품설명서(A4용지 2~3매 분량) 및 학과장, 관계 건축사 추천서 1부 제출

△ 작품접수

- 접수 기간 : 2004. 11. 15 ~ 11. 20
- 접수·문의 : 평택시청 건축과(031-659-4529), 경기도 평택시 비전2동 846

제4회 DBEW 국제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발표

한샘이 주최한 제4회 DBEW 국제 디자인 공모전(동과 서를 넘어서는 디자인-Design beyon East and West, 맞벌이 한 자녀 가정을 위한 디자인-DBEW for the One Child Family)의 그랑프리로 이탈리아 Luca Donner, Francesca Sorcinelli팀이 선정되었다.

출품작 283점 중에서 그랑프리 1점과 금상 2점, 은상 12점을 선정한 심사위원단(알레산드로 멘디지-심사위원장, 김석철, 추이 카이, 시게루 우치다)은 그랑프리 수상작에 대해 "그들의 작품 Wave House는 경사면의 인공토지에 자연을 도입해 집마다 단독주택 같은 다양성을 부여하고 있다. 식당, 거실, 부엌을 위에 두고 단을 내려 아래에 두 침대를 두되 서로 접근로를 다르게 해 집안에서의 다양한 만남을 연출한 것이 돋보인다. 리빙스페이스에 '흐름'의 개념을 도입해 일상 공간의 진부함을 탈피, 강한 변화를 시도했으며 하우징 유니트가 건물로 집합하는 과정의 논리가 분명하고 유니트 평면, 단면, 입면

에서의 의도가 건축 전체로 전개되어가는 질서 형식이 훌륭하다"고 평가하였다.

한남대학교 건축학부 창립 20주년 기념

한남대학교 건축학부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한남 건축전'과 '초청강연'을 개최한다.

〈한남 건축전〉

- 일시 : 2004.12.1(수)~12.7(화)
- 장소 : 국립중앙과학관 전시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 초청 크리틱
 - 시간 : 12월 6일(월) 오후 2시
 - 초청 건축가 : 오동희(간삼종합건축사사무소), 장윤규(국민대 건축학과)

〈초청강연〉

- 일시 : 2004. 12. 2(목) ~ 12. 3(금) 오후 1 ~ 7시
- 장소 : 대전 엑스포국제회의장 (엑스포과학공원 내)
- 주제 및 초청강사

- 제 1주제 : 열린 생각, 열린 건축(12월2일)
사회 : 한필원(한남대 교수)
강사 : 유홍준(문화재청장), 이웅관(영화평론가, 중앙대 교수), 조성룡(건축가)
 - 제 2주제 : 성찰과 비전(12월3일)
사회 : 고성희(한남대 겸임교수)
강사 : 김광현(서울대 교수), 강인호(한남대 교수), 신경재(한남대 교수)
- 문의 : 한남대학교 건축학부 042-629-8030

제11차 아시아건축사대회

'동시대의 건축문화-아시아 도시 특유의 건축의 정체성(Contemporary Architectural Culture-The Architectural and Urban Identity of the Cities of Asia)'이라는 주제로 '제11차 아시아건축사대회'가 마카오의 마카오 대학 내 마카오 문화센터에서 오는 2004년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5박 6일간 개최된다.

△ 행사일정

- FORUM ARCASIA 24
- 11. 27 : Fellowship Meeting, 환영만찬

Fellowship dinner

- 11. 28 : 아카시아 이사회, 교육위원회, AAM전시회 개막
- 11. 29 : 아카시아 이사회, 교육위원회, 이사회, ACA-11 환영만찬
- ACA-11
- 11. 30 : ACA-11 개막식, Session I, II, III, ACA-11 우정의밤, 학생잡보리
- 12. 1 : Session IV, V, 건축물탐방, 폐회식
- 12.2 : 건축물 탐방

△ 등록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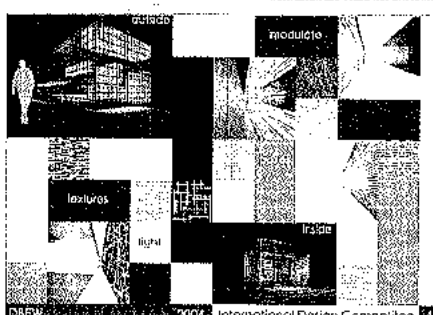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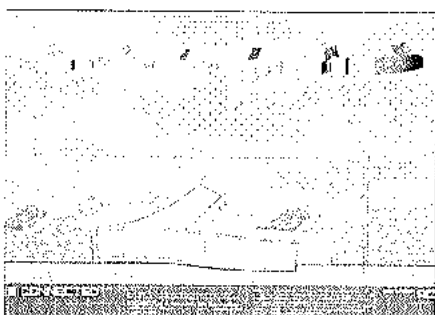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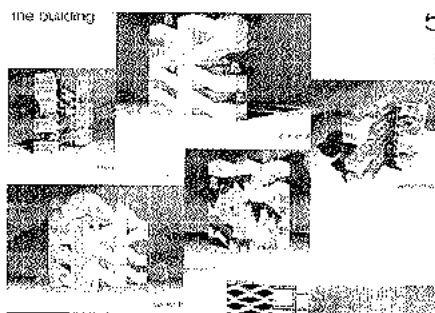
- '04.10.5일 까지 : US \$250
- '04.10.5일 이후 : US \$300
- 현장 등록 : US \$350
- 동반인 : US \$300

프랑스 상띠이 워크숍 및 유럽 건축 여행

[PARA-ZONE]을 통하여 새로운 개념의 건축 워크숍과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첫 번째 워크숍은 프랑스 파리에 인접한 상띠이에서 진행되며, 여행지는 프랑스 및 스페인, 포르투갈이다. 총 1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2월 27일 시작해서 2005년 1월 27일까지 진행된다. 그중 절반은 여행 프로그램으로, 절반은 현지에서의 워크숍으로 진행된다. 워크숍의 첫 주제는 [PARA-TERRA]이다.

- committee/구영민, 박준호, 박태홍, 재갈엽, 전인호, 전진삼
- 문의 : 02-515-7595(PARA-ZONE 임시사무국) 사무국장 홍윤식
- 웹사이트 : www.para-zone.com



DBEW 국제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제22차 UIA 총회 개최

‘도시-건축물들의 시장(Cities-Grand Bazaar of Architectures)’이라는 주제로 ‘제22차 UIA총회’가 터키 이스탄불에서 2005년 7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개최된다.

- 세부 행사 주제

- Celebration of the World's Cities
- Architecture And Life in Cities
- Architecture of Cities
- Architectural Profession and Education Facing the Cities

- 주제 논문 접수

- 신청서 및 논문 개요 접수 : '04. 11. 13
- 논문 발표자 발표 : '05. 1. 14
- 논문 접수 : '05. 4. 15

- 등록

구분	'04.12.31 이전 등록	'05.1.1 ~ 5.31 등록	'05.6.1 이후 등록
일반참가자	300 US\$	350 US\$	400 US\$
학생	150 US\$	150 US\$	150 US\$
동반자	200 US\$	250 US\$	300 US\$

바로 잡습니다

※ 지난해(9월호) 91쪽 보고서 신의주 출장기 중 「김선양 / (주)한라종합건축사사무소」
→ 「김선양 / (주)한중종합건축사사무소」로 바로잡습니다.

※ 지난해(9월호) 120쪽 현상설계 지리산 자생식물환경공원 중 「당선작 / 다주종합건축사사무소(유병현)」 → 「당선작 / 다주종합건축사사무소(유병현) + (주)무림그룹 한(박영권)」으로 바로잡습니다.

「건축서비스팀」 운영

건설교통부는 국민들의 주거수준 향상과 최근 웰빙(well being)열풍 등으로 건축에 대한 관심과 민원이 폭증함에 따라 건축민원의 상담 및 안내를 전담하는 「건축서비스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건축서비스팀에서는 단순한 법령질 의와 진정 또는 조사가 필요한 민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간 건설교통부내 건축민원은 연간 평균 1만 여건(부내 최다)을 처리함에 따라 폭증하는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지 못해 국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으나, 앞으로 건축서비스팀 운영으로 민원인은 보다 신속하고 종합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고, 행정부서(건축과는 새로운 행정수요인 건축환경·문화 및 건축행정 정보화 사업 등 정책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 등 효율적인 행정체제의 개편으로 지속적인 고품질의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서비스팀은 건설교통부 1층 종합민원실 안에 건축민원서비스 전담공간을 설치, 건설교통부(건축과) 직원 3명과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대한주택공사와 대한건축사협회 직원 2명 등 총 5명이 건축민원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안내하게 된다.

• 문의 : 02-2110-8437

(기존 건축과 2110-8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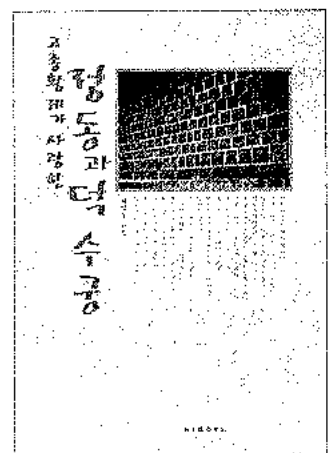
신간

고종황제가 사랑한 정동과 덕수궁

신간 '고종황제가 사랑한 정동과 덕수궁'은 현재 미국대사관 경역의 재확정 문제가 사급히 다루되고 있는 시점에서 희귀한 자료들을 발굴하고, 자료들을 정리하여 그간 무심코 지나쳤던 '정동(貞洞)'과 '덕수궁'의 가치와 소중함을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새롭게 선보인다.

저자는 연구 중에 정동 일대가 덕수궁과 겹치는 곳이 많다는 것, 또한 구 경계여고 터가 덕수궁 영역이었다는 것도 밝혀내며 근·현대화 시기 정동동역의 변천과정도 살폈다.

특히 사진을 230여 컷 사용하는 등 시각적 자료로 꾸며 보기에 편하게, 자료와 지도가 더해져 이해가 빠르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책 끝부분에 귀중한 자료인 '서울 중심지도'를 실을 크기로 부기하는 배려로 서울을 이해하는데, 또한 근대사를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듯 하다.



김정동 지음/312쪽/18,000원/도서출판 발언 02-929-3546

건축마당
현상설계
competition

남강선사유적박물관	78
민물고기 생태관	82
자활복지센터	86
논공(대구)휴게소	90
부경대 다목적공학연구동	94
김천(부산)휴게소	98

남강선사유적박물관

Namgang Prehistoric Remains Museum

당선작 / (주)기외종합건축사사무소(최상영) +
(주)옛터건축사사무소(이윤제) +
인서울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대평면 대평리 569-2번
지 일원
지역지구 관리지역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 27,319.00㎡
건축면적 1,963.28㎡
연 면 적 2,577.58㎡
건 폐 율 7.26%
용 적 륜 9.44%
구 조 철근콘크리트
규 모 지상 2층
주차대수 50대
설 계 팀 기외건축 : 변정석, 조만재, 권오열, 이진호
옛터건축 : 김정중
인서울 : 황경제, 유경아, 황성하, 이현곤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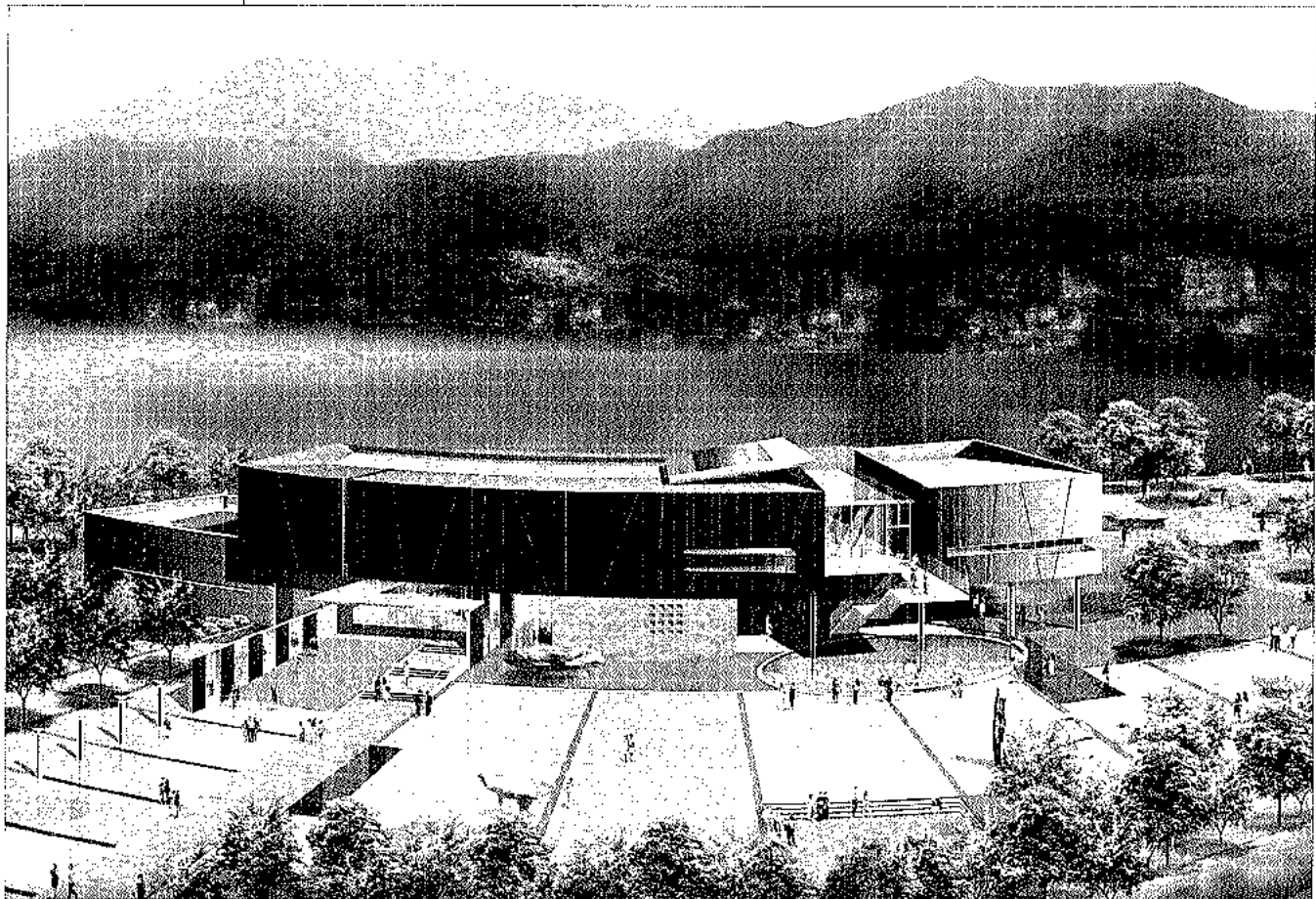
- 수변의 유선형을 따르는 형태로 강과 근접한 위치에 배치
- 도로입구에 진입광장을 두고 출입구까지의 열주진입로 및 경사로 계획
- 10m 도로를 경계로 좌측은 수변휴식공간, 우측은 박물관 및 선사체험공간 배치하여 대지의 기능적 분리를 도모함 계획의 합리성을 추구

동선

- 차량 - 대지와 인접한 10m 도로로부터 우측으로 진입
- 보행자 - 10m 도로 좌측으로의 수변휴식공간 진입 및 우측 박물관 진입을 분리하여 이용객의 목적에 맞게 동선을 분리하며, 내부관람과 외부 선사유적체험공간을 끝낸 관람자들은 under bridge를 통해 수변 휴식공간으로 이동가능

외부공간

- 외부공간은 크게 진입광장 · 열주진입로와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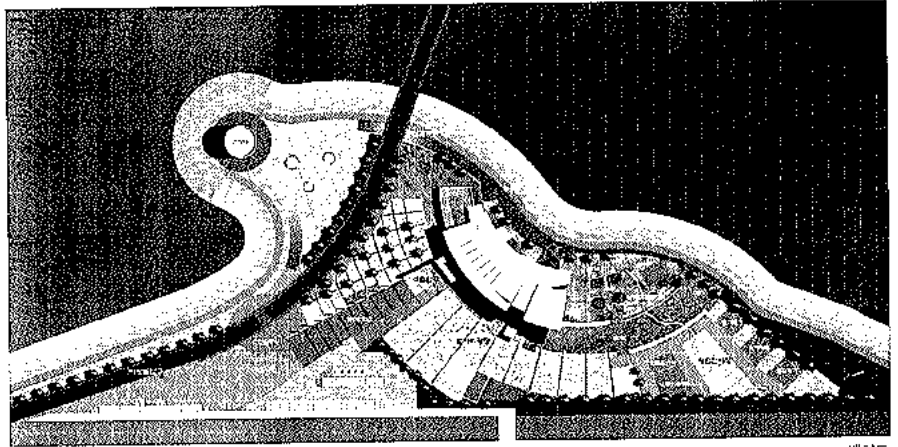


사유적체험공간, 수변휴식공간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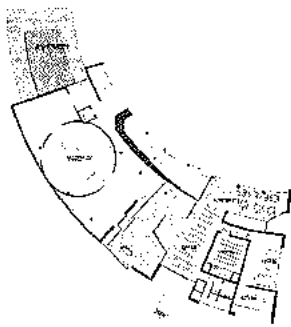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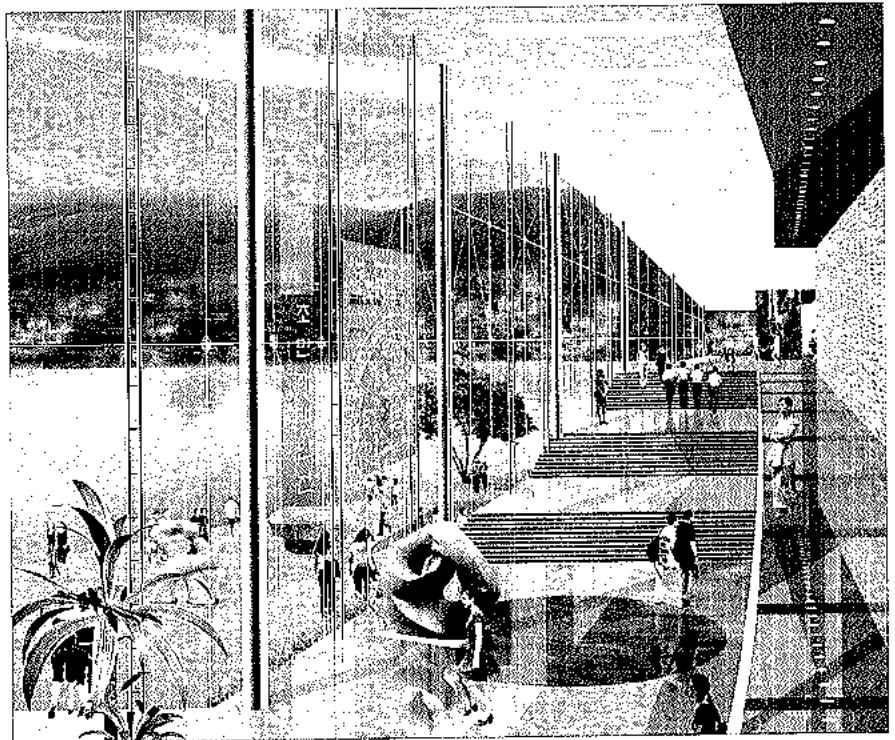
- 대지의 전면에 위치한 진입광장·열주진입로는 보행자와 차량을 분리하여 박물관으로의 진입을 유도하고 대지의 전체 조망을 유도
- 선사유적체험공간은 내부관람이 끝난 관람자를 자연스럽게 유입시켜며 수변의 형태를 따라 배치
- 수변휴식공간은 최초진입시 좌측보행로를 통해 진입하며 대평교 하부 UNDER BRIDGE와 연결되어 박물관대지의 수변산책로로 자연스럽게 유도

수변휴식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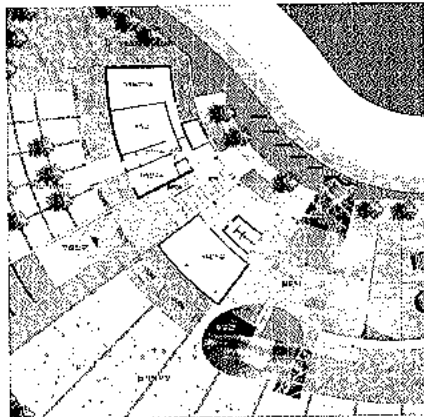
- 수변의 자연경관을 직접 관망하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관람객 뿐 아니라 지역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
- UNDER BRIDGE를 통해 박물관 대지의 수변산책로로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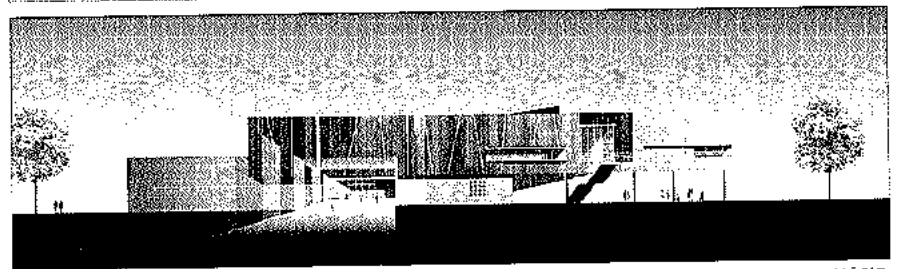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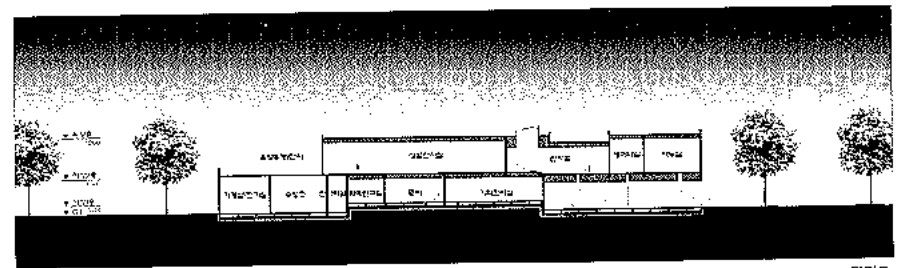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북측면도



단면도

남강신사유적박물관

Namgang Prehistoric Pottery Museum

우수작 / 두양건축사사무소(문철수) + (주)유신
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김지덕)

대지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대평면 대평리 569-2번
지 일원

지역지구 관리지역

대지면적 27,319㎡

건축면적 1,359.5㎡

연 면 적 2,301.4㎡

건 폐 율 4.98%

용 적 륜 8.42%

구 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상 2층

주차대수 78대(법정 19대)

외부마감 동판거칠림기, 화강석(창석) 성벽 쌓기

설 계 팀 송현중, 임선주, 양창석, 김형태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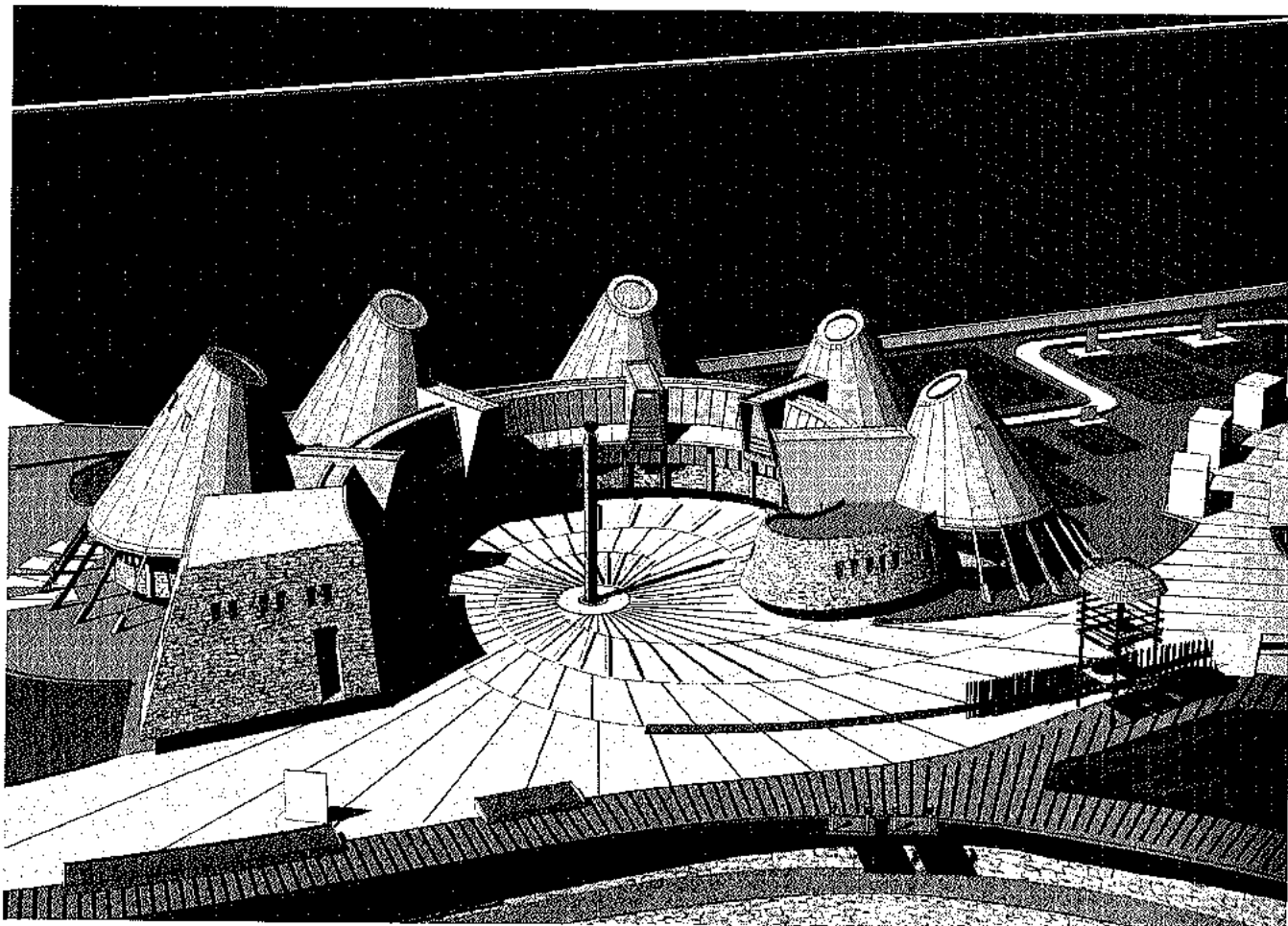
- 건축물이 별도의 독립적 공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지 전체공간의 동선체계와 호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선형의 건축물 배치를 채택한다.
- 관람객의 움직임을 촉진시키는 동적 군제형태의 나선형 진입 동선을 채택하여 박물관 내부로의 자연스런 진입을 유도한다.
- 소음원인 도로와는 가능한 반대 방향에 위치시켜 박물관의 쾌적한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한다.
- 중앙 광장에는 선사시대의 방어체계인 환호와 목책을 설치하고 그 가운데 공간에 전망대코를 배치하여 전체대지의 중심과 강과의 연계성을 강조하며, 가장 좋은 위치에서 강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한다.
- 수려한 강변 경관의 장점과 강 흐름의 느낌을

직접 체험 할 수 있도록 호안을 따라 주 동선로와 산책로를 배치한다.

- 장래 증축을 고려한다.

건축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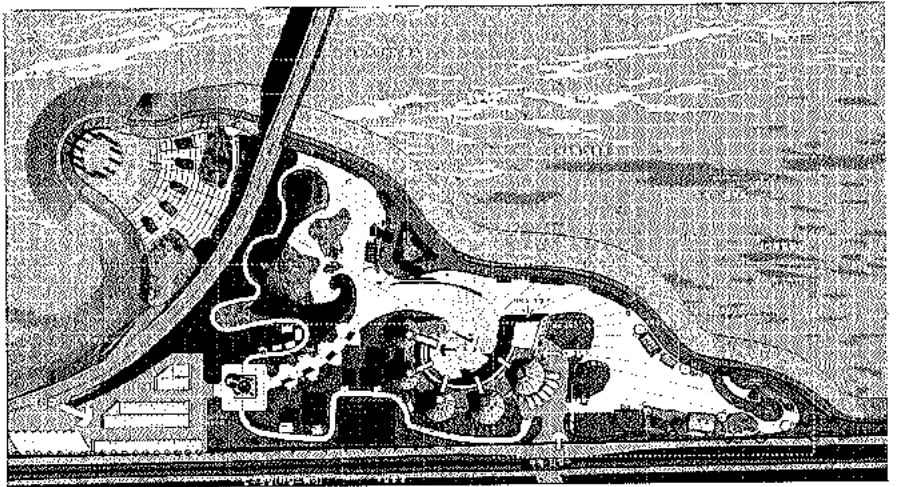
- 원시적 경관 재현과 자연 친화적 건물 형태를 갖도록 한다.
- 수변 공간, 부정형의 형상, 두 부분으로 분리된 대지의 공간특성을 잘 활용하여 주제가 있는 공원으로서의 역할과 교육 및 전시, 체험의 장으로서의 역할, 나아가 지역관광 개발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 야외 체험장, 미니어처 파크, 휴게공원, 체험공원 등 외부공간 기능을 극대화하고, 또한 박물관 내부공간의 기능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게 함으로서 풍부한 공간 체험의 장이 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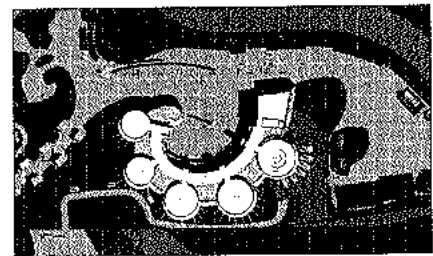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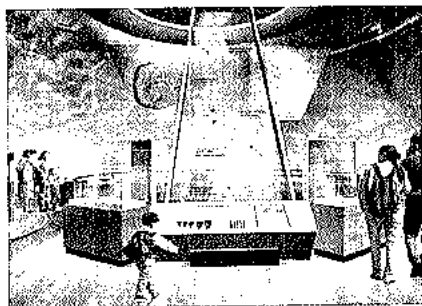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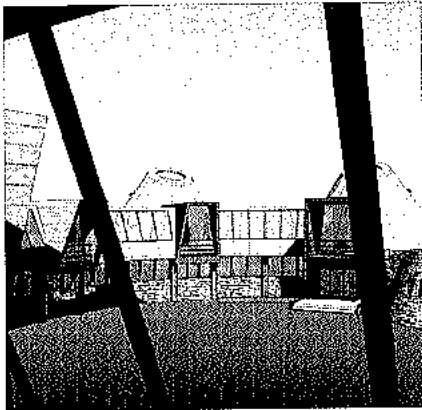
- 박물관 건축계획은 그 자체가 하나의 테마 조형물의 역할을 담당하게 함으로서 일반적인 전시장소로서의 기능 뿐 아니라 단지 전체의 주제적 축점이 되도록 계획한다.

외부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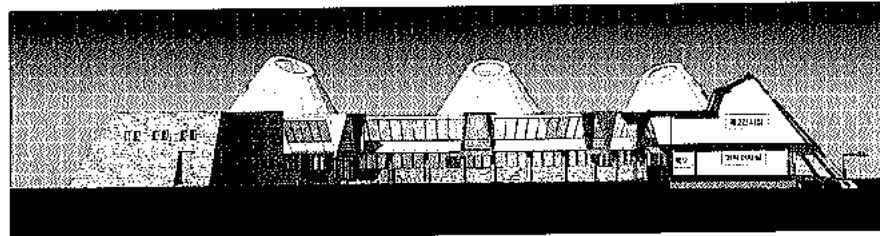
- 전체대지를 하나의 외부 공간구성 체계로 묶어 전체가 각 부분의 합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주 공간 체계는 각 부분의 세부 공간에 있어서 다시 하위의 공간 구성체계를 가짐으로서 전체 공간이 조직적인 위계성을 가지도록 한다.
- 각 테마별 영역은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되 전체적으로 하나의 주제에 순응하도록 한다.
- 각 영역은 각자의 마당과 상징 조형물을 가짐으로서 독자성(아이덴티티)을 가지며, 외부(강변방향)로의 독립된 사이를 가질 공간을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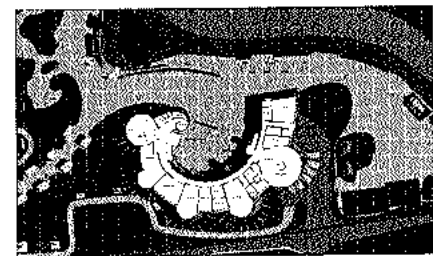
배치도



2층 평면도



중단면도



1층 평면도

민물고기 생태관

Fresh-Water Fish Ecology Center

당선작 / (주)간삼파트너스종합건축사사무소
(이광만·오동혁) + (주)건축사사무소
토탈(김병현)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324번지 일원
(4필지)

지역지구 관리지역(미지정)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시설)

대지면적 14,350.00㎡

건축면적 1,038.95㎡

연 면 적 1,355.45㎡

건 폐 율 7.23%

용 적 륜 8.61%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일부)철골구조

구 모 지하 1층, 지상 2층, 옥탑층

주치대수 계획 19대

외부마감 외벽: 화강석물갈기, 알미늄쉬트

지붕: ZINC 패널, 스텐레스스틸 패널

창호: 절리복층유리

설 계 팀 간삼건축: 박훈석, 문성준, 이준호, 장하영,
장수원

토담건축: 강민호, 박민호

건축계획

- 자연속의 생태관: 하나의 건축물이 아닌 자연 속에 일부인 친환경 생태관 계획
- 자연을 담은 생태관: 동강의 흐름, 물고기의 움직임, 산의 중첩을 디자인 모티브로 삼아 자연을 옮겨놓은 생태관 계획
-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관: 자연을 생태관속으로 생태관을 자연속으로, 그속에 인간이 함께하는 공간창출

종합배치계획

- 대지를 관통하는 축에 의해 메인 진입동선 형성
- 각 시설로의 원활한 진입동선 확보와 서로간의 연계성 고려
- 생태관 부지내 외부 순환동선은 자연하천 학습장 부지내 방생 못까지 연결하도록 계획
- 생태관, 생태체험 마을을 연결하는 축을 형성하여 추후 생태체험 마을과의 연계성 고려

생태관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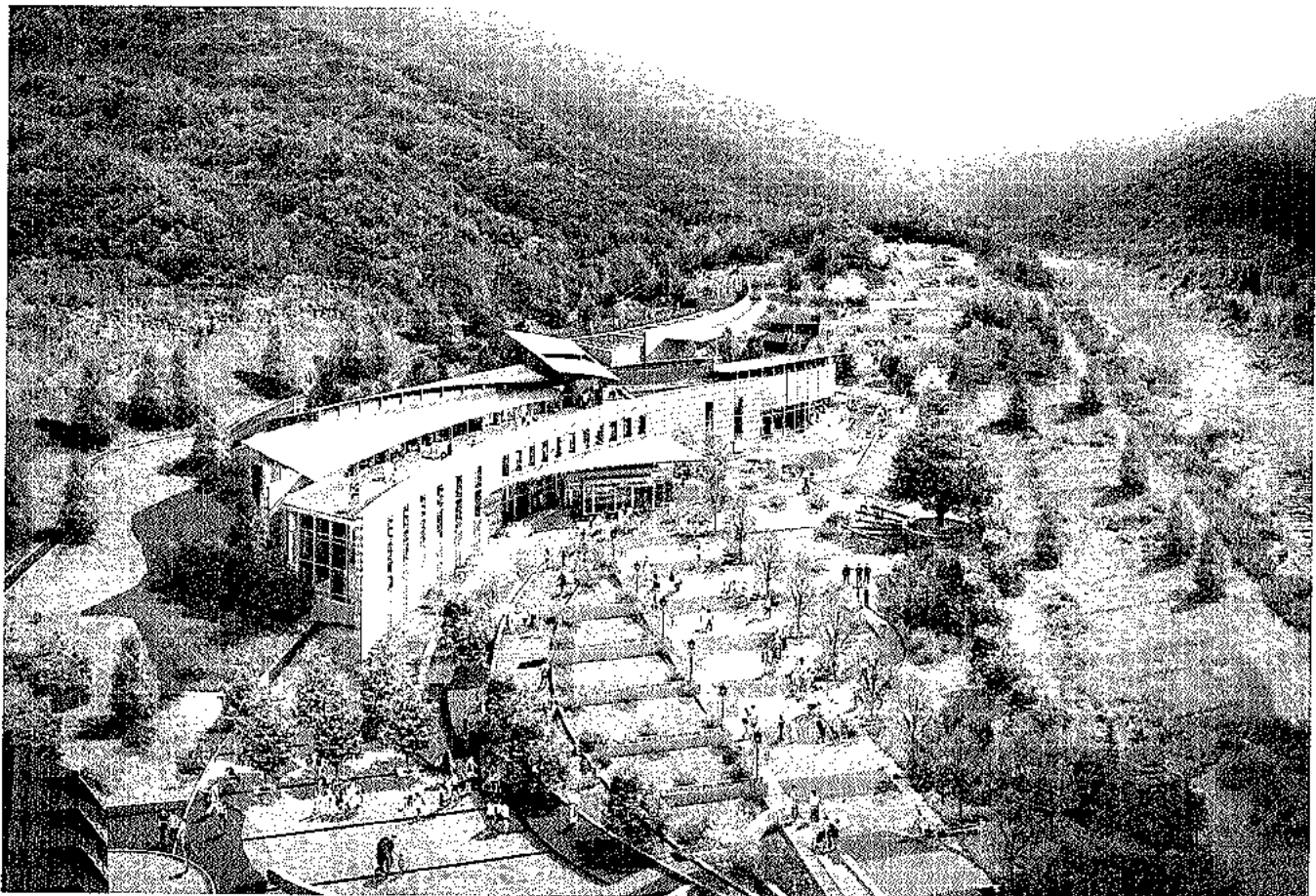
- 전면에 흐르는 창리천과 배면 산의 흐름, 물고기의 움직임을 닮는 배치계획
- 외부공간을 엮으면서 이루어지는 외부 순환동선을 형성
- 생태주택관과 민박동을 연결하는 어울광장 형성
- 학급별 수업, 야외 소모임을 위한 산내음학습장 계획

평면계획

- 진입축을 중심으로 전시영역과 연구 및 수장영역으로 분리
- 진입 축상에 있는 중앙홀을 통하여 전시영역 및 연구 수장영역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동선체계 구축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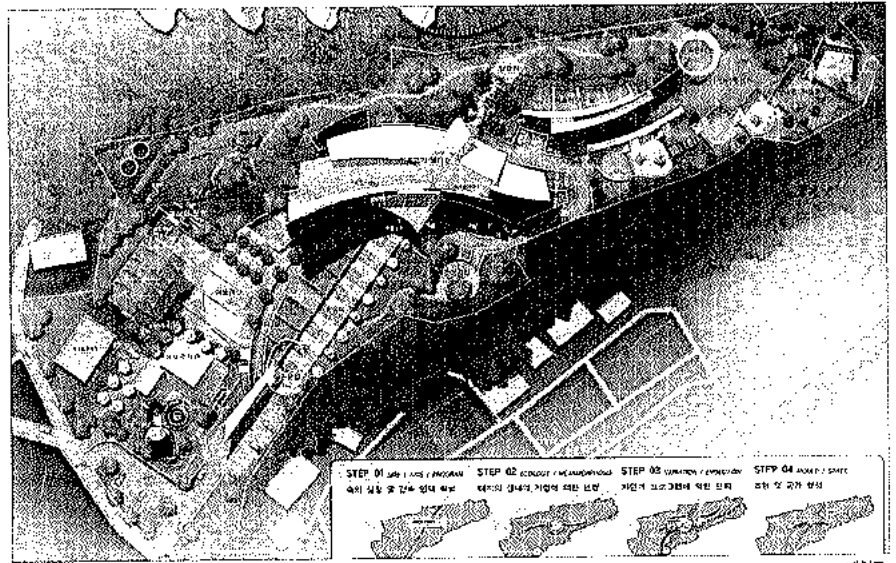
- 자연을 감싸 안은 듯한 곡선형태의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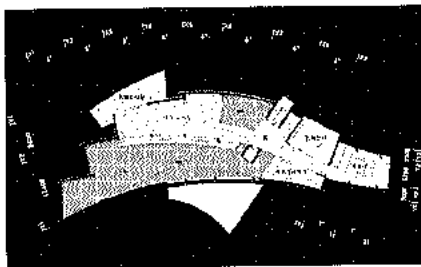
강원의 산세를 닮은 경사진 지붕형태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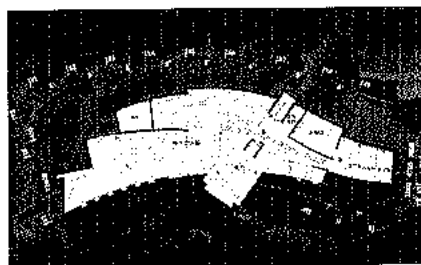
- 대지의 흐름을 따라 지하개발을 최소화 한 친환경적인 단면계획
- 레벨의 차이를 이용하여 각각 위계가 다른 공간계획(진입부-공공영역, 생태관-전시, 생태학습장, 어종연구시설-교육, 연구)
- 층고의 변화를 통한 다양한 전시공간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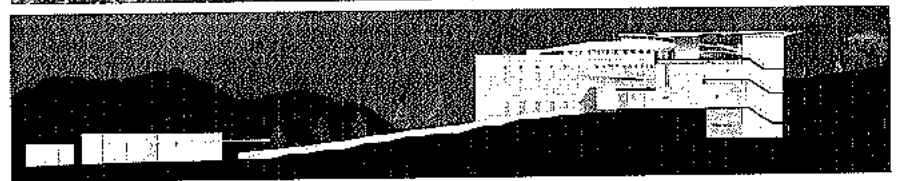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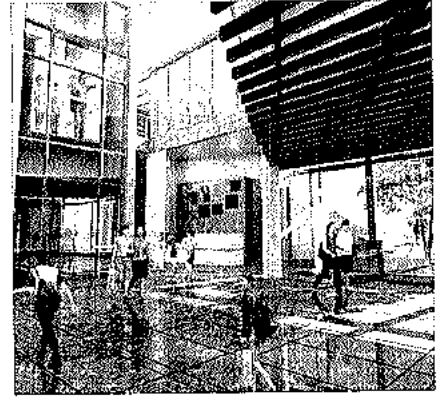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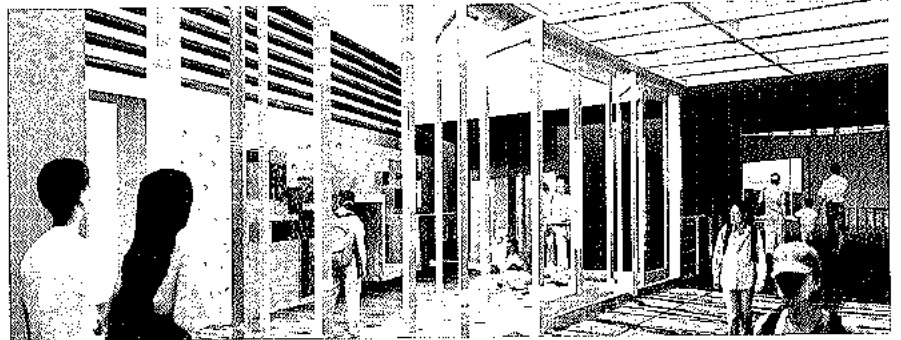
배치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층단면도



남쪽입면도

민물고기 생태관

Fresh-Water Fish Ecology Center

우수작 / 건축사무소 이카리인(최성두)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324번지 외 3필지

지역지구 관리지역

용도 전시시설

대지면적 14,350.00㎡

건축면적 983.73㎡

연면적 1,364.21㎡

건폐율 9.53%

용적률 13.22%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주차대수 자상 6대(장애자주차 1대 포함)

이륜차 주차수 : 50대(주변산책 및 트레)

외부마감 적삼목, THK 18 북향유리

설계팀 정진호, 민병근, 김영래

배치계획

배치개념

주 진입로 입구에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생태주택관과 연계하여 민물고기 생태관을 배치함으로써 건축물간의 간결한 동선과 토지이용의 합리성을 도모하였으며, 부지 하단부의 기존 주차장으로부터 직접 진입이 가능한 부진입로를 형성하여 방문객의 편의를 고려하였고, 부지 주변의 조망과 일조를 고려한 건축물 배치 계획을 하였다.

동선개념

• 보행자

생태주택관 → 민물고기생태관 → 야외생태교육장 → 자연하천학습장 → 주차장을 연계하는 보행 전용 동선을하여 효과적인 시간운영과 교육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계획

• 차량

기존 주차장을 확장하여 다수의 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하고 장애인 서비스를 고려한 주차를 주진입부에 설치함으로써 장애인, 노약자를 배려하는 차량동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서비스 차량 동선을 고려하여 부지 전체의 이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

외부공간계획

계획 개념

건물의 내부와 연결하는 전이 공간으로서 방문객들의 교육적효과와 문화적 흥미를 유발하는 공간으로 계획하여 주·야간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함으로써 뜻깊은 추억과 동심을 재발견하고, 이웃과 가족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회복하는 장(場)으로 발전시킨다.

커뮤니티 공간(야외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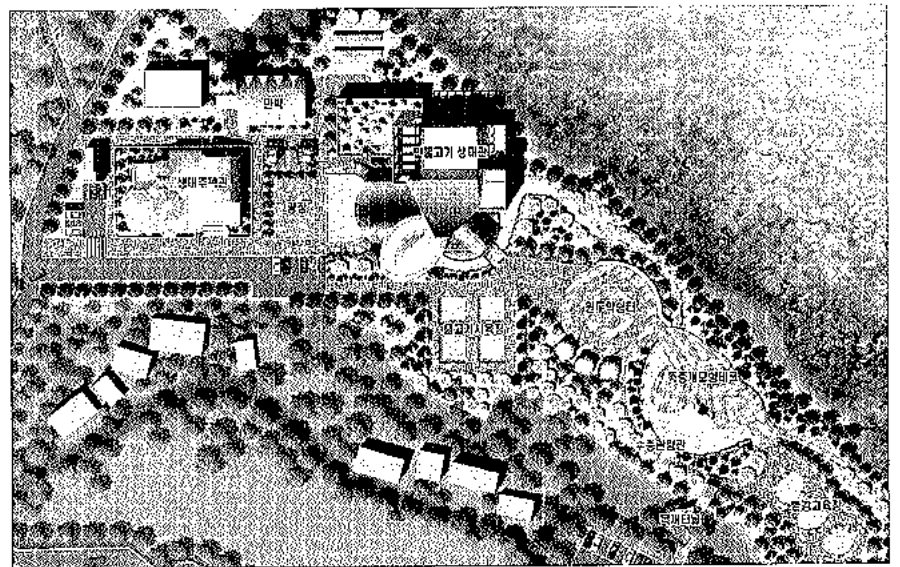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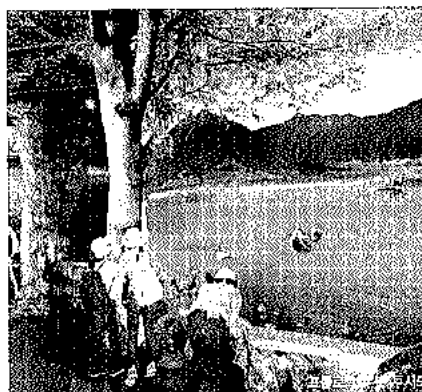
민물고기 생태관 주출입구를 목재 데크 공간으로 무대로하여 야간의 '한여름밤의 음악회'를 개최, 방문객의 소중한 문화적 추억거리를 제공

음악 분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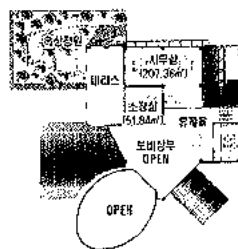
- 조명과 분수의 조화롭고 아름다운 색조
- 음악이 어울어지는 감동의 공간

물고기 양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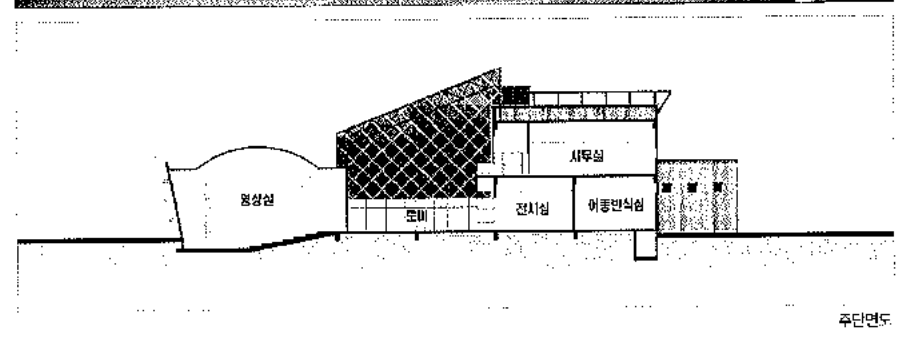
- 물고기 먹이주기
- 민물고기와 함께 사진찍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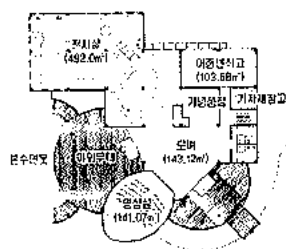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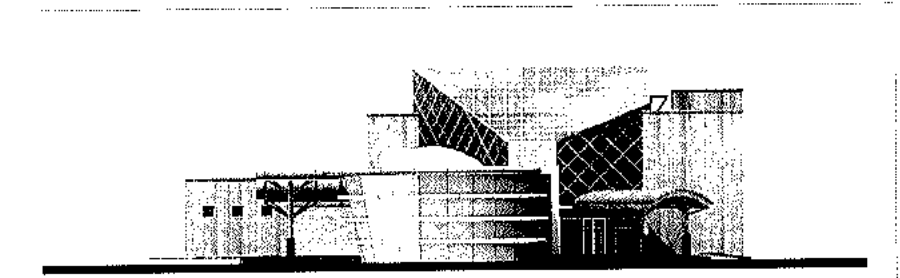
2층 평면도



주단면도



1층 평면도



우측면도

자활복지센터

Self-support Center

당선작 / (주)단우건축사사무소(최명철·이승권·
심우근) +여영호(고려대학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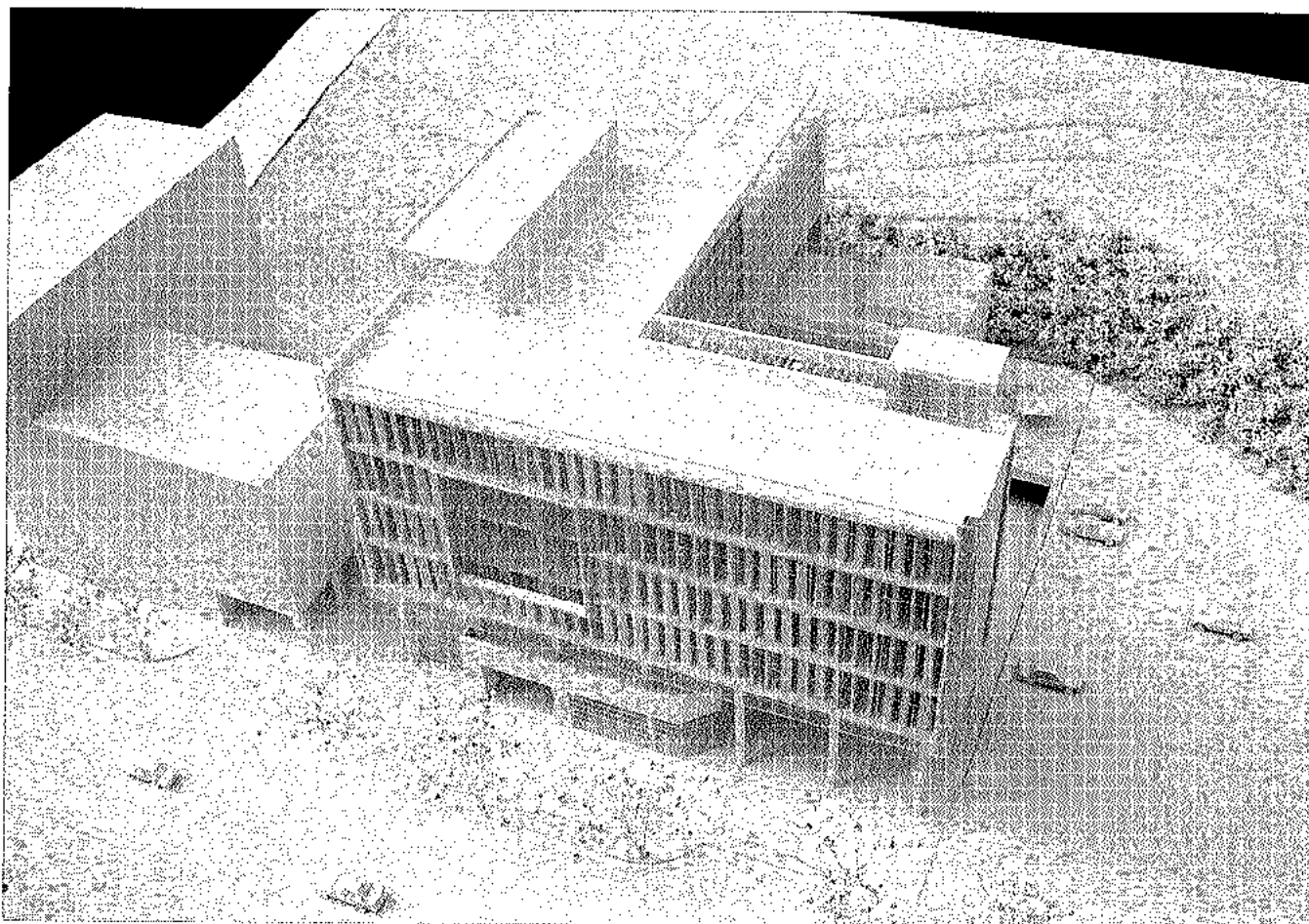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택지개발지구 2공구
대지면적 2455.00㎡
건축면적 1,209.62㎡
연면적 6,451.16㎡
건폐율 49.20%
용적률 221.23%
규모 지하1층, 지상 6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31대
외부마감 알루미늄패널, 로이복층유리, 시멘트패널
설계팀 박기현, 최홍연, 오준수, 최현영, 김수호, 박우만,
김진명, 이승준

21세기 건축문화와 공공성을 정립할 수 있는 독창적인 건축물로서 상암동 택지개발지구내의 지역적 특성과 주민의 정서를 반영하며, 또한 도시대의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있고 친환경적인 자활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본 프로젝트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성산동 주변 아파트 단지에 인접하고 있으며, 다소 폐쇄적인 교회건물이 바로 이웃하고 있는 계획대지의 장소성은 일반적인 건축 개념으로 유추해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 특히 북서측의 전면도로 만을 진입도로로서 유일하게 접하면서 요구되는 자활복지센터의 규모에 비하여 조금은 협소한 본 계획대지는 지리적으로도 상당히 성격이 모호한 장소에 위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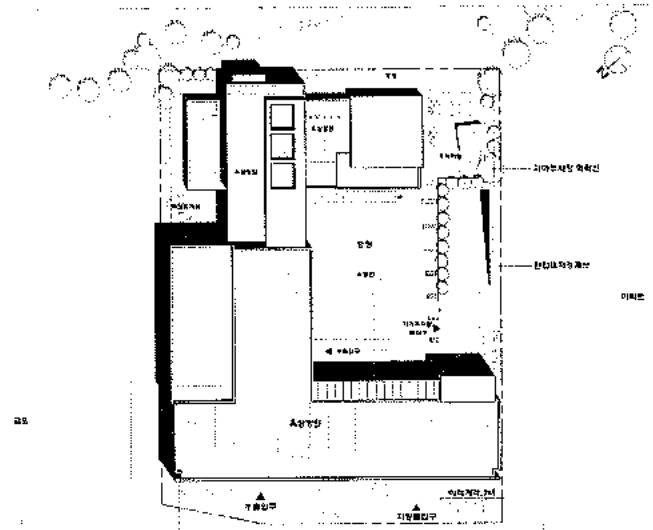
이러한 장소성의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본 자활복지센터가 친환경적인 공공성을 이루면서 도로와 대지 그리고 건축을 상호간에 충분한 공간

감과 개방감을 어떻게 창출해 낼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은 본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건축적 개념이었다. 이와 더불어 자활복지센터의 이용자들이 채광성이 좋은 중정을 외부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도 또 다른 주요사항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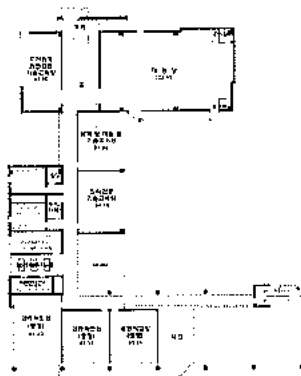
이를 위하여 자활복지센터 내의 중정은 남쪽의 채광을 확보하면서 외부로부터 보호되는 공간이 되도록 본 건축물의 주 공간을 전면도로 측으로 배치하여 자활복지센터의 정면성이 살아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배치로 인하여 자칫 야기될 수 있는 주변 환경과의 단절은 건축물의 1, 2층 부분을 개방하는 필로티 형식을 이용하여 대지와 전면도로에 인접한 개방형 매장의 외부공간과의 유기적 흐름을 통하여 해소하였다. 이러한 유기적 흐름은 대지와 건축물 그리고 건축공간과 공간 사이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예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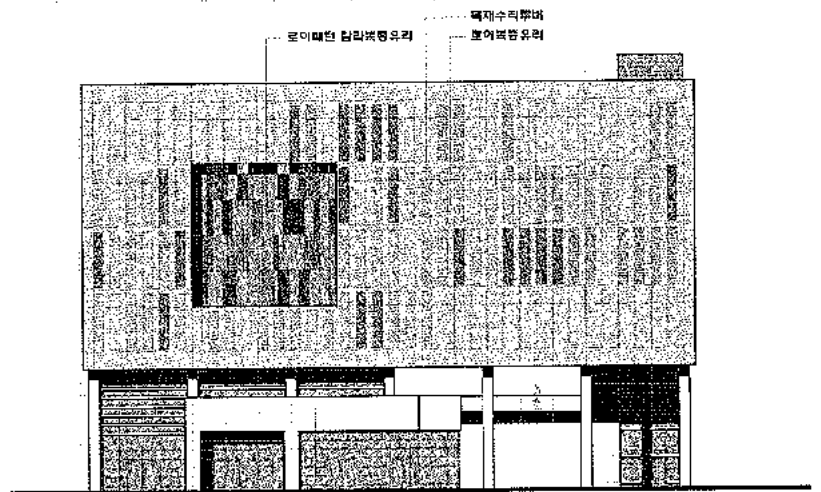
보이드(Echo Void)와 옥상 정원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지하층을 포함한 연면적 2,000여평의 6층 규모의 본 건축물은 대지내의 중정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요구되는 각 실 용도에 따른 내부 공간의 분리가 수직 및 수평으로 원활하고 간결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특히 많은 교 육실과 그에 따른 수용인원의 규모로 볼 때에 피난 동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건축공간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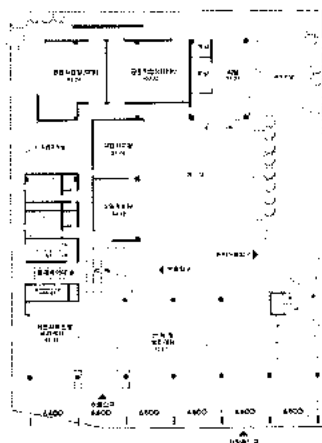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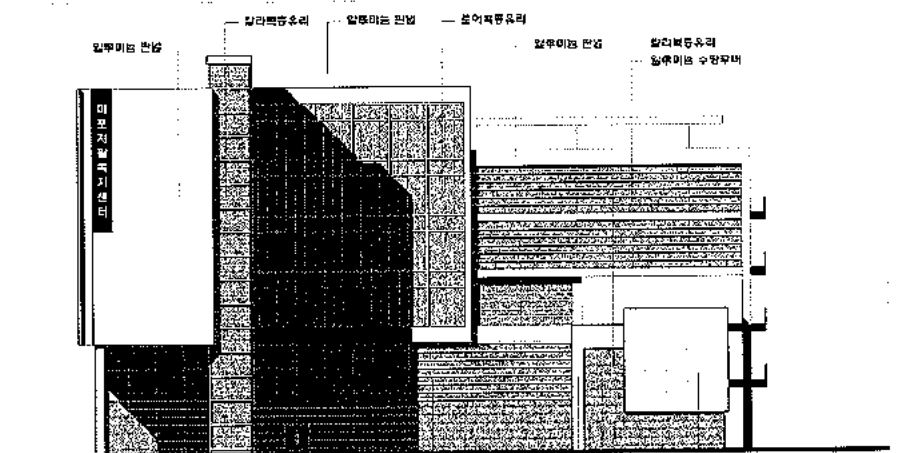
2층 평면도



정면도



1층 평면도



무늬면도

지활복지센터 Self-support Center

우주작 / (주)토우종합건축사사무소(박형배) +
(주)아키랩(최종천·권태홍) + 황영삼
(인천대 교수)

대지위치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택지개발지구 2공구
지역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2,455㎡
건축면적 1,125.80㎡
연면적 6,654.17㎡
건폐율 45.86%
용적률 202.33%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규모 지하 1층, 지상 6층
외부 마감 금속패널 + 시멘트 베이스 패널 + 적삼목
그릴 + THK24복층유리
주차대수 31대(장애인주차 2대 포함)
설계팀 토우 : 전수현, 김주형, 반창환, 손원영,
김윤경,
아키랩 : 강병권, 윤성일, 이옥화, 유연주

“그대와 우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

- 공(共) · 공(共)의 조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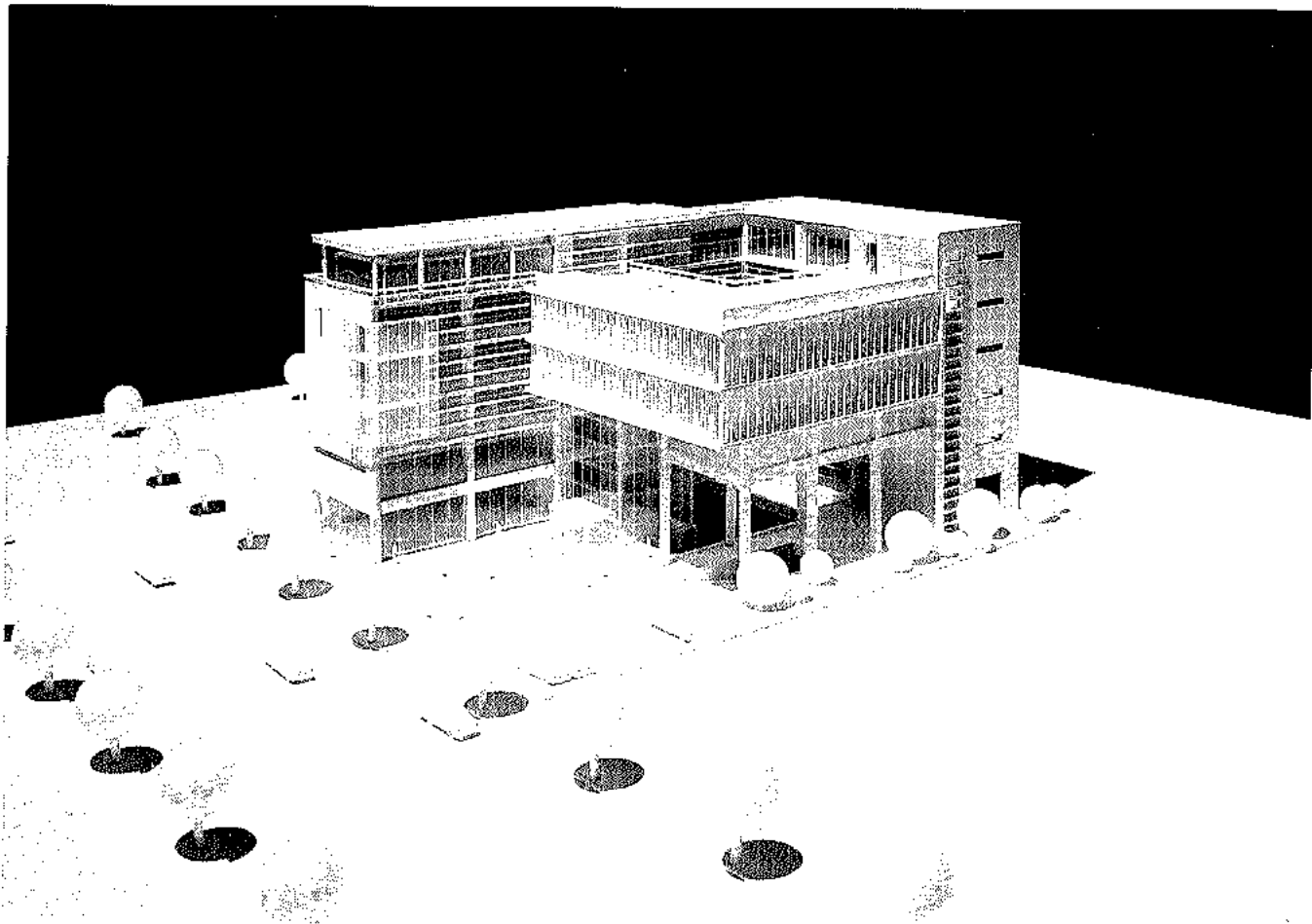
공 함께공
· 공공의 역할 강조
· 열린 지활복지센터 구현
· 자활과 창업을 위한 공간

공 빌공
· 도심의 폐쇄성 극복
· 지하공간의 적절한 활용
· 보행자를 위한 열린 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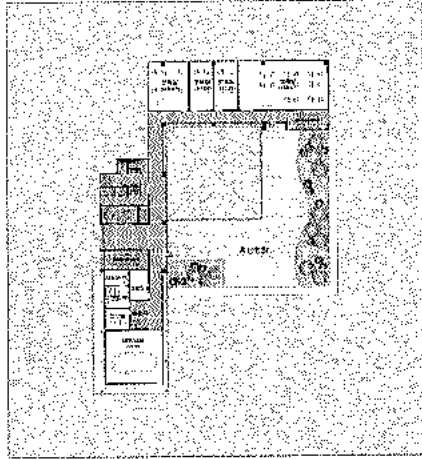
본 계획은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공공의
성격이 강한 공간으로 이용자들이 하여금 거부감
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방감을 극대화하고, 주변
환경과 원활한 관계형성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열린 공동체 공간으로서의 이미지를 살려 계획되
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건물로서 자
활센터와 창업보육 센터라는 다분히 기능적 효율
성을 요구하는 건물이며, 이 건물이 위치할 대지
는 답답한 도심이다. 그래서 두 기능이 조화롭게
유기적 관계 형성과 개방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배치계획이 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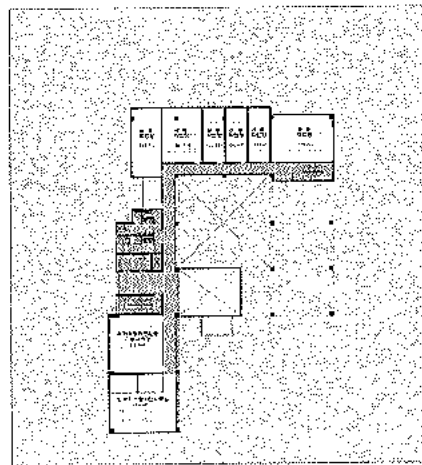
대지는 북서쪽으로 도로와 접하고 있고 나머지는
인접대지와 접한 직사각형 형태로 황방향으로 도
로에 접하고 있어 자칫 주변건물에 묻혀 답답해
보일 수 있는 형상으로 최대한 투명하고 개방감
있는 내외부의 조화로운 계획이 필요하다. 그레
서 지층부를 최대한 비움으로서 이 계획이 시작
된다. 도로를 면한 전면으로 진입광장은 도로와
완충영역을 형성하면서 피로티공간과 함께 개방
감과 접근성, 연속성을 극대화하였다. 내부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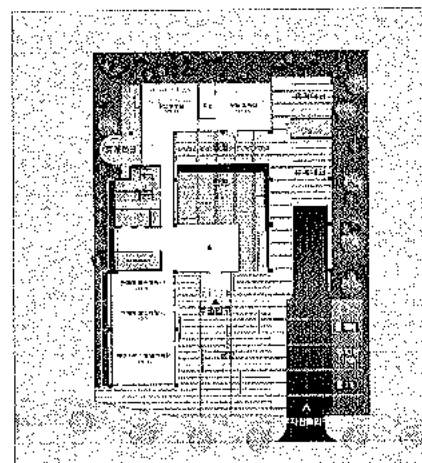
는 수직적으로 연속된 중정과 선관을 통해 답답함을 최소화 하는 동시에 쾌적한 친환경공간을 쾌하였으며, 지하공간의 채광과 환기를 도모하였다. 건물의 전면 커튼월을 통해 정면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옥상정원으로 이어지는 외부공간의 연계는 내부공간의 유기적 연계와 맞물려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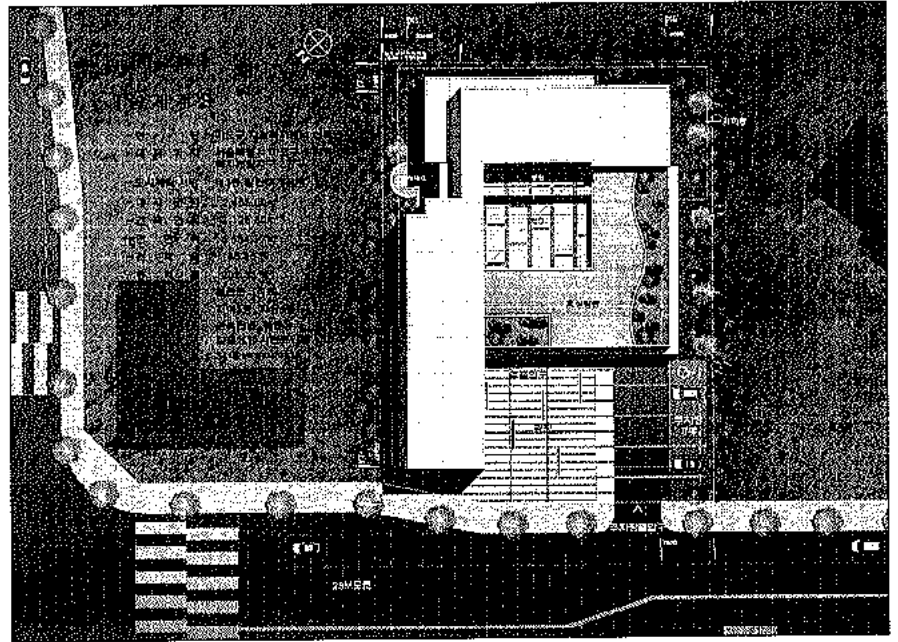
6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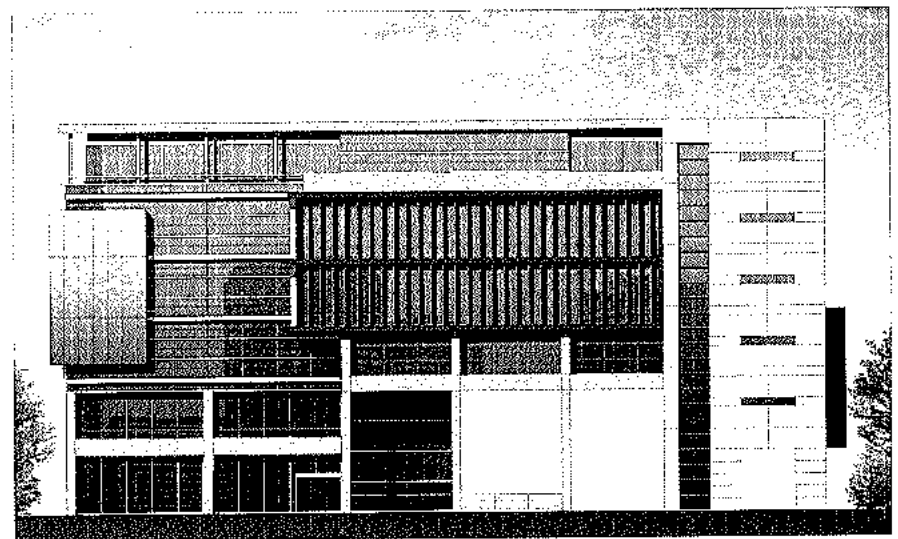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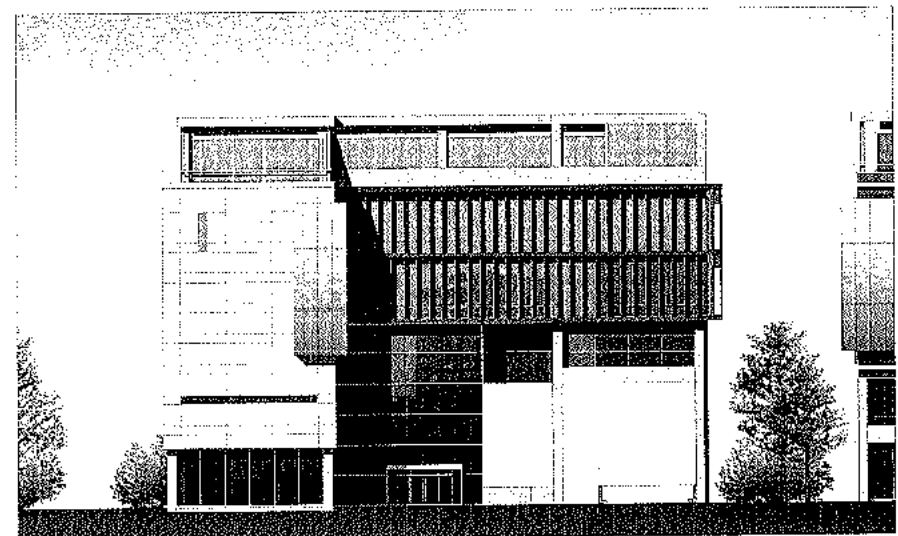
1층 평면도



배치도



우측면도



정면도

논공(대구)휴게소

Non Gong(Dae Gu) Resting Pl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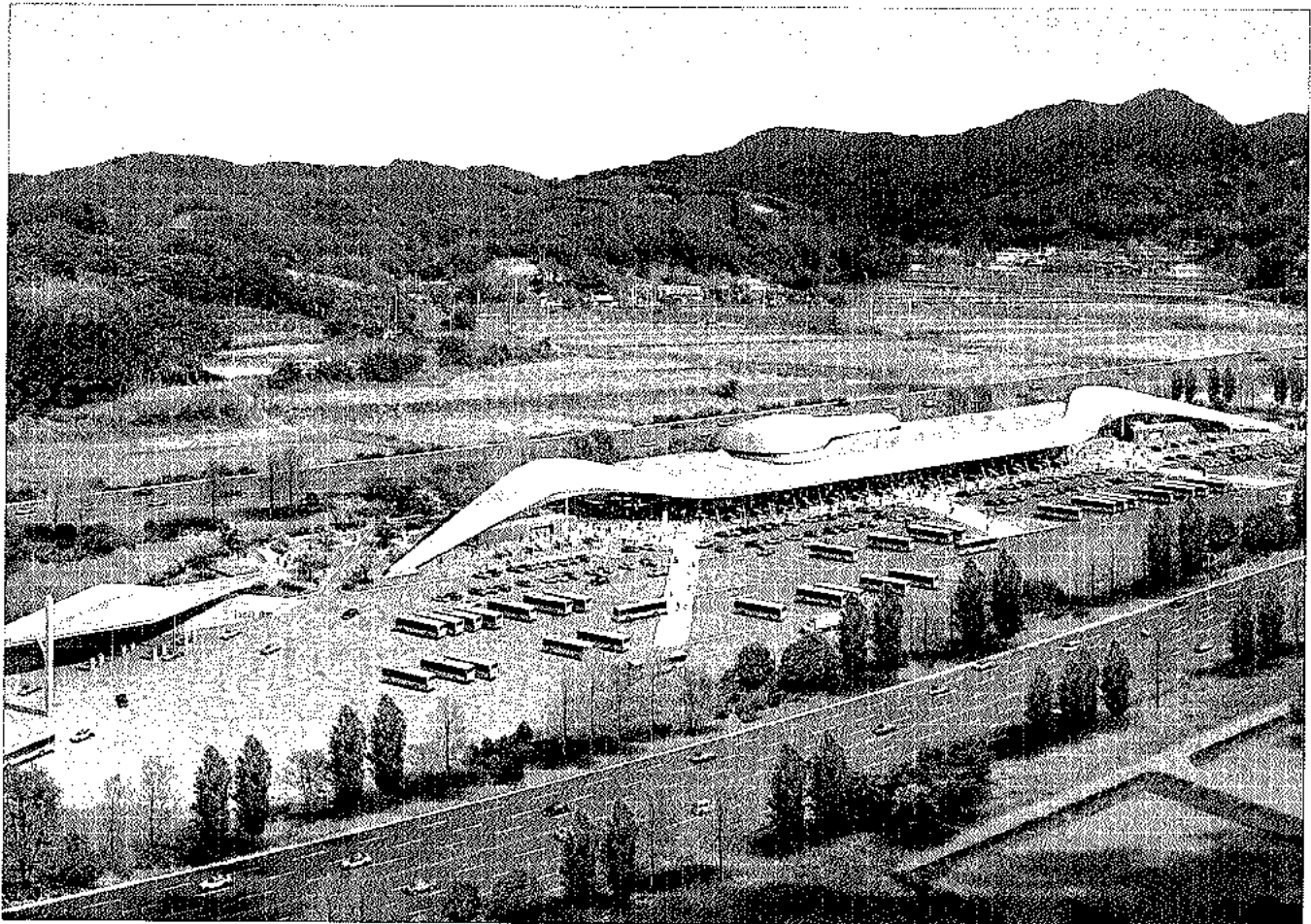
당선작 / (주)건우사 종합건축사사무소(공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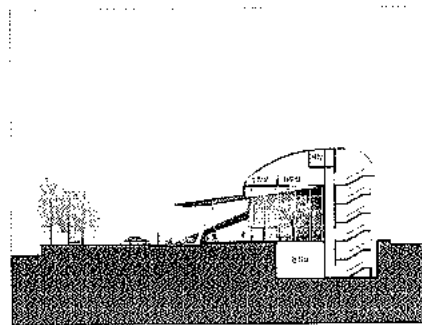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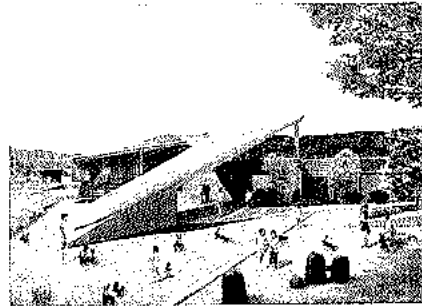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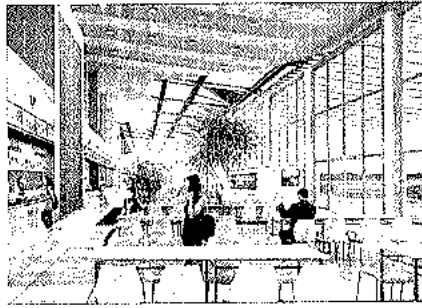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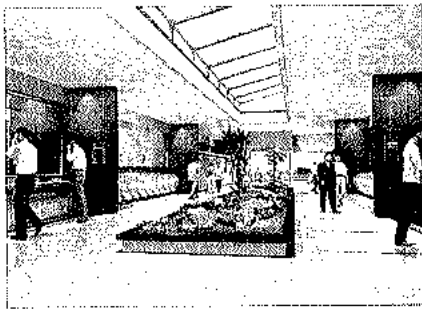
대지위치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삼리리 88울림픽션
(고사기점 177k)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용 도 휴게소
대지면적 50,092.79㎡
건축면적 8,446.08㎡
연 면 적 5,149.60㎡
건 폐 율 16.86%
용 적 륜 8.28%
구 조 철골조, 철근콘크리트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외부마감 알루미늄복합패널, T24절리복층유리, T7절
합유리, 방부합판, 모비아데크
설 계 팀 허양순, 황창석, 윤성규, 이시진, 곽노윤,
윤성욱

한국도로공사는 확장 공사 중인 대구-광주 간 88올림픽 도로에 늘어날 이용객에 대비하는 새로운 '논공휴게소'를 신축하기 위한 설계경가를 진행하였다. 도로의 확장이나 신설, 이용객의 증가로 신축되는 휴게소는 최근에 그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천안-논산 고속도로에 위치한 휴게소들과 금강휴게소가 그 대표적이다. 이들 휴게소는 이용객의 피로와 욕구를 해소할 대안을 배치와 데크공간에서 찾고 있다. 여기서는 과거에 비해 이용객의 심신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사고가 이루어졌음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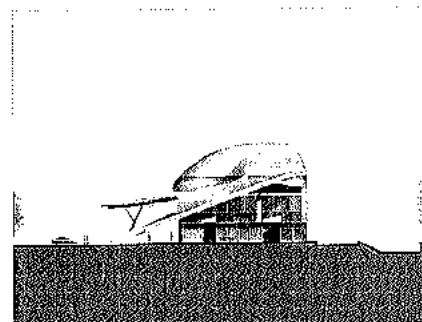
'논공휴게소'는 먹고 배설하는 기초행태 외에 이용객의 피로한 오감을 풀어줄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고자 하였다. 잠시 들르는 것 만으로도 상쾌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전형적인 긴 주차장 배치는 이용객의 동선을 길게 형성한

다. 거의 모든 위치에서 접근하는 동선을 흡수하고 각 기능으로 재분배하기 위해 데크계획에 역점을 두었다. 데크는 이번 휴게소 계획의 기본개념을 풀어놓은 공간이기도 하다. 공간 사이사이에 녹지를 도입하여 자연과 공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녹지에 의해 독립된 각각의 영역은 단순, 명쾌하게 처리되었다. 휴게소 각각의 영역 건물은 날렵한 은빛 지붕 아래 하나의 매스로 인식되며, 주유소 매스와 함께 첨단 기술력을 나타내는 이미지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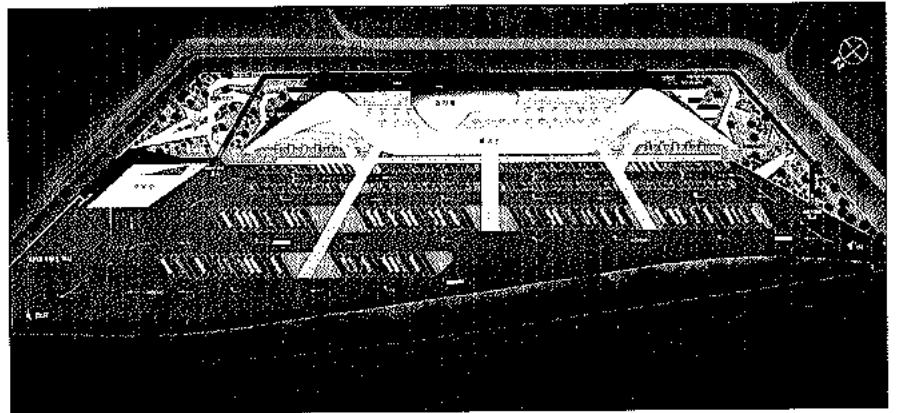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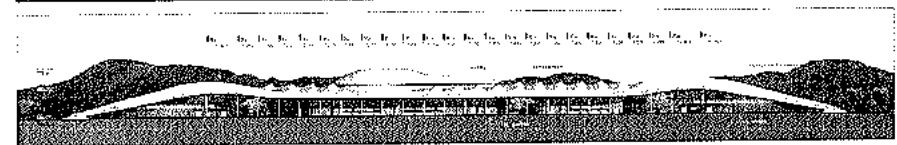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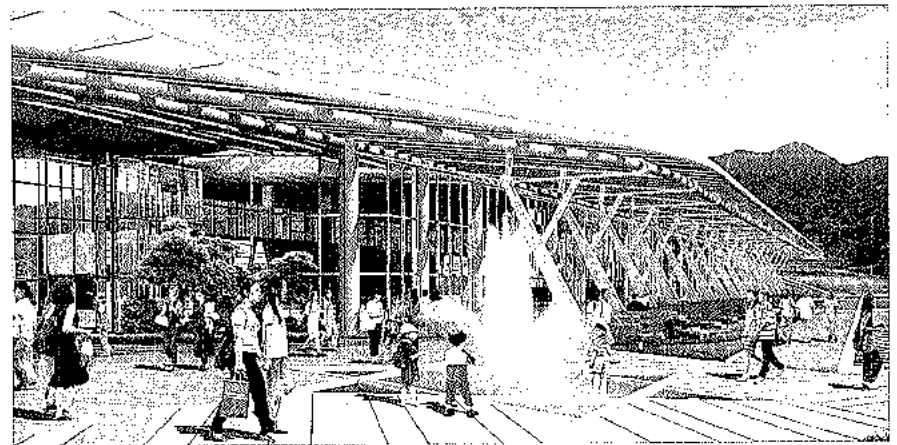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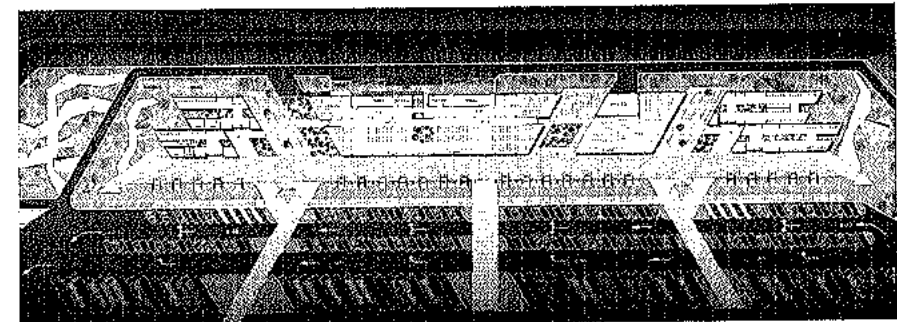
우측면도



배치도



정면도



평면도

논공(대구)휴게소

Non Gong(Dae Gu) Resting Place

가작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상
(강철희·이 원)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삼리리

용 도 관광 휴게 시설(휴게소)

대지면적 50,092.56㎡

건축면적 휴게소 : 4,961.85㎡, 주유소 : 394.26㎡

연 면 적 휴게소 : 3,101.60㎡, 주유 : 158.33㎡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 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외부마감 알루미늄 패널, 적삼옥, THK24mm 컬러복층 유리

설 계 팀 김정남, 이효성, 감병진

배치계획

-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
- 이용객의 편의제공과 자연환경을 고려한 배치
- 각 시설간의 기능과 연계성을 고려한 배치
- 고객 편의제공을 위한 휴게공간의 옥내·외 설치

외부 동선계획

- 단순 명확한 동선과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 창출
- 주차장으로부터의 고객 보행동선에 안전성 최우선 확보
- 충분한 옥외 휴게공간의 확보와 순환동선체계 확립
- 주유소의 진출부 설치로 인한 주유차량의 원활한 동선유도

내부 동선계획

- 고객동선과 서비스 및 직원 동선의 분리
- 각 기능간의 ZONING으로 동선의 원활화
- 2층 숙소 동선은 남·여 구분을 명확히하여 프라이버시(PRIVACY)를 보장
- 직원 전용의 수직 동선체계로 업무능률 향상

외부공간 계획

기본개념 - 진정한 '삶'이 있는 휴게소

- 충분한 휴식 공간 확보
- 특색있는 휴게시설
 - 생태 연못
 - 바닥 분수
 - 맨발 지압 산책로
 - 옥상 정원으로서 조망 산책로

생태 연못(BIO-TOP)

- 주변 지역에 자생하는 식물 중 선정
- 새, 곤충등을 유인하는 수종 병행 식재
- 생태계 관찰 공간 조성

바닥 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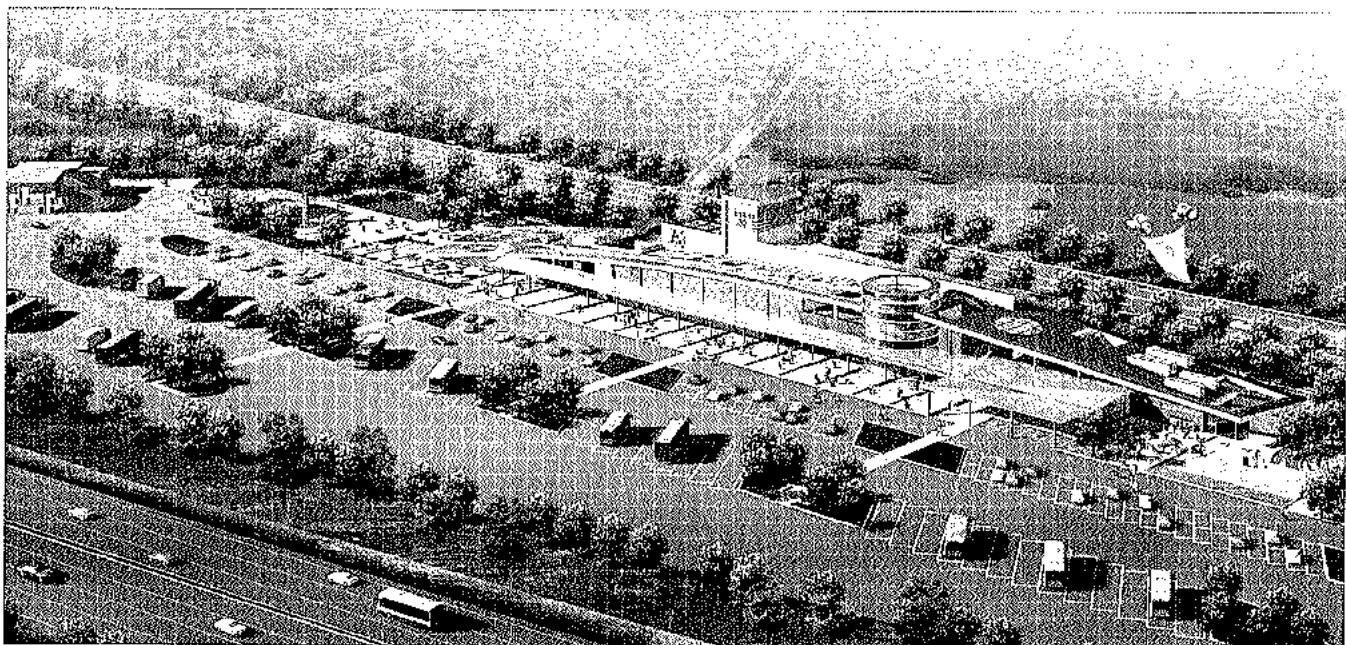
- 이용객의 접근성이 높은 친수 공간 조성
- 야간 조명을 활용한 화려한 야간 경관 연출

맨발 지압 산책로

- 여행객의 피로를 풀어주는 지압 산책로 조성

옥상 정원으로서의 산책과 조망

- 여행객의 색다른 휴식 체험 제공
- 전체 외부 공간과 연계하여 순환 동선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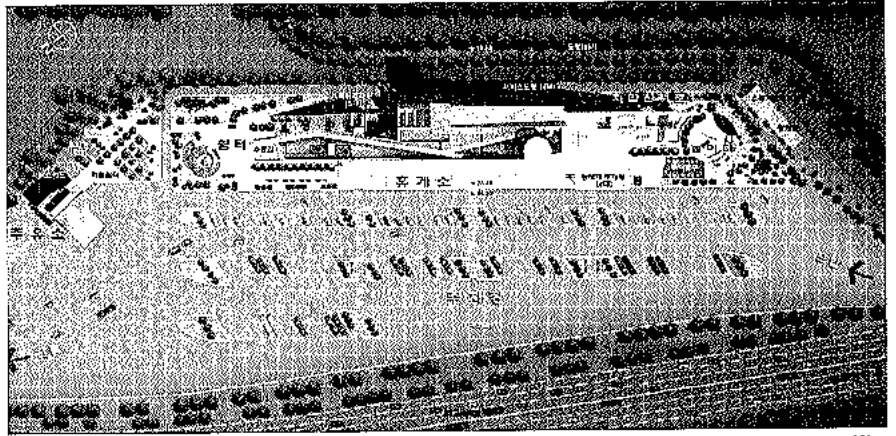


평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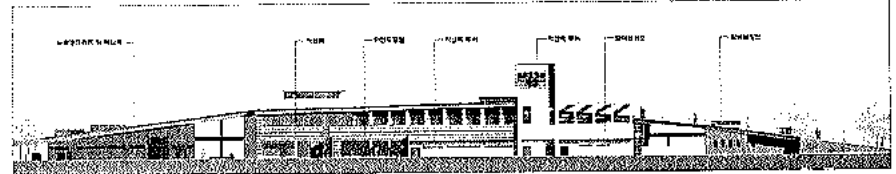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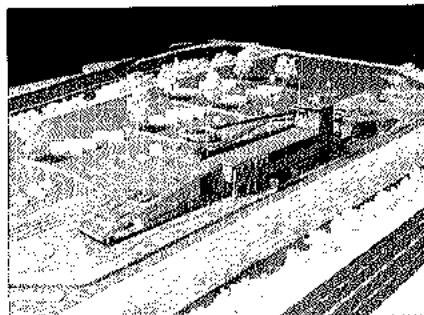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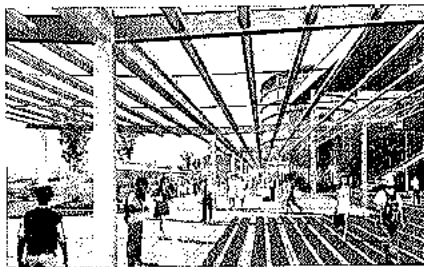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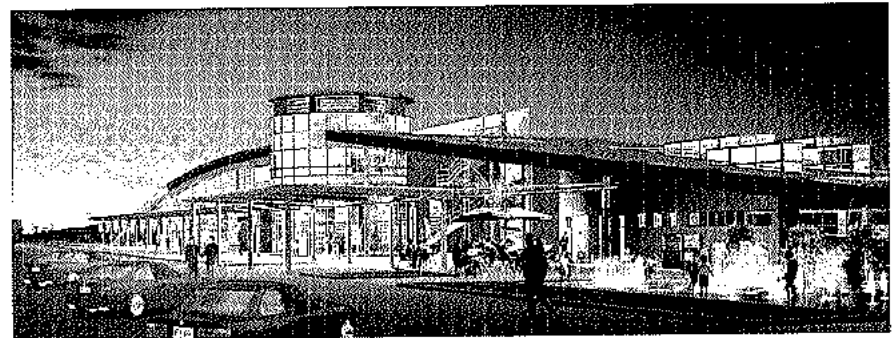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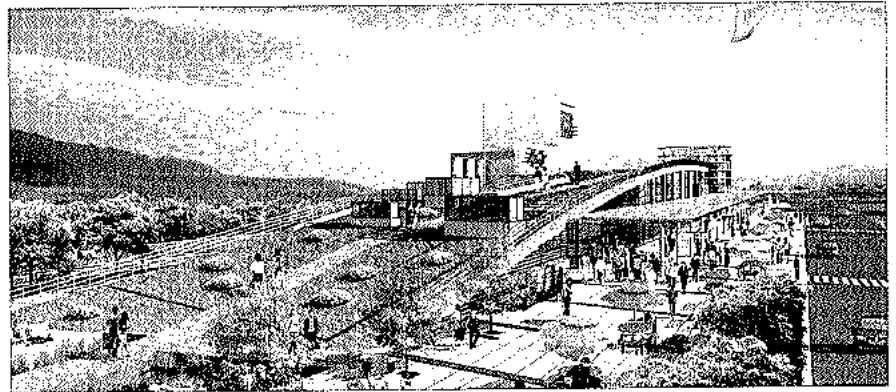
- 휴게소 평면계획
- 휴게소 기능에 적합한 계획
- 동선의 단순 원활화 계획
- 고객동선과 서비스 동선 및 직원동선의 분리
- 가변성과 범용성 고려 (휴게공간 + 매장 + 식당)
- 전면 보행공간의 충분한 확보(폭 14m 확보)
- 천창 및 유리블럭 시용으로 쾌적함의 극대화
- 매장, 화장실

휴게소 평면계획 개념-1층 기능별 ZO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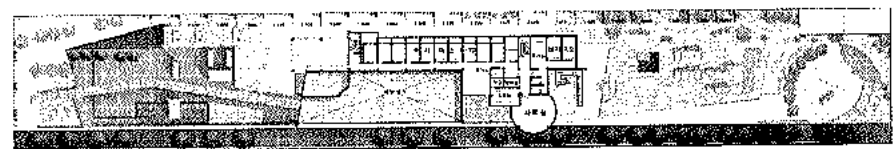
- 기능에 따른 Zoning
- 휴게시설과 화장실의 명확한 구분
- 서어비스 동선관련 주방 창고와 주요 동선과의 분리
- 남녀관리 ZONE의 명확한 구분으로 프라이버시 확보
- 천창을 통한 충분한 자연 채광의 유입 (매장, 화장실)
- 매장의 높은 층고확보로 쾌적함 극대화
- 건물 자체의 동선개념에 충실한 기능별 일렬 배치
- 직원 숙소의 남향 배치
- 일조환경
- 야간 차량 불빛으로부터 격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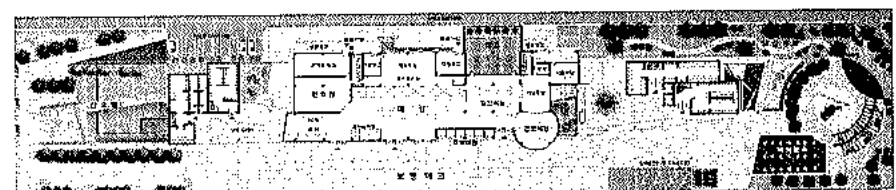
배치도



배면도



2층평면도



1층평면도

부경대학교 다목적 공학연구동

Pukyong National University Multipurpose Research Hall

당선작 / (주)성림종합건축사사무소(임장열·최근호)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 100번지 부경대학교 구내(용당캠퍼스)

건축면적 3,088.9㎡

연면적 15,403.6㎡

규모 지하 1층, 지상 18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조

주차대수 85대(장애인주차 2대포함) 법정 : 83대

외부 마감 폴리메탈패널, THK24컬러복층유리

주요시설 컨벤션센터, 다목적실내체육관, 공과대학본부, 전기·제어계측공학부, 화상정보공학부, 산업시스템 안전공학과

설계팀 이영근, 권상석, 전재덕, 조현덕, 김민수, 홍동연, 이우진, 임지혁, 장현준

이번 설계경기에서 부경대학교는 부산공업대학교와 부산수산대학교의 통합이후 국립대학의 발전적인 대안 모색으로 지역적 랜드마크가 되는 지상 16층 이상의 다목적공학연구동을 건립하고자 하였다.

본 계획에 앞서 우리는 계획건물이 들어서게 될 용당캠퍼스가 진정으로 부산의 바다경치를 감상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라는 사실을 현지조사를 할 수 있었다.

항구도시로서의 부산의 근간이 되는 컨테이너부두가 내려다보이는 용당캠퍼스는 평지에 위치한 대연캠퍼스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세계적 명성을 얻은 부산의 항만물류산업의 생생한 현장과 그곳을 터전으로 사는 주민들의 삶, 산위의 주택들, 그 뒤로 바라보이는 수평선 너머 해가 저무는 모

습들 그 모든 것들이 학교건물 사이사이에서 중첩되어 캠퍼스의 낭만으로 부산의 참 모습으로 기억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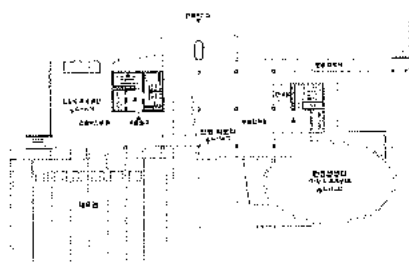
바로 그런 곳에 지역적 랜드마크가 되는 건축물을 계획함으로써 부산의 일부분으로, 부경대학교의 얼굴로, 학생들의 배움의 터전으로, 지역주민들의 참여의 장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것이라는 바람을 가져본다.

건축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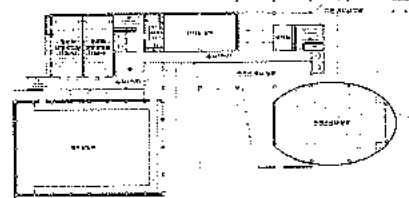
고저차가 심한 부지의 효율적 이용과 조망권 확보,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 등을 위해서 피로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주진입 상부에 교육시설을 두어 하부시설(체육관, 컨벤션센터, 기계·전기실)과 분리하여 동선을 간결하게하고 경제성을 극대화 하였다.

mass계획은 강의, 체육, 컨벤션 등 기능별로 독립된 형태를 가지면서 기존 캠퍼스의 입면요소를 차용하고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는 디자인 요소를 바탕으로 실용적이고 간결하며 변화된 입면을 구성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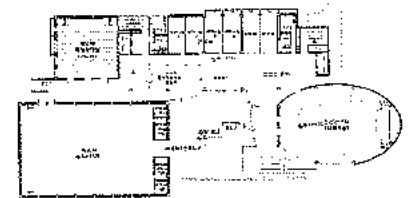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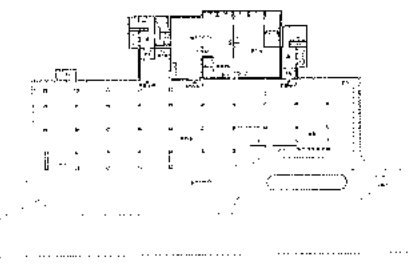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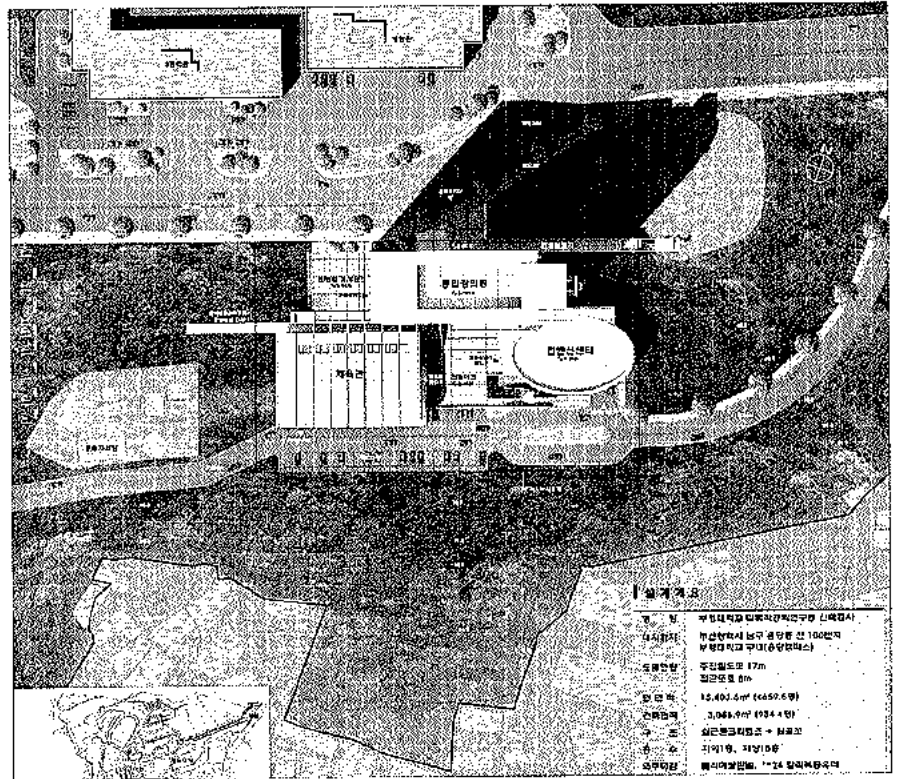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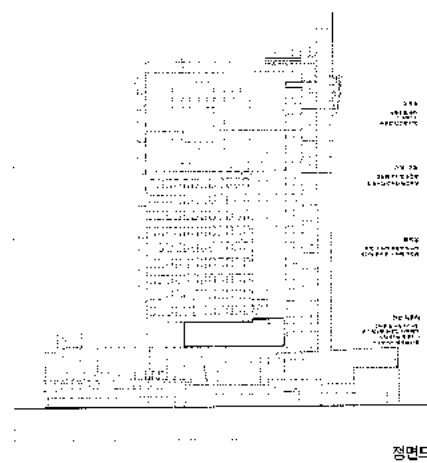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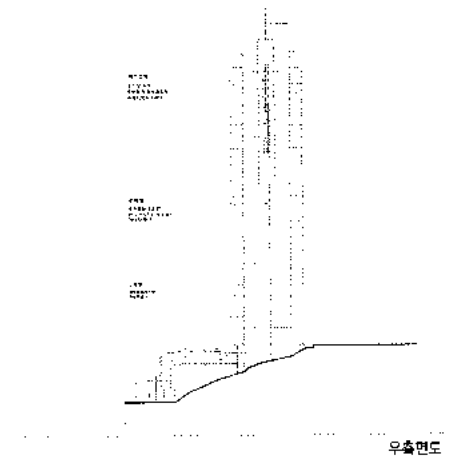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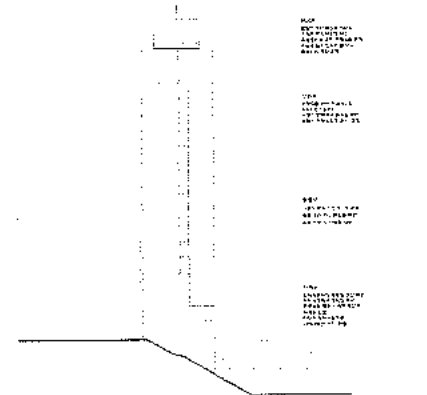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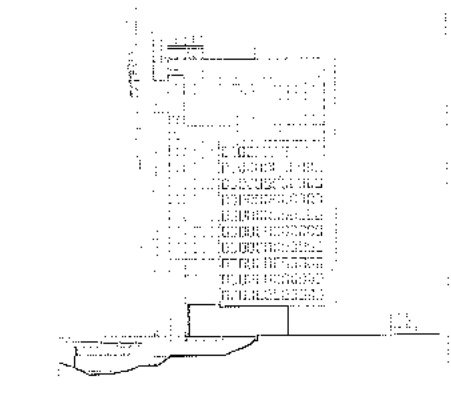
정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배면도

우수작 / (주)삼원종합건축사사무소(윤철준)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 100번지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구내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학교시설지구
대지면적 총부지 면적 328,323.00㎡ 중 6,000㎡
연면적 15,329.73㎡
규모 지상 16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주차대수 85대 (장애인주차 6대 포함)
외부마감 알미늄 패널, 회강석 마감, 복층유리, 친환경바닥재
설계팀 김갑부, 성모경, 강진구, 신재원, 이상영

건축계획

- 국제화 시대에 대응하는 정보화된 교육환경 조성
- 부경대학교 용당 캠퍼스의 랜드마크적 건물 신축 - 캠퍼스의 새로운 IDENTITY 구축
- 지형, 향, 동선 등 건축의 환경 조건을 최대한 고려
- 다기능 수용에 대한 융통성 고려
- 기존 시설과의 기능적 연계 고려 - 행정시설의 연계 고려

설비계획

- 가스엔진 구동식 히트펌프 냉·난방 방식 (GHP) 채택
- 장래 파워플랜트 이전 대응방안 계획
- 용도 및 사용 시간대별 ZONING 계획
- 녹색 에너지 설계 도입

- 신기술, 신공법 수용

- 에너지절감 및 원격제어 전등설비 계획

- 소음, 진동, 음향 등 실내외 환경 요소를 고려한 공간계획

구조계획

-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한 구조시스템 계획

- 경제성을 고려한 구조계획

- 철골 합성보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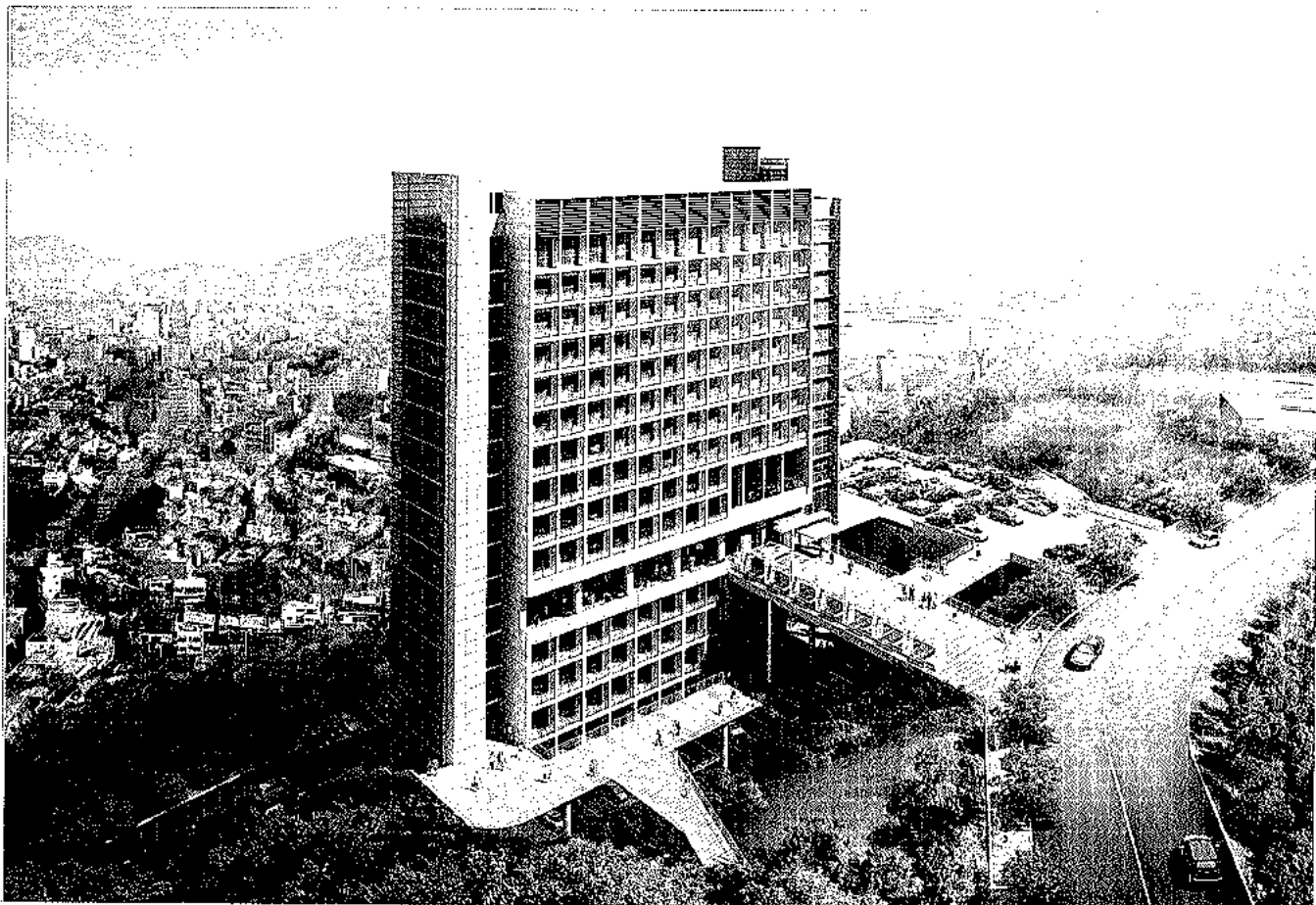
- 선조립 철선 트러스 데크 슬래브 계획

- 횡력 저항 시스템 선정 - 모멘트 골조 방식

조경계획

- 기존 수목을 최대한 살린 친환경적 외부공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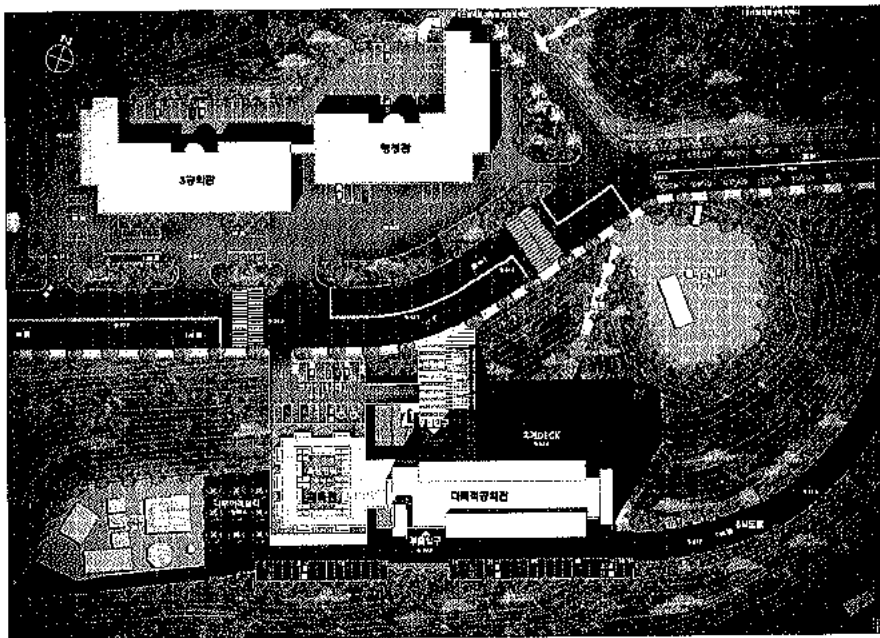
- GREEN CAMPUS 개념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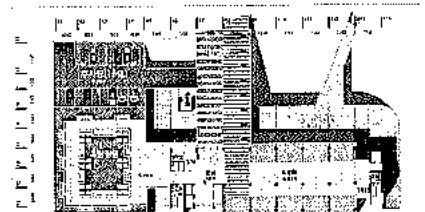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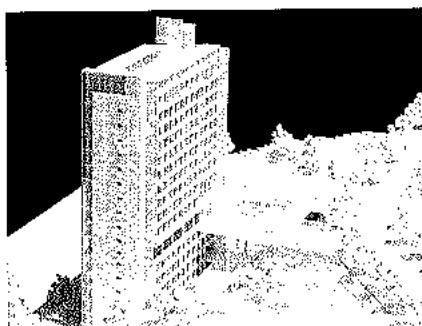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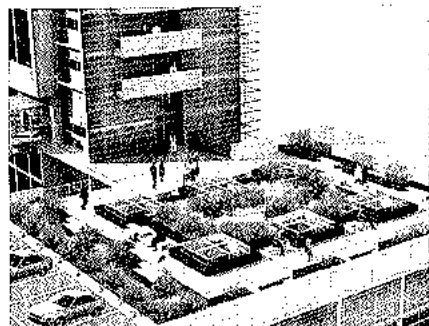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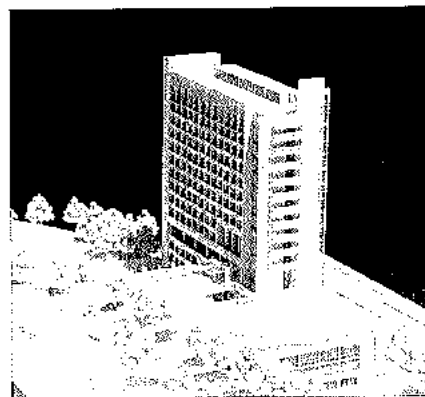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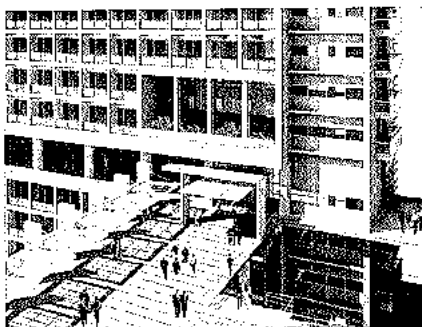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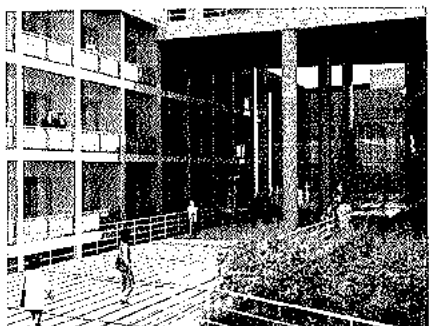
- 다양한 조경 공간 계획
 - DECK, 산책로, 진입로, 피로티 휴게 공간
 - 내부화된 옥외 조경 공간 계획
- 휴게 공간 강조하는 외부 공간 계획

기타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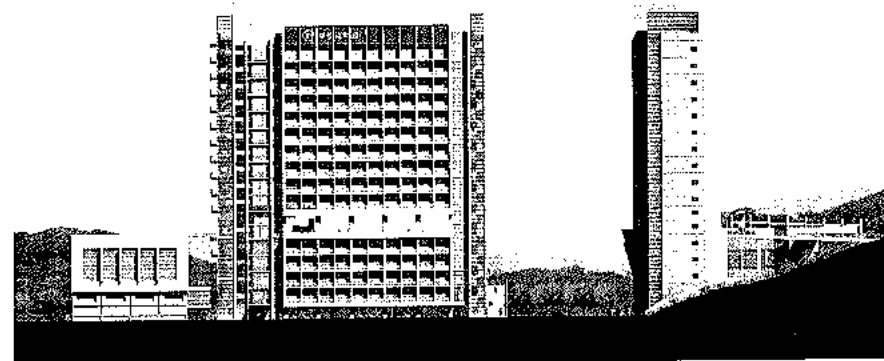
- 합리적 동선 계획
 - 다양한 접근 동선 계획
- 에너지 절약 계획 수립
 - GREEN BUILDING 개념의 친환경 건축물 계획
- 인텔리전트 빌딩 개념 도입
 - 미래지향적인 공간 계획
- 표준화 설계를 도입한 경제적 공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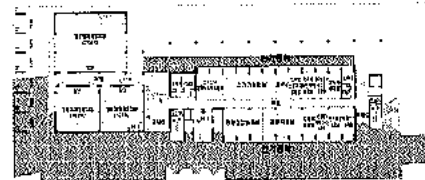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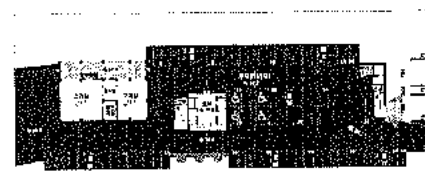
6층 평면도



남 동측입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김천(부산)휴게소

Gim-Cheon(Busan) resting place

당선작 / (주)에이텍종합건축사사무소
(김상길 · 김희옥)

대지위치 경북 김천시 농소면 신촌리 일원 (경부선
부산기점 194Km)

지역지구 관리지역

용도 관광휴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대지면적 46,117.5m²

건축면적 4,395.3m²

면적적 3,198.5m²

건폐율 9.53%

용적률 9.56%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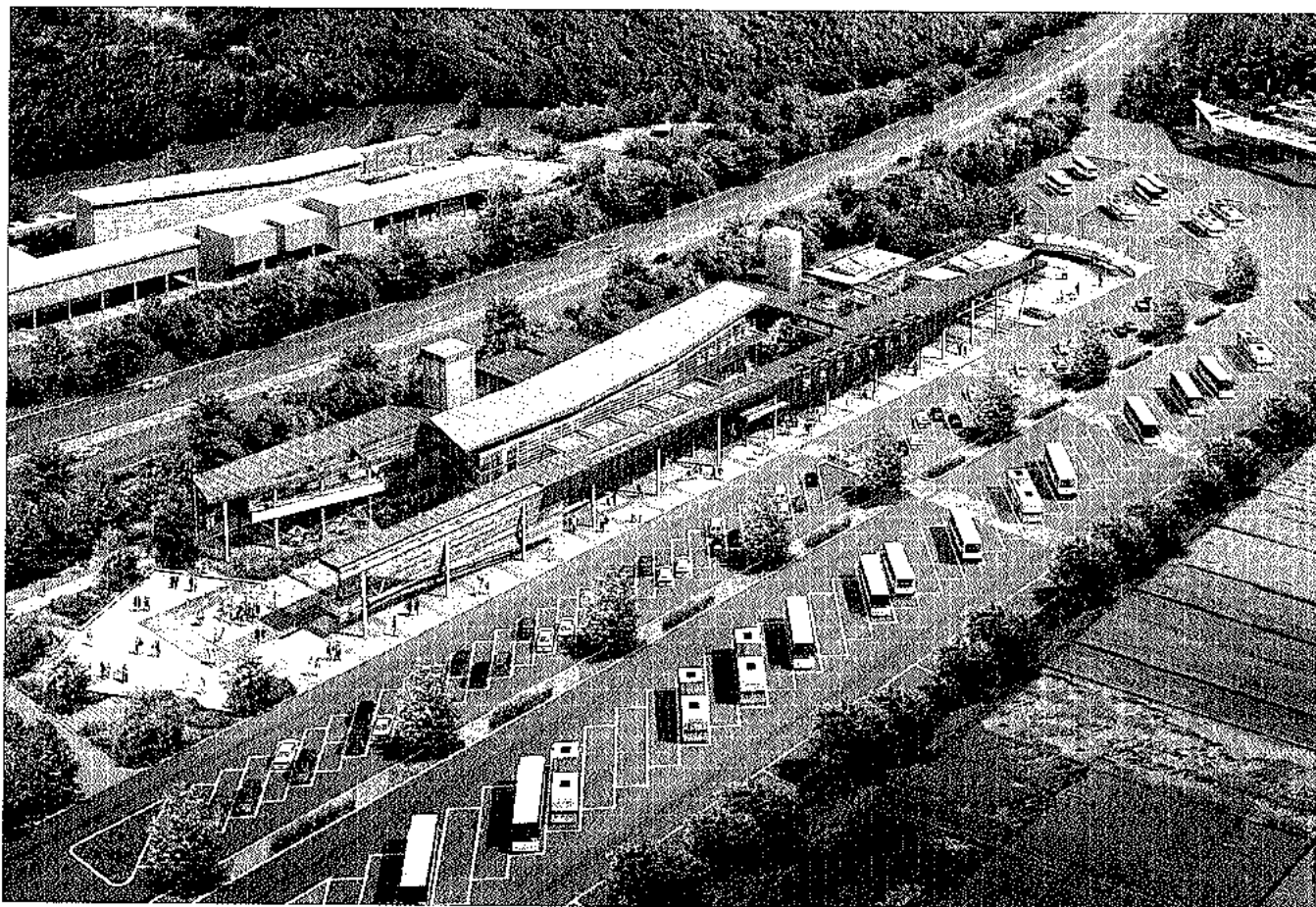
외부마감 동판, 징크패널, THK24 복층유리, 적삼목

설계팀 전병욱, 이광기, 최루벤, 김도훈, 최준석,
서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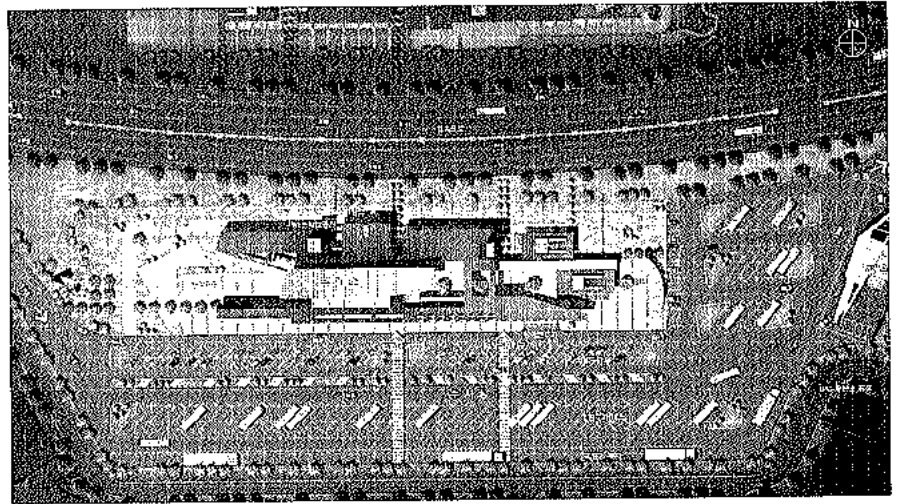
여행 중에 있는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고속도로 휴게소는 화장실을 가가위해서 들르는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환경쯤으로 생각되어졌던 것이 이전까지의 휴게소라고 한다면, 근래에는 더 나은 휴게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한국도로공사의 노력으로 많은 휴게소들이 진정한 여행객을 존중하는 그리고 건축적 완성도가 높은 휴게소로 지어지고 있다. 최근에 지어진 몇몇 휴게소는 과거의 휴게소와는 너무도 다른 공간감과 다양한 재료의 사용으로 주목할 만한 건축 작품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그러한 휴게소들을 직접 방문하면서 휴게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목격하고, 새로운 휴게소에 대한 건축 개념이 새로이 계획되는 휴게소를 지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휴게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우리 팀의 가장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번 제출한 설계안의 중심개념도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김천휴게소의 대지는 휴게소 건물이 고속도로와

주차장 사이에 위치한다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휴게소와는 전혀 다른 구성을 하고 있다. 고속도로의 소음과 오염된 공기와 근접해서 건물이 배치되는 상황은 휴게소의 기능적 측면에서 많은 제약이 된다. 또한 휴게소의 주차장 역시 환경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다. 보편적으로 과거의 고속도로휴게소는 경관이 좋은 곳에 장소를 정함으로써 휴식을 위해서 휴게소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좋은 자연환경을 잘 경험하게하고 그것을 건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계획요소이었다. 그러나 본 계획에서는 불리한 환경조건을 피할 수 있는 공간적 구성이 중요한 계획의 출발점이 된다. 다만 시각적으로 탁 트여진 경관은 휴게소 건물에서 좋은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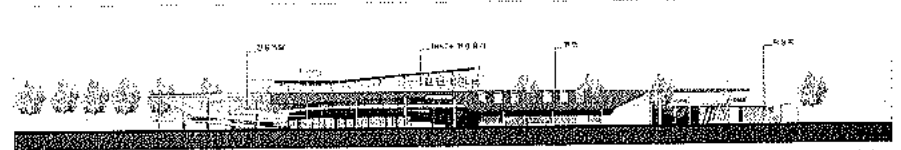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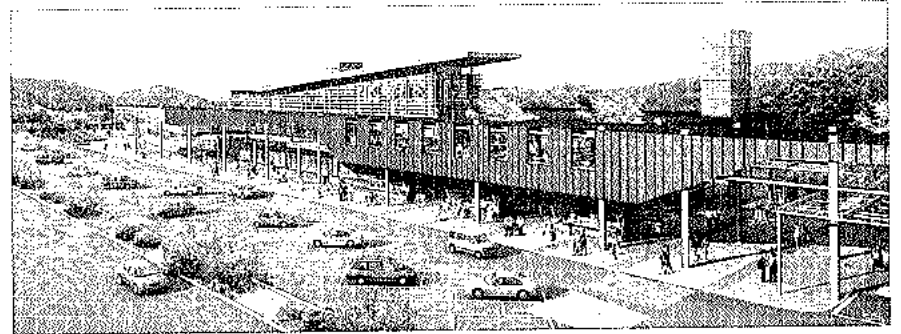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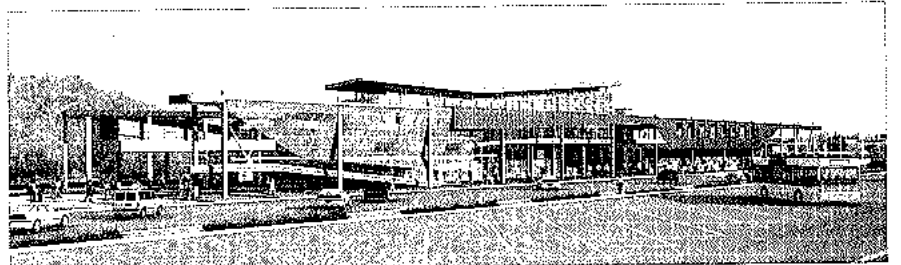
공간의 구성은 휴게소 건물이 들어서는 사이트를 3개의 커로 보아 공간을 분할하고, 가운데 설정되는 공간을 휴식을 위한 휴게공간이 되도록 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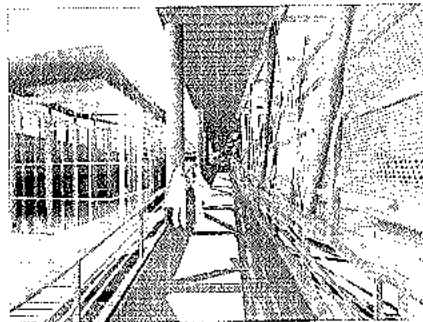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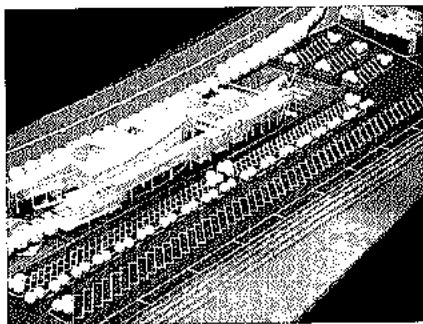
안팎의 커로 고속도로와 주차장에 대해서 공간적으로 분할시켜주는 방식으로 고속도로 쪽은 휴게소의 서브트 공간이 되고, 주차장 쪽은 진입 공간으로서 구체적인 장소로 인식될 수 있도록 두께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경사로와 브릿지가 같이 배열되어 포이어를 겸하는 구체적인 한 커를 이루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캐노피의 상단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벽면은 이번에 새로이 시도한 캐노피의 형태로 새로운 포이어 공간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공간의 한정된 상황을 이용객들에게 보여주도록 하는 요소가 된다. 최대한 길게 계획한 휴게소의 캐노피는 내부에 한정되어진 공간이 실내 공간 뿐만 아니라 지붕이 없는 옥외 공간 까지도 포함된 넓은 공간이 바로 중심 공간임을 드러나도록 보여주는 것이며, 면적을 최대화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로 고려된 것이다. 형태적으로는 3개의 공간이 레이어링 되어있는 구성을 표현하는 면들이 드러나도록 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캐노피를 지붕 면만이 아닌 수직면으로 받게 한 것이 레이어 된 벽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하늘로 치솟은 지붕과 캐노피의 입면선은 고속도로의 속도감과 경쾌한 비행 혹은 순항을 느끼게 하는 형태적 표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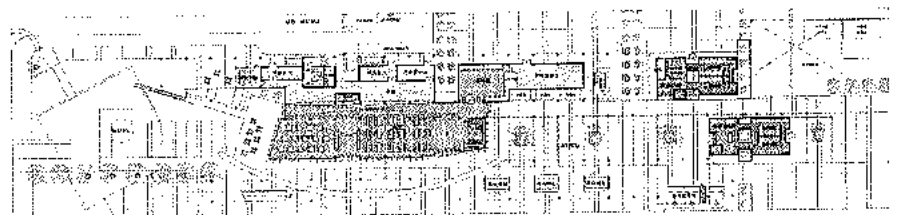
배치도



정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김천(부산)휴게소

Gimcheon(Busan) resting place

가작 / (주)TSA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손은채)

대지위치 경북 김천시 농소면 신촌리 일원 (경부선
부산기점 194Km)

지역지구 관리지역

대지면적 12,759.40㎡

건축면적 2,304.14㎡

면적 2,626.57㎡

건폐율 18.06%

용적률 20.59%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226대

외부 마감 아연도강판, LOW-E 복층유리

설계팀 오세영, 홍용희, 김현하, 주한국

대지현황

- 대부분의 기존 휴게소와 달리 주차장이 도로변이 아닌 건물쪽에 위치하여 도로방향에서의 정면성과 주차장방향에서의 정면성 상충 - 건물 북측면에서의 휴게소 인지도 중요
- 김천시는 영남지역의 관문도시로 교통의 요지일 뿐만 아니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가 김천시를 통과하고 있어 휴게소의 이용빈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됨 -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신개념의 21세기형 레저휴게소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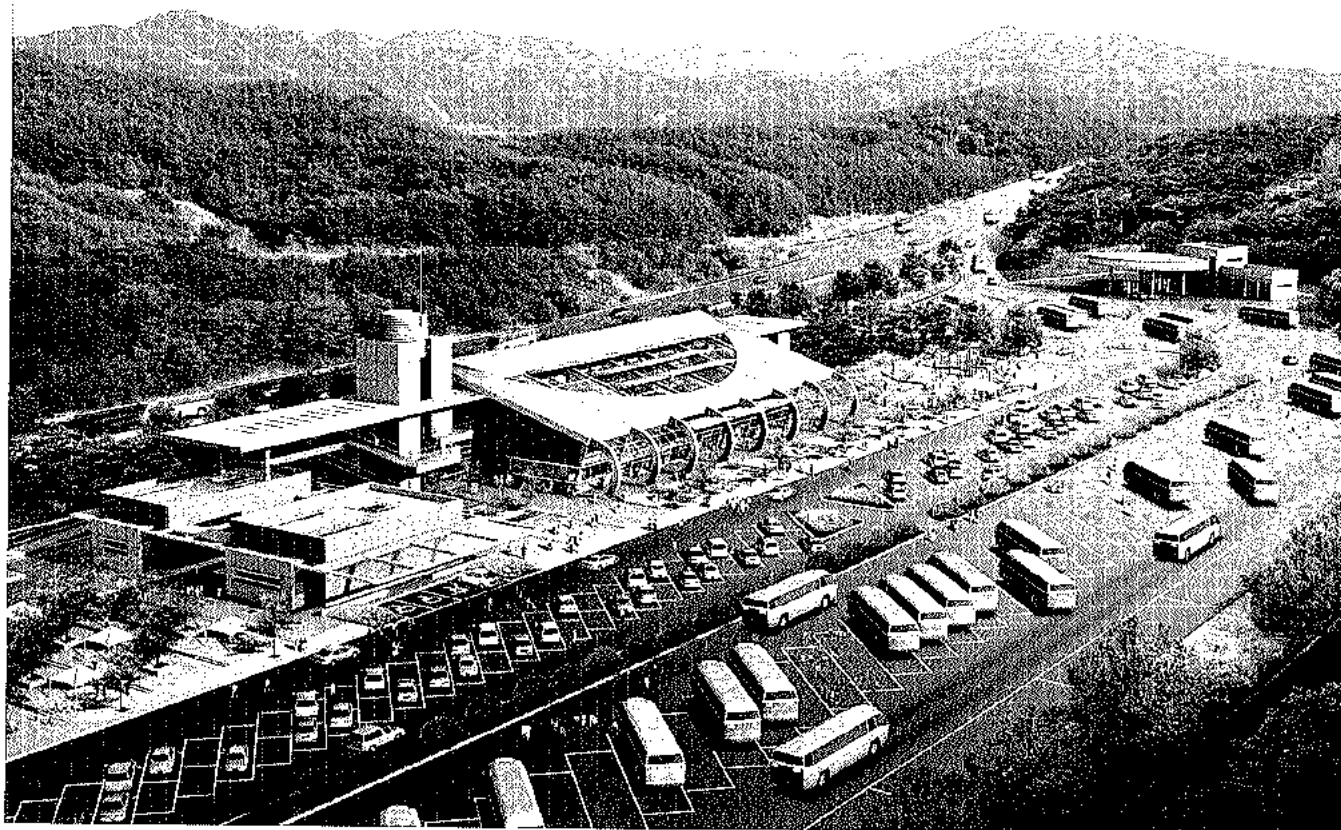
5.4m, 직원숙소 등 : 3.6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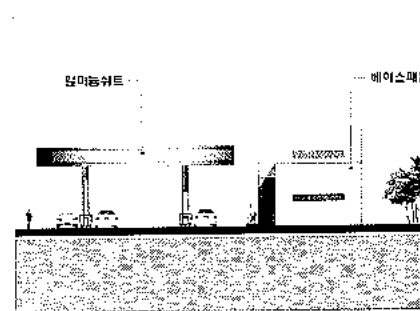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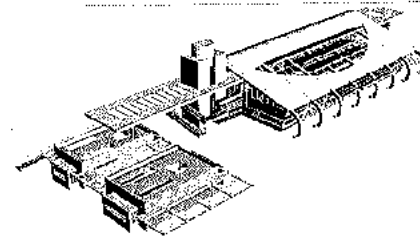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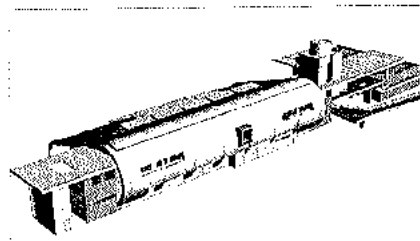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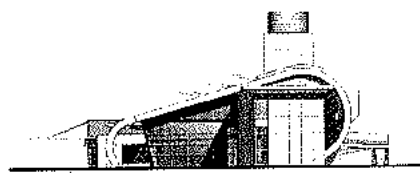
친환경계획

- 환경친화적 자재인 목재, 벽돌을 주재료 사용 - 바닥포장, 외장재
- 환경친화적 설비기준 적용
- 자연채광, 조망, 환기 극대화, 도로에서의 직원 숙소 방향 소음 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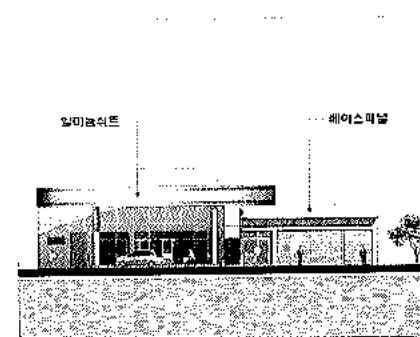
단면계획

- 기능을 고려한 층별 조닝 계획
- 다양한 공간 연출로 다이내믹한 공간감 표출
- 자연으로 열린공간 조성
- 설비시스템에 맞는 적정 층고 적용 - 휴게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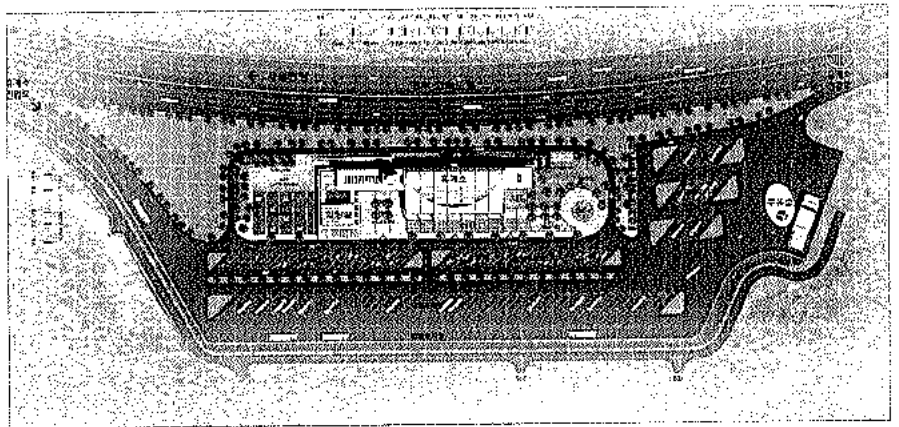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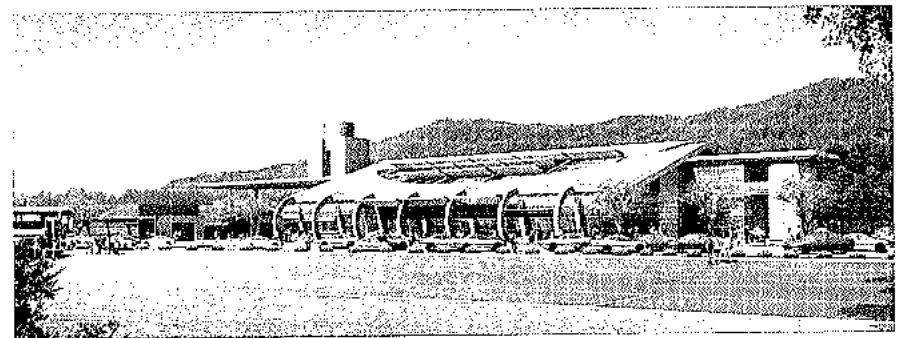
측면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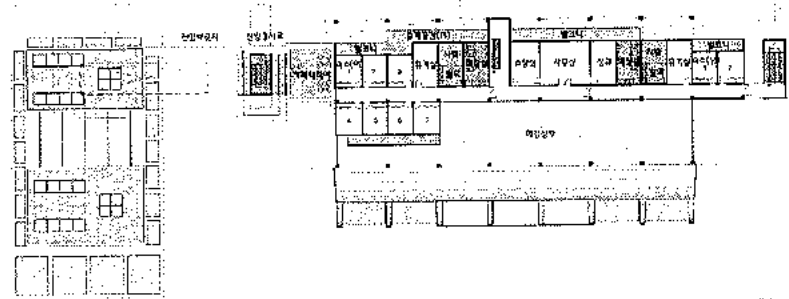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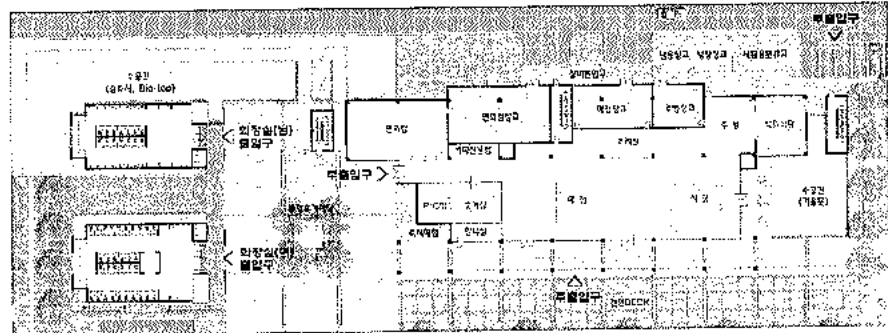
식물재 담미농원구도 벽화수확장 이산도정원 100-0 표정수확 감리복합도리



남측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u

2004년 8월

이번 호의
특집은 뉴욕
과 런던 그리
고 파리 세 도
사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집합주거의
현주소를 돌
아보는 것이



다(Housing in the City-New York, London, Paris). 각기 다른 성격의 도시에
서 이루어진 최근의 프로젝트를 다루고 있지
만 각 도시의 경향이나 특징을 파악하기보다
는 '오늘날의 도심과 교외의 집합주거'라는
다소 공통점을 찾아보는 것이 더 용이할 듯
싶다.

■ 특집 : 도시속의 집합주거-뉴욕, 런던, 파리

뉴욕에선 리처드 마이어에 설계된 페리스트리
트 아파트를 포함하여 4개, 런던에서는 리처드 로
저스의 에세이와 그가 설계한 몬테비트로를 포함
하여 근작 3개(한 곳은 런던이 아니라 베딩턴의
프로젝트이다), 파리에서는 파리좌안지구에 완성
된 5개의 아파트먼트와 이 지구의 마스터플랜을
담당한 크리스티앙 드 포점박의 에세이가 게재되
었다. 이들 집합주택의 공통점은 대부분 공장 등
의 이전 적지에 대한 재개발이거나 기존 주거 및
타 용도 건물에 대한 증, 개축이라는 점이다. 이는
곧 재개발 지구는 주변 지구와 증개축 건물은 기
존 건물 및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하는
동시에 동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도시의 미래를
보여주어야 하는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뉴욕-리처드 마이어(Richard Meier)의
173/176 페리스트리트 아파트(1999-2003)와 찰
스스트리트 아파트(2003-2005)

리처드 마이어가 설계한 최초의 트윈 타워형 복
합 주거는 맨하튼의 그리니치 빌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페리스트리트 상공에서 허드슨강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다. 이 16층 높이의 타워는 동서를
연결하는 페리스트리트와 웨스트 스트리트의 복단
이 만나는 코너에 서 있다. 뉴욕의 스카이라인은
투명하고 미니멀한 형태의 건물이 추가되면서 더
욱 인상적인 것이 되었다. 건물은 복층유리와 세도
우 박스가 붙은 백색의 메탈패널로 이루어진 커튼
월로 피복되었다. 허드슨강과 맨하탄 그리고 뉴저
지의 강변이 펼쳐지는 파노라믹 뷰는 이 아파트의
거주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의 하나이다. 거주
자는 페리스트리트측에서 건물에 진입하여 현관을
지나 로비를 통과해 가게 된다. 아파트의 주호 하
나가 한 층을 점하고 있으며, 각각의 면적은 북동
(北棟)에 해당하는 페리스트리트173에서 약 167.2
㎡, 남동에 해당하는 페리스트리트176에서 약
348.4㎡이다. 커다란 개폐식 창은 바닥 플레이트
에 고정된 유리 커튼월 속에 묻혀 배치되었다. 각
건물의 후면은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된 코어가 돌
출되어 있다. 플로어 전체에서 페리미터 난방을 함
으로써 유리커튼월의 사용범위를 넓힐 수 있었다.

페리스트리트에 면한 두 동의 집합주택과 나란
히 찰스스트리트에 면한 아파트먼트가 세워진다.
2005년 완공 예정인 이 아파트도 찰스스트리트



페리스트리트 아파트(1999-2003)와 찰스스트리트 아파트(2003-2005)

의 것과 마찬가지로 백색 메탈패널 및 유리로 된 커튼월을 사용하여 결정체와 같은 이미지로 디자인되었다. 2층과 최상층의 펜트하우스를 제외하곤 1개 층에 2주호씩 들어가는 찰스스리트의 아파트는 거주자에 의해 변경이 가능한 로프트스페이스를 가진 페리스트리의 아파트먼트와는 달리 모든 것이 건축사에 의해 짜여져 있다.

런던-리처드 로저스의 몬테비트로 주택재개발 프로젝트(1994-2000)

몬테비트로 주택재개발프로젝트는 첼시(Chelsea)의 체이니 워크(Cheyne Walk)를 내려다보는 템즈강의 남쪽 베타시 리치(Battersea Reach)에 계획되었다. 부지는 20세기 초두에 건설된 제분소의 이적지로서 이 제분소는 1980년대에 폐쇄되었다. 주변 환경은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동쪽에는 테라스하우스나 빌라보다 더 오래된 1960년대의 고층 주택이 남아 있고, 서쪽에는 18세기 건축물의 리스트에 그 이름이 올라 있는 성 매리 교회가 있다. 리처드 로저스 파트너십은 이 인상적인 건축물을 계획하는데 있어 강변도로를 따라 펼쳐지는 경관에 변화를 주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성 매리 교회의 분위기를 한 층 돌아내는 인근의 강변공원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부지계획은 연속되는 5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었다. 이것들은 부지 동측에 20층 규모의 블록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가면서 사선을 만들어 가며 그 높이를 낮춰 가장 서측의 블록에서는 4층 높이까지 낮아진다. 엘리베이터와 계단으로 구성된 타워가 블록과 블록을 연결하며 몬테비트로에 강렬한 입체감을 부여하였다. 이 계획의 서측 파사드에는 매끈한 유리를 사용하여 템즈강이나 첼시의 장대한 경관을 조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층부에서는 런던 서부 전체를 바라볼 수 있다. 90~230㎡의 면적을 갖는 103개의 주호 모두 템즈강을 전망하는 넓은 발코니를 갖추고 있으며 아오는 대조적으로 엘리베이터의 움직임이 밖으로 노출되는 후면의 입면에는 테라코타 패널이 마감재로 사용되어 육중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도로에 면한 저층 블록에는 헬스클럽이나 레저클럽 등의 시설이 들어섰다.

파리-파리 좌안(左岸)지구의 마스터플랜과 아파트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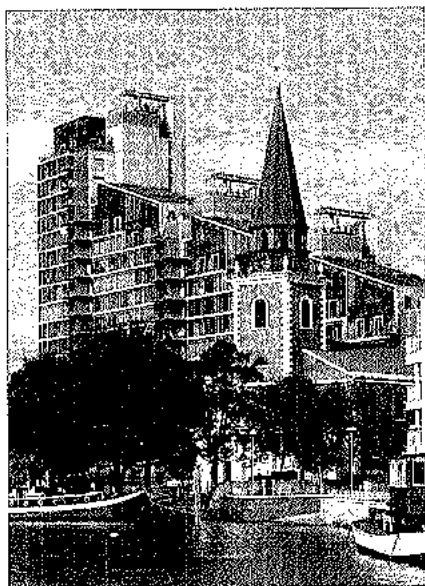
'세느강 좌안(左岸)지구(Paris Rive Gauche)'의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의 개발이 이루어진 것은 19세기 오스만에 의한 도시개조 이래 처음이다. 세느강 좌안지구는 한편을 세느

강에 접하고 다른 한편은 슈발레레거리까지 이어지는 지역 일대이다. 정확히는 오스텔리츠 역에서 불바르 마세나까지의 범위이다. 새로운 근린자구가 일상의 생활을 쾌적하게 하는 제사설과 함께 현재 이 곳의 중심적 건축인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주변이기도 하다. 연일 새로운 주택지, 사무소, 문화활동시설, 점포, 서비스시설, 학교, 대학 그리고 공공의 문화시설이 건설되고 있다. 도시를 최대한 즐기고 생활하며, 일하는 장으로 만드는 시설들이 차례차례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불과 수 년 전까지만 해도 파리 13구에 해당하는 이 일대에는 오래된 공장들이 모여 있었으며, 지금과 같은 활력과 투자의 모습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1991년 1개의 도시개발지구(ZAC)가 만들어진 것을 계기로 SEMAPA(파리 정비경제통합기업체)가 주도하는 파리좌안개발계획의 착수가 가능해졌다. 지금으로선 어느 정도 이 지구가 변했는지 알아보기도 힘일 정도이다. 현재 15,000명의 거주자와 30,000명의 학생과 교원 그리고 60,000명의 근로자가 이곳에서 활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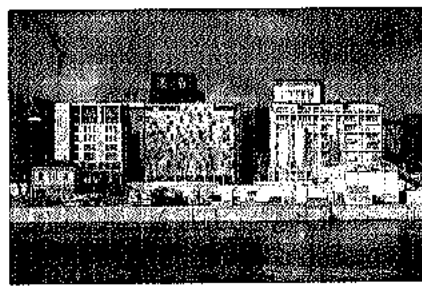
크리스티앙 드 포잠박(Christian de Portzamparc)은 '세느강 좌안(左岸)지구' 내의 주택지인 마세나(Massena)지구의 디자인을 담당하였다. 포잠박의 마스터플랜에 의해 이곳의 수동의 아파트먼트가 각기 다른 건축사에 의해 설계되었다.

이번 호에 소개된 작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브레낙 과 곤잘레스의 아틀리에가 설계한 A동, 장 필립 파르가드에 의한 C동, 가엘 뻬노에 의한 D동, 까뜨린느 뤼레의 E동, 앙드레안스틴코의 F동 등이다.

1994년 포잠박은 파리 좌안(左岸)의 마세나지구의 입찰에 초대되었다. 여기서 그는 그 자체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하면서 이 특수한 근린지구와 파리의 연결관계가 확보되도록 계획의 배열과 적절한 규모를 모색하였다. 그는 2개의 대립하는 원칙을 세웠다. 하나는 개개의 솔리드한 형태의 자유로운 취급이며, 또 다른 하나는 공공공간이라는 비워진 공간에 대한 엄격한 취급이다. 작업을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근린지구



런던-리처드 로저스의 몬테비트로 주택재개발 프로젝트(1994-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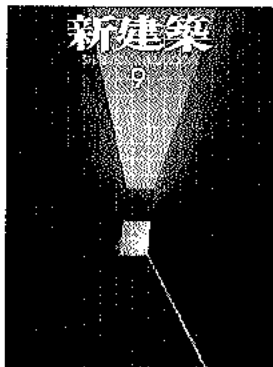
파리 좌안지구의 아파트먼트

를 이중(異種)의 건축군과의 상호작용으로 생각하는 합리적인 수법이 나타났다. 그가 여기서 목표했던 것은 도시를 변화나 다양성 등 미지의 장래에 대응할 수 있는 성격을 지니게 하는 것이다. 도시의 형태는 건물이나 가로의 배치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양상을 어떻게 분절해 갈 것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것은 블록의 형태를 어떻게 정해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건물을 집적하거나 혹은 분리해 가는 방법으로서 해석한 것이다. '오픈 블록'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면서 그는 근대도시에 있어서 공공 공간의 개념을 건물을 집적해 가는 행위를 통해 재검토해가는 방법을 모색한 것이다. 즉 여기서 근대건축이 투쟁해 온 자율성을 지닌 건축(형태)라는 제재(題材)에 의해 구축되어 세워진 가로라는 테마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는 어떠한 장식을 붙이는 것도, 경계역을 만드는 것도 거부하였다. 이 새로운 블록은 굴삭되고, 일정한 규율을 따라 보이드와 솔리드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최종적으로 그것은 생각지 못했던 형태로 완성된다. 그것은 도시계획과 건축과의 중간영역에 해당하는 작업이며, 그가 다른 건축사들에게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분야인 것이다.

신건축

2004년 9월호

이번 호에서는 표지를 장식한 안도 타다오의 지중(地中)미술관을 비롯하여 스즈키 료지의 '金刀比羅宮' 프로젝트, 마이크로 도시 ARIA의 마지막 프로젝트인 카타가와라 아츠시 설계의 '발라에스테리오와 산타리아 팔교회', SUS가 시



공한 알루미늄 조립식 건물로 아마모토 리켄 설계공방이 설계한 에콰스(ECOMS)하우스와 에콰스팩토리, 쿠로야나기 아키오가 설계한 '바다의 집' 등이 소개되었다. 또한 권두 논문으로 後藤治의 일본 대도시에서의 근대건축 보존과 도시 재생에 대한 논문이 게재되었다.

권두논문 : 보존과 도시재생-움직이기 시작한 도시지역의 근현대 건축의 보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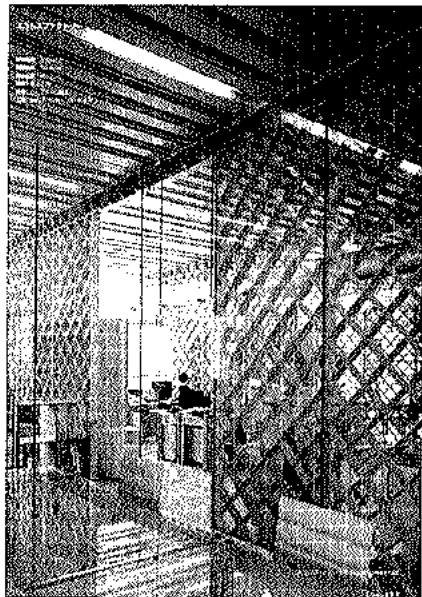
신건축지에서는 권두 에세이는 거의 빠짐없이 게재하고 있으나 권두 논문은 에세이만큼 접하기는 힘들다. 이번 호에는 일본의 공학원대학 조교수인 後藤治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논문이 기보다는 논설에 가까우나 최근 국내에서도 등록 문화재 제도에 의해 근대 건축물들의 보존이 이루어지고 있고, 근현대 건축물의 보존과 도시의 재개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그의 글은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後藤治의 글은 현재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근대 건축을 혹은 도시경관의 보존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에서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이 이루어진 것은 문화재보존의 역사와 그 패를 같이 하며

1897년 고사사(古社寺)보존법에 의한 사사(社寺) 건축(신사와 시원 건축)의 보존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1929년에는 국보보존법에 의해 성곽 등의 보존이 개시되었으며, 1950년대에는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되게 되었다. 1950년대 중반에서 1960년대 중반에 걸쳐 민가(民家)에 대한 보존이,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중반의 시기에는 메이지와 다이쇼 시대의 양풍(洋風, 서양풍)건축에 대한 보존에 진전을 보았다. 1975년에는 문화재보존법의 개정에 의해 전통적건축물보존지구제도가 도입되어 집락과 도시구역에 대한 보존이 시작되었으며, 금년 6월 경관법의 공포로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저자가 지적하는 현재 일본에서 근대 건축물의 보존의 과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도시지역에서 보존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과 근대건축의 특성상 사기업 등 민간이 주도해가는 보존운동의 필요성이다. 현재 일본에서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 상태를 보면 서구 국가들에 비해 도시지역에 지정된 건물 혹은 지구의 수가 현격히 적다는 것이 문제이다. 서구의 역사적 대도시에서 시가지의 재개발을 논할 때에는 역사적 구시가지의 보존을 전제로 한 재개발을 염두해 두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도시의 밀도를 높이기 위한 전면적인 쇄신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건물의 연한이 오래된 것만을 보존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도 대도시에 남아있는 근대 유산들이 보존 대상에서 누락되는 현상을 낳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근대건축물의 경우 그 소유자가 개인이나 민간기업인 경우가 많아 이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부의 세제 감면 등 보존에 대한 지원 없이는 근대건축물의 보존은 어렵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건축물의 보존에 있어 앞으로의 과제는 첫째 개개의 건물을 단위로 한 보존에서 지구 전체에 대한 보존으로 그 개념을 전환하는 것이다. 도시에 남겨진 역사적 경관과 컨텍스트의 보존 없이 건물 하나만을 남겨 보존하는 것은 그



에콰스팩토리

의미가 크게 감소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존의 방법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이 과정에서 건축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몇몇 전문가 뿐만 아니라 근대 건축물 및 도시경관의 보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안도 타다오의 지중(地中)미술관

자연에 매설(埋設)되는 건축 - 直島에서 이루어진 안도 타다오의 17년간 프로젝트 궤적

지중(地中)미술관은 瀬戸内海에 떠있는 작은 섬의 하나인 直島에 만들어진 지중(地中)미술관이다. 인상파 화가인 끌로드 모네와 현대미술 작가인 월터 드 마리아, 제임스 터렐 이렇게 3 작가들의 작품이 영구 전시되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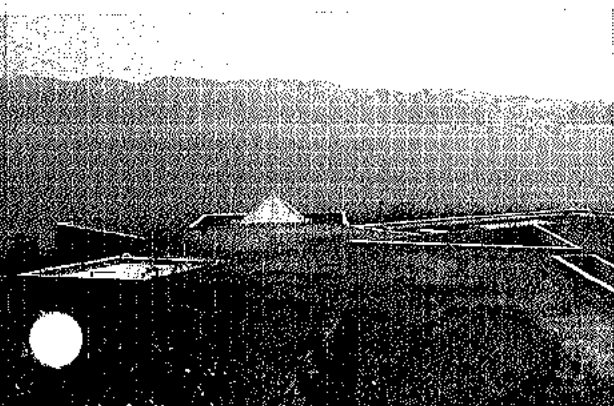
안도타다오와 直島와의 만남은 1987년, 베넷세 코퍼레이션의 福武總一郎씨가 '瀬戸内海에 있는 直島를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세계적인 섬으로 만들고 싶다'라며 안도를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몇 일 후 처음으로 直島를 그가 방문했을 때에는 교통의 불편함과 섬의 산업을 지탱해 온 금속정제산업의 영향으로 황폐해진 자연환경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현지에서 福武씨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 할 수 있었고, 결국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된다. 1988년 '시사이드 파크'의 감수에서 1992년 '베넷세 하우스', 1995년의 '베넷세하우스의 어네스', 그리고 1999년 '집(家)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17

년에 걸쳐 건축사로서 다양한 형태로 섬의 개발 구상에 관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일관되게 고수했던 것은 자연의 지형, 풍경을 해치지 않도록 건물을 지형에 맞추어 땅 속으로 가라앉힌다는 아이디어이다. 생물이 증식하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건설해가는 과정에서 '자연에 매설되는 건축'이라는 이미지는 한층 확신을 얻어 갔다고 생각된다. 저중미술관은 이러한 直島에서 장기간 이루어진 문화활동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하나의 이정표로서 의미를 지니며 계획되었다.

(번역 / 강상훈)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 강남구건축사회/(02)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68)7475 · 강북구건축사회/(02)2030 · 강서구건축사회/(681)6999 · 관악구건축사회/(077)4844 · 광진구건축사회/(448)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69)1588 · 노원구건축사회/(037)1100 · 도봉구건축사회/(930)8720 · 동대문구건축사회/(967)6052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6781 · 서대문구건축사회/(336)5552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92)5655 · 성북구건축사회/(0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34)9040 · 영등포구건축사회/(8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68)1486 · 종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9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6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동부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북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935-0545 · 파주지역건축사회/(031)941-2410 · 포천지역건축사회/(031)3857-6149 · 오산 · 화성지역건축사회/(031)375-66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8-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1-8709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3 5080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9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 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3-3598 · 충주지역건축사회/(043)651-1587 · 음성지역건축사회/(043)973-0160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 공주지역건축사회/(042)854-3365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4-3367 · 백제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6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6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36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3)8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52-7023 · 나주시지역건축사회/(061)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61)726-6277~8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6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2-8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9-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0244 · 영주지역건축사회/(054)834-5580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4-8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44-60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5-66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 6030 · 김해지역건축사회/(055)334-6644 · 마산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시천지역건축사회/(055)833-9770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시지역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33)883 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



지중(地中)미술관